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1. 나를 키우는 읽기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내공 쌓기 ①

11쪽

01 ④ 02 ④ 03 ④ 04 '이덕무'가 오직 책을 읽는 것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이다.

01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거나 게임을 하고 싶는데 억지로 책을 읽어야 할 때 책 읽기가 싫어진다며 읽는 이가 공감할 만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로 보아 게임이 지루해서 대신 책을 읽는다고 한 것은 글쓴이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처음 - ②'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책을 읽는 까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2 '이덕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배가 고플 때, 조금 추울 때,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졸릴 때 책을 읽으면 잠이 달아난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은 '이덕무'가 말한 네 번째 유익함, ②는 두 번째 유익함, ③은 세 번째 유익함, ⑤는 첫 번째 유익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3 '가운데 - ④'의 내용에 따르면 '이덕무'는 조선 후기의 학자였는데 양반과 양민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이다 보니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양반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어서 답답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가 되어 준 책 읽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덕무'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던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 서가 아니라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었기 때문이다.

② '이덕무'는 벼슬을 하고 싶어도 신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또한 당시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③ '이덕무'가 힘들 때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친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덕무'는 신분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처지를 한탄하여 책 읽기에 더욱 몰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04 서술형 '가운데 - ③'의 내용에 따르면 '간서치'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인데, '이덕무'는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책 읽는 데에 열중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라고 불렀다고 했다.

평가 기준

확인

'이덕무'가 '간서치'라고 불린 이유를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내공 쌓기 ②

13쪽

01 ⑤

02 ③

03 만병통치약

04 ③

01 '가운데 - ⑤'에서 '이덕무'가 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이덕무'는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덕무'는 힘들고 답답할 때 조용히 책을 읽으며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덕무'가 친구들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③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걱정이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달리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글쓴이가 보거나 들은 것들로 '이덕무'의 읽기 방법과는 관계가 없다.

④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덕무'는 주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다스렸을 뿐이다. 힘든 상황을 이겨 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렸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2 글쓴이는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책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에 비유하여 책을 읽을 때의 좋은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얻게 된다거나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이덕무'가 책을 읽어서 벼슬을 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만병통치약'은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글쓴이가 나열한 책 읽기의 좋은 점을 비유하기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덕무'의 책 읽기 태도를 바탕으로 책을 읽으면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여 지혜로워지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도 해결하고, 몸의 병도 낫게 하므로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04 책을 읽는 습관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읽는 것이 좋다. 또한 읽기 계

획을 세울 때에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① 친구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책을 읽기 위한 방법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거나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읽을 수 있다.
 ④ 읽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 주변 여건, 읽기 목적, 읽기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친구들과 같이 읽을 책을 고르는 것이므로 서로의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고 어떤 책을 읽을지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책을 읽은 후에는 독후감 쓰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다.

축집게 **숙** **예상 문제** 본문 14~17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08 ④ 09 ① 10 ④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11** 싸리나무, 고사리 **2단계 12** 힘들고 답답할 때 책을 읽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책을 읽으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 13**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친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 환경 문제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야.

01 (가)에서 독자인 학생들이 책을 읽기 힘들어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까닭으로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책 읽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지도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다양한 까닭을 제시하고, (마)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읽기를 생활화하자고 권유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독자에게 (가)에서 '친구들'이라며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고, '비비 꼬이지?', '싫지?' 등 반말로 된 구어체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나)의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등에서 알 수 있듯 문답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④ (다)와 (라)에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이덕무'의 책 읽기 사례를 들어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에서는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을 인용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나)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 다양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는 것은 읽기보다는 쓰기 능력과 관련된 것인 데다 글쓴이가 언급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03 '이덕무'는 슬프고 답답할 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달리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마)에서 글쓴이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의 예로 든 것이지 '이덕무'가 사용한 방법은 아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책을 읽는 것 역시 (나)에서 글쓴이가 책을 읽는 까닭으로 든 것 중에 하나이다.

- 오답 풀이** ①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첫 번째 유익함이다.
 ②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네 번째 유익함이다.
 ④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세 번째 유익함이다.
 ⑤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두 번째 유익함이다.

04 (라)에 따르면 '이덕무'는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지만, 서자라도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기 위해 책 읽기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책을 읽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라)의 "아무리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니까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거든."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라)의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라)의 "이덕무는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라)의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바로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었지."를 통해 알 수 있다.

05 '수불석권(手不釋卷)'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이라는 의미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의 태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괄목상대(刮目相對)'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을 이르는 말이다.
 ② '목불식정(目不識丁)'은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고무래 정)'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이다. 고무래는 곡식을 그러모으고 퍼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자 모양의 기구를 말하는데,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사다리꼴의 널조각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든다.
 ③ '무위도식(無爲徒食)'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06 글쓴이는 누군가 자신들의 역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일을 다 해내는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으며,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나 글쓴이의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③ 모든 생명이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동일시해야 함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은 글쓴이의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07 서술형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가장 곧고 잘생긴 나무가 제일 먼저 잘려서 서까래감으로 쓰이고, 그다음 잘생긴 나무는 잘려서 기둥으로 쓰여 결국 가장 못생긴 나무가 살아남아 산을 지킨다는 뜻으로, 못생긴 나무라도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을 통해 얻은,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08 ㉔의 ‘거대한 교목들’은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보잘것없는 나무들’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남들보다 높이 자라는 것에만 전력을 다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키가 큰 교목들 때문에 숲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도 숲이 생길 때 그 틀을 잡아 주고, 교목들을 보호해 준다. 따라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㉔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을 가리키는 말로, 쑥, 억새, 고사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평상시에는 잡풀 취급을 받지만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한 땅을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식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㉔은 불모지를 푸르게 만드는 작은 나무와 풀들로 말은 바 임무를 묵묵하게 다 해내지만,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한다. 따라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⑤ ㉔은 글쓴이에게 남들 보기에 하찮고 평범해도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나무이다. 따라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09 (가)~(다)는 읽기의 가치를 알고 읽기를 생활화하자는 내용의 설명하는 글이고, (라)~(마)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적은 수필이다. (가)~(다)에서는 책을 읽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고, (라)~(마)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다)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덕무’의 읽기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 글쓴이가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담고 있지는 않다. (라)~(마)의 경우 전체 글 첫 부분에 글쓴이가 겪은 일화가 나오는데, 제시된 부분은 일화보다는 글쓴이의 감상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③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인데, 두 글 다 이러한 통념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에서는 학자인 ‘이덕무’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나, (라)~(마)에서는 글쓴이의 생각만을 전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주로 (라)~(마)와 같은 수필에 해당한다. (가)~(다)는 책 읽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이므로 이러한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10 글쓴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정해 둘 것을 권한 까닭은 ㉔에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 알 수 있다.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걱정이나 근심을 잊을 수도 있고(ㄴ),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ㄷ)이다.

오답 풀이 ㄱ, ㄴ은 책을 읽는 목적은 될 수 있으나, (나)에서 글쓴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 두라고 권유한 이유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1 (라)에서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을 처음으로 푸르게 만드는 식물이 ‘싸리나무’라고 하였고, ‘고사리’ 역시 잿더미가 된 땅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대우받지 못하는 식물인 ‘싸리나무’와 ‘고사리’가 사실은 산불로 폐허가 된 곳을 녹화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남이 보기에 하찮고 평범할 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단계 12 (가)에서 ‘이덕무’는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덕무’는 힘들고 답답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덕무’가 어떨 때 책을 읽었는지 바르게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3단계 13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자신이 깨달은 읽기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도록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책의 제목을 썼다.	☐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를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썼다.	☐

(2)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내공 쌓기 ①
21쪽
01 ① 02 ③ 03 ③ 04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유발할 / 유도할) 수 있다.

01 발표의 ‘처음’ 부분에서 세계 기아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하였고, ‘가운데 2’ 부분에서는 기아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 발표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운데 1’에서는 ‘세계 기아 실태 지도’ 그림을, ‘가운데 2’에서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를 제시하여 듣는 이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처음’ 부분에서 전 세계의 기아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며, 앞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④ 발표자는 유엔 인권 위원회 식량 특별 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독서 모둠 활동에서 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운데 2’를 보면 이 발표가 장 지글러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처음’ 부분에서는 인사 후 자신을 소개하고, 발표를 하게 된 동기와 발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기아 문제를 다루고 있다.

02 '가운데 1'에 제시된 '세계 기아 실태 지도'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를 통해 세계의 기아 인구가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기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만으로는 세계 기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세계 기아 실태 지도'는 기아 인구가 세계 곳곳에 넓게 퍼져 있으며 심각한 곳은 전체 인구의 35 퍼센트 이상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려 주므로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⑤ '세계 기아 실태 지도'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세계 기아 실태 지도'를 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아 인구는 세계 곳곳에 넓게 퍼져 있으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가운데 2'에 제시된 그래프는 권위 있는 기관인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ㄱ). 또한 이처럼 식품 공급량은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여,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에 제시된 내용처럼 식량 생산은 증가하는데도 아직도 기아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통해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ㄷ. 이 자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 줄 뿐, 식품을 공급하는 방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4 서술형 '보릿고개'는 지난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 굶주려야만 했던 시기를 뜻하는데, 지금 세대의 청중들에게는 낯선 말이다. 발표자는 이렇듯 중심 화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중들이 궁금해할 만한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이 발표 내용에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내공 쌓기 2

23쪽

- 01 ② 02 ② 03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얹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
04 ③

01 '가운데 2-③'에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지배 계층이 이를 가로채거나 기아에 시달리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처럼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국가에 더 많은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 하여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끝' 부분에서, ③은 '가운데 2-④'에서, ④는 '가운데 2-③'에서, ⑤는 '가운데 3-②'에서 각각 알 수 있다.

02 '가운데 2-④'에서 사막화 현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여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졌다고 하였다.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해졌다는 내용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운데 2-③'에 제시된 기아 문제의 두 번째 원인인 '부정부패'의 문제에 해당한다.

④, ⑤ '가운데 2-②'에 제시된 기아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인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에 해당한다.

03 서술형 발표자는 발표문의 '끝' 부분에서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세계의 기아 문제를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에 인용된 법정 스님의 말을 썼다.	☐
두 문장을 모두 썼다.	☐

04 이 글의 '가운데 3'에서 발표자는 '만 원의 기적 캠페인' 영상을 제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주고 있다. 친구들끼리 다 함께 돈을 모아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ㄹ),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ㄱ),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ㄴ)의 세 가지 해결 방안이 그것이다.

오답 풀이 ㄷ. 사막화가 일어나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사막화를 방지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일 수 있으나, 중학생인 청중이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ㄹ.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부정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일 수 있으나, 중학생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며 발표자가 동참하기를 권유한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다.

종합예상 문제

본문 24~27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5 ⑤ 06 ④ 07 ③
08 ③ 09 ④ 10 ③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11 • ㄱ: 원인 • ㄴ: 해결 방법(방안) 2단계 12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 3단계 13 (가). <보기>를 제시하면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여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01 발표의 내용을 구성할 때 듣는 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듣는 이의 흥미만을 우선시하면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발표 내용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①), 발표 내용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②), 발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③),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지(⑤)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02 서술형 발표의 처음 부분에서 발표자는 독서 모둠 활동 때 읽은 ‘장 지글러’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통해 우리가 세계의 기아(㉡)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기아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발표를 준비했다며 발표의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의 책 제목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의 ‘기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03 (라)에서 제시한 그래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의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뜻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준다.

04 (나)에서 발표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낯선 말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발표자는 청중에게 낯선 단어의 의미를 물음으로써 그와 관련된 기아 문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발표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듣는 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발표자는 ‘장 지글러’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아 문제에 무관심했음을 깨닫고, 이 문제를 다 함께 살펴보기 위해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④ (다)에서는 ‘세계 기아 실태 지도’라는 시각 자료를 통해 심각한 상태인 전 세계의 기아 문제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라)에서 발표자는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05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전 세계에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해 전 세계의 기아 실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② 시각 자료인 ‘세계 기아 실태 지도’를 제시하여 전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③ 통계 자료를 통해 세계의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④ ‘전체 인구의 35 퍼센트 이상’, ‘세계 인구의 약 9분의 1’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06 ㉠에서는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듣는 이로 하여금 기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발표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07 발표문에서 듣는 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 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라)에서 ‘세계의 기아 문제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를 통해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까닭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오늘 발표를 듣고, 여러분도 세계의 이웃을 생각하여 함께 고민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모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를 통해 기아 문제에 대한 듣는 이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기부, 기아 문제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등 듣는 이가 실천할 수 있는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8 이 발표의 목적은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청중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표자는 듣는 이가 이 발표를 듣고 세계 기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 해결을 위해 실천하기를 바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근거를 들어 듣는 이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농업 정책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새로운 농업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발표의 가운데 부분에서 세계 기아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기아 문제의 원인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발표자는 기아 문제 이외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쟁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발표자는 사막화의 개념을 설명하며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호수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만 하기보다 직접 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듣는 이가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진은 사막화가 일어난 지역의 모습이지,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자료가 아니다.

②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해서 사막화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사진은 사막화가 진행된 후의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

⑤ 사진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환경 보호는 이 발표문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10 ㉡에 이어서 발표자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으면 기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 개인이 동참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사막화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여 사막화 현상이 식량과 식수 부족을 불러오는 까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② ㉠은 앞서 제시한 기아 문제의 세 가지 원인을 종합하여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자기 땅에서 식량을 일구기도, 다른 나라의 식량을 얻기도 힘들다며 그런 나라의 형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은 듣는 이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은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세계의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발표자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설명 방법 - 정의

정의는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으로 주로 뜻을 명확하게 밝혀서 대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설명 방법의 가리킨다.

예 자연환경이란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뜻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1 이 발표문은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먼저 중심 화제인 '기아 문제'를 제시하고, 자신이 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목적을 밝힌 후, 자료를 활용하여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를 당부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에는 각각 '원인'과 '해결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ㄱ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썼다.	☐
ㄴ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썼다.	☐

2단계 12 (나)에서 발표자는 앞서 제시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히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시장 경제 체제와 부정부패의 문제 및 사막화 현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이렇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다)에서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찾아 썼다.	☐
발표에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여 썼다.	☐

3단계 13 <보기>의 자료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세계 기아 실태 지도'이다. 이 자료는 지도의 그림과 색을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비율로 기아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게 해 주며, 기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평가 기준	확인
(가)의 문단 기호를 썼다.	☐
<보기>를 제시했을 때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썼다.	☐

대단원 평가



-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①
 06 절망의 치료제, 희망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 07 ②
 08 ② 09 ① 10 ② 11 ③ 12 ②
 13 ③ 14 ⑤ 15 ④ 16 세계의 기아 문제
 17 ⑤ 18 ④

01 이 글의 글쓴이는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삶과 그의 읽기 태도를 살펴보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나열하며 읽는 이에게 책을 읽자고 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이덕무'의 말을 인용한 것은 그의 책 읽기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덕무'를 본받자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도 아니고, 무조건 많은 책을 읽자는 것은 글쓴이가 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말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④ 글쓴이는 책을 읽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⑤ 글쓴이는 책을 읽는 여러 목적을 나열하고 있으나 특히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지는 않았다.

02 이 글에는 '이덕무'가 책 읽기를 좋아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유익함을 얻었는지 나타나 있지만 '이덕무'가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책을 읽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이덕무'가 오로지 책 읽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 '책만 읽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② (다)와 (라)에서 '이덕무'는 지극히 슬프고 막막할 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글쓴이는 '이덕무'가 말한 책을 읽을 때의 유익한 점을 인용하고 있다.

⑤ (다)에서 '이덕무'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시대의 서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므로 책 읽기에 열중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03 '이덕무'는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벼슬은 할 수가 없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던 것은 서자여도 양반은 양반이기 때문이었다. 아무 것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이덕무'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마니아'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을 가리키므로, '이덕무'를 '책 마니아'라고 부를 수 있다.

② '이덕무'가 서자였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신분 제도에 따른 차별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이덕무'가 책을 읽고 벗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 중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4 <보기>에서 ‘이덕무’는 막히는 구절이 나오면 답답함을 느끼다가 문득 그 뜻을 깨우쳤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이 상황은 (마)에서 글쓴이가 말한 읽기의 가치 중에서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과 가장 가깝다.

05 ㉠ ‘번뇌’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을 뜻하는 말이다. ㉠의 뜻풀이는 ‘욕망’이라는 단어에 관한 것이다.

06 서술형 ㉡의 ‘만병통치약’은 글쓴이가 글(책) 읽기를 비유한 표현이다. <보기>에서 글쓴이는 책을 ‘절망의 치료제’와 ‘희망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에 비유하여 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어떤 대상을 비유한 표현을 바르게 찾아 썼다.	☐
두 가지 표현을 모두 찾아 썼다.	☐

07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할 때에는 발표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발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발표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

08 이 발표문은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듣는 이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발표에서는 ‘기아 문제’라는 문제 상황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시간의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도 나타나지 않는다.

㉢ 발표자는 (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참여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거나 이외에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청중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안내하는 것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발표에 적절한 방법이다. 이 발표는 청중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발표자가 속한 모둠에서 발표 내용을 정한 것이고, 발표 역시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다.

㉤ 이 발표가 모둠 활동에서 읽은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책을 읽고 난 느낌 위주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효과적인 내용 조직 방법

- 대상을 소개할 때: 대상의 구조나 쓰임, 외형 등에 따라
- 사건을 소개할 때: 시간 순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 조사 결과나 실험 과정을 보고할 때: 단계나 절차에 따라

09 설의적인 표현은 이미 듣는 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짐짓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듣는 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발표문에서 사용된 질문은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설의의 방법이 쓰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세계 기아 문제의 원인을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을 보여 주는 그래프와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드러낸 호수’ 사진을 활용하여 듣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듣는 이가 실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제안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얹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라고 한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자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설의법

설의법은 문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평서문으로 진술해도 좋을 문장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나타내 고자 하는 생각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뜻

10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사막화 현상 때문에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기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막화 현상으로 기아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지, 기아 문제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나)의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식량 부족은 세계 기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 (마)에서 세계의 기아 문제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아 문제는 우리와 얹혀 있는 문제이므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다)에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단계에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지만 일부 지배 계층이 이를 가로채거나 악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호 물품이 기아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다)에서 일부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거나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이기도 하여, 그 피해가 다시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의 이윤 추구 때문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11 ‘세계 기아 실태 지도’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여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세계 기아 실태 지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과 다른 나라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을 비교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발표자가 세계의 기아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단순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아 문제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세대별 기아 인구의 비율은 ‘세계 기아 실태 지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이 발표는 세계 기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 우리나라 기아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

㉤ ‘세계 기아 실태 지도’를 통해 기아 문제가 국가마다 그 심각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후의 발표에서 우리 모두가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12 ㉠은 전 세계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식품의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이다. ㉠에 따르면 식품 에너지 공급량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도는 상태다.

오답 풀이 ① ㉠은 세계 지도에 기아를 겪고 있는 나라를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기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지도이다. 이를 통해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기아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③ ㉢은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의 사진으로, 사막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④, ⑤ ㉣은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월드비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호 활동을 소개하고, 듣는 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13 <보기>에서 '학생 3'은 발표자가 제시한 기아 문제의 원인별 해당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타당하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발표를 들으며 자신이 깨달은 점과 앞으로 자신이 실천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태도를 반영하면서 들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지 판단하며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학생 4'는 기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제안한 해결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학생 5'는 발표자가 제안한 기부 방식에 동조하고, 곧바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발표자가 의도한 발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14 (가)는 설명하는 글, (나)는 발표문, (다)는 수필이다. 수필은 비교적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발표의 경우 설명하는 글과 같이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성에 따른 짜임을 취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읽는 이를 '친구들'이라고 친근하게 호칭하고, 반말 투로 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나)는 책을 읽고 발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다양한 독후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갈래는 수필로,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을 가리킨다.

④ (가)는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또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와 같이 질문을 한 다음 내용을 이어 가고 있다. (나) 역시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시나요?'와 같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듣는 이의 관심을 끌며 발표를 이어 가고 있다.

15 (나)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및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와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기에 적절한 주제는 ④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조사 결과나 실험 과정을 보고하는 발표에서는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② 어떤 장소를 여행한 소감을 밝힐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 적절하다. 혹은 인상적인 것 중심으로 소개한 후 그에 대한 감상을 적는 방법도 가능하다.

③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을 항목별로 나누어 발표할 수 있다.

16 서술형 (나)는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을 지적하며,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해결 방안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세계의 기아 문제임을 바르게 썼다.	☐
3어절로 썼다.	☐

17 (다)의 글쓴이는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에게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거대한 교목'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다)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보기>는 '동해 바다'를 보며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③ <보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말하는 이는 '동해 바다'가 스스로를 억센 파도로 다스리고 제 몸을 맏고 모진 매로 채찍질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보기>의 말하는 이는 '동해 바다'처럼 너그럽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글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들을 보며 자기 자신 역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내용 기르기

두 작품 이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잘 아는 작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잘 아는 작품에 대한 선지의 내용부터 살펴본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거지. (다)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니가 먼저 (다)와 관련된 내용을 판단한 다음에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를 먼저 보고 ⑤가 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②번과 ③번은 보지 않아도 적절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18 <보기>의 발표 주제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구성 단계상 중심이 되는 내용은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끝'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으로 옮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발표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처음' 부분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②, ③ 플라스틱의 정의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 플라스틱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발표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므로 '가운데' 부분이 적절하다.

⑤ 발표의 '끝' 부분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듣는 이에게 당부할 말을 전하므로 적절하다.

2.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내공 쌓기 ①**

39쪽 01 ② 02 ⑤ 03 ㉔: 담화, ㉕: 듣는 이(읽는 이)

01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이(글쓴이)가 있어야 하고, 이 말을 듣는 이(읽는 이)가 있어야 한다. 이 두 요소는 담화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 둘이 없으면 담화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필요하다.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글쓴이)나 듣는 이(읽는 이)가 전문적일 정도로 담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담화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02 ㉑과 ㉒은 “어떻게 왔어?”라는 같은 말이지만 담화 참여자가 누구인지, 담화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㉑은 ‘어디가 아파서 왔니?’의 의미로, ㉒은 ‘무엇을 타고 왔니?’의 의미로 쓰였다. 이로 보아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담화의 뜻은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

 **내공 쌓기 ②**

41쪽 01 ② 02 ④

01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즉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주어진 상황은 너무 늦게까지 자고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2 시험장이라는 공간을 ㉓고려할 때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부정행위를 하지 마세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을 조용히 읽으세요.’라는 의도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할 만한 곳은 도서관이다.

 **내공 쌓기 ③**

43쪽 01 ① 02 ③ 03 ⑤

01 (가)는 지역 방언으로 쓴 안내문을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지역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나)는 딸과 세대가 다른 아빠가 딸의 세대가 주로 쓰는 줄인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이렇듯 담화를 할 때에는 지역, 세대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02 (다)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관용적 표현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② (다)에서 ‘민재’와 외국인 친구는 세대가 다르지 않다.

④ 외국인은 ‘이모’와 ‘언니’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으나, 그 의미와 다르게 쓰이는 관용적 표현 때문에 한국말을 어렵게 느낀 것이다.

⑤ 외국인은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가 담겨 있는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3 담화의 상황 맥락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이 있다.

 **내공 쌓기 ④**

45쪽 01 ③ 02 ③ 03 차별적 표현 04 ④

01 ‘윤하’와 ‘선호’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연설자 ‘넬슨 만델라’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담화에는 역사적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담화의 내용을 파악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연설문을 읽었다는 것은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연설문을 쓴 사람이 ‘넬슨 만델라’이고, 이 연설문을 책으로 쓴 사람이 ‘베로니크 타조’로 둘 다 외국인인 것은 맞지만, 학생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읽고 있으며, 단지 연설문에 쓰인 용어와 주장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외국인이 썼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연설문은 인종 차별 체제를 없애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고 호소하고 있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⑤ 한자어가 주로 쓰이긴 했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한자어가 아니라 ‘아파트먼트’의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연설문의 개념과 특성

개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함으로써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글임.
특성	- 일반적으로 높임말을 사용함. -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함. - 주장이나 의견 등이 강하게 나타남. - 청중의 연령이나 관심사 등을 고려함.

02 이 글은 인종 차별을 없애고 자유를 쟁취하자고 주장하는 연설문이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연설문이므로 호소의 기능을 지닌 담화이다.

03 서술형 올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이 담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해하고, 인종, 국적, 지역,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4 ‘윤하’는 연설이 이루어질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조사할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 연설문처럼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6%의 백인이 84%의 비(非)백인을 차별해 왔는데, 1948년 네덜란드계 백인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당의 정부 수립 후 이러한 차별이 강화되어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리었다. 이 정책은 인종 격리를 추진하고 유색 인종의 참정권을 부정하며 이인종 혼인 금지법·집단 지역법에 의해 백인의 특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다 1976년 흑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일어난 ‘소웨토 폭동’ 후 유색 인종의 투쟁이 강해졌고, 1990~1991년 클레르크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넬슨 만델라가 1994년 최초의 자유 총선거에서 흑인 대통령으로 뽑히면서 아파르트헤이트는 철폐되었다.

축집게 **예상 문제**

본문 46~49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네, 지금 일어날게요. / 10분만 더 잘게요. 등 **07** ⑤ **08** ①
09 ② **10** ⑤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②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7**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2단계** **18** · 상황 1: 차례를 지키세요. · 상황 2: 무단 횡단을 하지 마세요. **3단계** **19** 담화를 할 때에는 인종, 지역 등과 관련된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01 공적인 의사소통도 담화의 구성 요소인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 등이 있으므로 담화에 해당한다. 즉, 공적인 의사소통, 사적인 의사소통 모두 담화에 해당한다.

02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세대, 지역, 문화, 성별, 역사적 상황 등이 있다. 시간과 공간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상황 맥락이다.

03 <보기>의 ㉠과 ㉡에 쓰인 “어떻게 왔어?”는 같은 말이지만 ㉠에서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의 의미로, ㉡에서는 ‘무엇을 타고 왔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동일한 말도 담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담화를 할 때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삼가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은 아픈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있고, ㉡은 체형 활동 장소에 도착한 친구에게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물음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②, ④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은 보건실, ㉡은 체형 활동 장소이다. 담화 참여자의 나이나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과 ㉡에서 사용된 “어떻게 왔어?”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

⑤ ㉠의 수용자는 아픈 학생이고, ㉡의 수용자는 친구이다. 같은 말이라도 담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하므로, 이들이 담화 생산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04 만화의 배경을 보면 많은 신발이 진열되어 있고, 그림 3에서 여자가 신발을 신어 보고 있으므로 신발 가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속 똑같은 배경이므로 공간이 바뀌지도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그림 2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와 그림 3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은 형식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그림 2에서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림 3에서 남자의 직업이 신발 가게 점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말하는 이가 전달하는 발화를 듣는 ‘듣는 이’가 있어야 한다.

⑤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림 2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으나, 그림 3에서는 손님과 점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 그림처럼 담화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바뀔 수 있다.

05 ⑤의 손님은 매장에 원하는 물건이 없다는 의미로 “다음에 올게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점원은 그 담화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시적인 의미로만 파악하여 예약을 잡아 두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점원이 담화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정도의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서술형 (가)에서 엄마는 늦잠을 자고 있는 아들에게 화가 난 상황이므로, 엄마의 말은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엄마가 말한 의도에 맞는 대답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나)의 상황에서 엄마는 정확한 시간이 궁금해서 아들에게 “지금 몇 시니?”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그만하게 하려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다.

08 <보기>에서 “양심을 지켜 주세요.”라는 문구를 보는 대상은 새치기를 하는 학생이므로 양심을 지키라는 말은 ‘차례를 지키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09 (가)에서 지역 방언으로 안내문을 쓴 이유는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표

준어로 풀이를 해 놓았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사람들만 공유하기 위한 안내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안내문은 지역 방언으로 쓰여 있어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③, ④ (나)에서는 딸이 자신의 세대에서 주로 쓰는 줄인 말을 사용하여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⑤ (가)에서는 지역으로 인해, (나)에서는 세대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지역, 세대, 문화, 성별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10 담화를 할 때에는 같은 단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단어의 사전적, 지시적 의미보다는 맥락을 고려하여 듣고 말해야 한다.

11 (가)의 일기를 쓴 외국인인 ‘이모’, ‘언니’의 사전적인 뜻을 알고 있기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어를 쓰자 어색하게 느낀 것이다.

오답 풀이 ㄷ.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고 있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ㄹ. 일기에서는 식당과 옷 가게에서 들은 말에 대해 쓰고 있지, 그 내용을 맞춤법에 맞게 적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12 다른 문화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3 학생들이 (나)의 연설문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까닭은 연설이 이루어진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담화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야 한다.

14 (나)의 연설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넬슨 만델라’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인종 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나)에서는 자유와 평화, 인종 화합과 같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두 번째 문단 끝부분에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보통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⑤ 연설자는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청중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흑인과 백인을 구분 짓는 인종 차별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5 <보기>는 친구에게 쓴 편지글로 친근감이나 미안함 등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사교적인 담화이다. 즉, 다른 사람과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한 목적의 글이다.

16 ㉠에 대한 대답으로 교통수단인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타고 왔니?’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에 대한 대답으로는 다른 친구가 알려 줬다고 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알고 왔니?’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7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담화를 할 때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담화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첫 번째 빈칸에 ‘상황 맥락’을 썼다.	☐
두 번째 빈칸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썼다.	☐

2단계 18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동일한 표현의 말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담화는 상황 맥락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상황 1에 차례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썼다.	☐
상황 2에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썼다.	☐

3단계 19 제시된 말에는 지역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들이 드러나 있다. 서울로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서울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차별적 표현, ‘촌뜨기’라는 표현은 지방 출신의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 ‘살색’은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평가 기준	확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썼다.	☐
인종, 지역 등 흔히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는 측면을 함께 언급하였다.	☐

내용 기르기

우리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남에게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쓰지 않아야 하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에도 차별적이고 편견 어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해.

(2) 의미를 나누는 듣기·말하기



내용 쌓기 ①

51쪽 01 같은, 다른 02 ③ 03 ④ 04 ④

01 서술형 제시된 대화 내용으로 보아,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여학생의 반응은 (가)와 (나)처럼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듣기·말하기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참여자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02 듣기·말하기는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도 (가)와 (나)처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듣기·말하기 활

동은 참여자인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같은 대화에서 출발하였으나 (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는 단어의 의미로 그 방향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
 ② 예를 들어 처음에 남학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로 말했다고 하면 (가)는 그 의도로 흘러갔지만, (나)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갔으므로 대화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남학생의 말에 여학생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말하는 이가 일반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말하는 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듣는 이가 경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듣는 이가 말하는 이가 되고 말하는 이가 듣는 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주도하에 대화가 전개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의 여학생은 “재미있네. 다른 이야기는 없어? 알면 더 해 줘.”라고 말하며 다른 재미있는 농담들을 더 듣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재미있네.’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감정 표현이 말의 주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나)이다.

04 (나)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농담을 듣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천일엽’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고 남학생에게 되묻고 있다.

내공 쌓기 ②

53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1 (다)의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을 건네고 있는데, 이는 (다)의 두 번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서’는 ‘서우’와 친해지려는 친교의 목적으로 발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의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화를 하고 있다.
 ③ (나)의 아들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발화를 하고 있다.
 ④ (나)의 엄마는 아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발화를 하고 있다.

02 (가)와 같은 강연을 듣기 전에 청중들은 강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배경지식이 많으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강연자는 강연을 듣는 학생들이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준비했어야 한다.
 ② (나)에서 엄마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고 있는데다가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③ (가)에서 강연을 듣는 청중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에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서우’에게 말을 건넬어야 한다.

03 (나)에서 아들은 타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다.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원이라며 폐를 쓸 것이 아니라 차분한 태도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가며 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04 (나)에서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났는데도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옷차림에 관한 농담을 하여 ‘서우’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서’는 ‘서우’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상대가 기분 나쁠 법한 농담은 건네지 않았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드러내되, 상대의 처지나 상대와의 관계, 대화의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람의 외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에서 ‘영서’는 ‘서우’가 입은 옷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서’가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③ ‘영서’는 ‘서우’를 처음 만난 사이인데 처음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④ 농담을 한 쪽은 ‘영서’이므로 이 농담을 들은 ‘서우’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다.

내공 기르기

제시된 대화에서 ‘영서’와 ‘서우’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 보. 친한 친구라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농담인데 처음 본 사람이 말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상상해 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영서’와 ‘서우’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

내공 쌓기 ③

55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⑤

01 이 글의 등장인물인 아빠와 아들은 처음에는 울타리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화를 하면서 울타리에 대해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오히려 해소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줄거리

열두 살 소년인 ‘로버트’와 그의 가족은 ‘태너 아저씨’와 한동네에 산다. 어느 날 ‘로버트’는 ‘태너 아저씨’의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돕는다. ‘태너 아저씨’는 ‘로버트’에게 고마워하며 새끼 돼지를 준다. ‘로버트’는 돼지에게 ‘핑키’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핑키’를 정성 들여 돌본다. 하지만 ‘핑키’의 사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로버트’의 아버지는 ‘핑키’를 죽인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로버트’는, ‘핑키’를 보내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후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한 ‘로버트’는 어른이 되어 간다.

02 이 글에서 아빠는 자신의 아들이 울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자, 울새, 여우 같은 동물이나 식물도 울타리를 세운다며 울타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아빠와 아들은 자기

네 땅과 이웃인 '태너 아저씨'네 땅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옥수수밭'은 울타리가 아니라 울타리로 구분되는 땅에 속한다.

03 아들은 아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쟁을 하듯이 자기 걸 지키려고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다.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아들은 울타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

04 ㉠에서 아들은 아빠의 말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아빠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통해 인식이 변화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울타리가 우습다는 자신의 생각을 아빠도 맞다고 해 주기를 바라는 말이다.
 ② 아빠는 아들의 생각을 바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듣고자 하고 있다.
 ③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전쟁을 하듯'이라고 비유하며 사람들만이 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④ 아빠는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축집게 예상 문제

본문 56~59쪽

- 01** ③ **02** ② **03** ③ **04** '서우'와 빨리 친해지려고(친해지고 싶어서) / 친교의 목적으로 **05** ⑤ **06** ② **07**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
08 ② **09** ③ **10** ⑤ **11** ④ **12** 평화로운 전쟁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13** 울타리, 공유 **2단계** **14** 친구들이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저를 놀려서 속상했어요. **2단계** **15** [(다)의 강연자] • 목적: 정보 전달, • 유의할 점: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설명한다. / [(라)의 아들] • 목적: 설득, • 유의할 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01 (나)의 강연자는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말하고 있다. 강연에서 강연자는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동작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만화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02 (나)의 학생들은 강연의 내용을 미리 찾아보지 않거나, 강연의 주제에 대해 모르고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연과 관련 없는 잡담을 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강연자는 청자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탑, 옥개석'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아들은 놀이공원에 가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④ (다)의 엄마는 아들의 말을 긍정적인 태도로 듣지 않고 무시하듯 말하고 있다.

⑤ (라)의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는 농담을 하고 있다.

03 대화는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도 듣는 이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화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말하는 이의 의도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언어유희'는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뜻하는데, 말 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따위가 있다. (가)의 남학생은 '천일염', '신발끈'이라는 말을 소재로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있다.
 ②, ⑤ (가)의 여학생(㉠)은 재미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여학생(㉡)은 단어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있다. 이처럼 듣는 이의 관심사에 따라 대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④ 처음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정말로 소금의 유통 기한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천일염'이라는 말로 장난을 치기 위해서이다.

04 서술형 '영서'는 '서우'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서우'를 처음 만났는데도 '서우'가 불쾌해할 만한 농담(웃차림을 지칭하는 내용)을 건네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서우'와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다.	☐
담화의 가능 중에서 '친교'라는 말을 썼다.	☐

05 '평화로운 전쟁이야.'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준다.'에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는 울타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양면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② 아들은 이웃인 '태너 아저씨'가 좋은 이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③ 어린아이인 아들이 울타리를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용들이 나타난다.
 ④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기 전에는 울타리를 전쟁을 하듯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세우는 것이며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06 아빠와 아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어도 서로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서로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빠는 어린 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아들이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어 가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아빠는 아들의 생각을 먼저 들은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들은 아빠가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지, 여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07 서술형 아들은 아빠와의 대화 전에는 울타리를 전쟁하듯이 자기 걸 지키려고 세우는 것,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울타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이며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울타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울타리가 이웃을 하나로 만든다는 내용을 썼다.	☐
'~것'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썼다.	☐

08 (가)는 시나리오로,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다. 연극 상연을 전제로 쓴 글은 희곡이다.

[참고 자료] 시나리오의 특징

- 장면(scene)을 단위로 구성됨.
- 모든 사건을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 줌.
-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사건이 전개됨.
- 희곡에 비해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수 등의 제약을 적게 받음.
-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글이며,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09 (가)의 대화 참여자는 '차은'과 '차은'의 엄마로,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달리 (나)의 대화 참여자인 아들과 아빠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협력적으로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

10 '차은'의 엄마는 '차은'에게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차은'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엄마는 딸의 기분을 모른 채 '차은'에게 운동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11 (가)의 '차은'과 엄마는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식수준에 맞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서술형 아빠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들에게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울타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아빠는 '평화로운 전쟁'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울타리의 긍정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나)의 아들은 처음에는 울타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지만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울타리가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듯 듣기·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인 것이다.

2단계 14 편지에서는 무척내고 화를 내지 말고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차은'은 엄마가 필리핀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기분이 좋지 않음을 말할 것이다. 게다가 엄마가 필리핀인이라는 것을 '영찬'이 알렸는데, 엄마는 '영찬'을 남자 친구로 오해하고 있어서 더 화가 났음을 말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친구들이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차은'을 놀렸다는 내용을 썼다.	☐
'차은'이 놀림을 받아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을 썼다.	☐

3단계 15 (다)의 강연자는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라)의 아들은 '무조건'이라며 막무가내로 엄마에게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고 있으며, 엄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강연자에게는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기를, (라)의 아들에게는 듣는 이를 설득시킬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권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다)와 (라)의 목적을 각각 한두 단어로 간단하게 썼다.	☐
(다)의 강연자가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
(라)의 아들이 주장할 때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썼다.	☐

본문 60~65쪽

대단원 평가



01 ②	02 ②	03 ①	04 ①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④
16 ④	17 ⑤	18 ⑤	19 ④	20 ④
21 ④	22 ⑤			

01 담화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의 연속체이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공적인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 맥락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세대, 지역, 성별, 역사적 상황 등이 있다.

02 (가)에서 보건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니?'라는 의미로 물어본 것이다. 이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보건의실이고 듣는 이가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배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체험 활동 장소이고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므로, 교통수단을 묻고 있는 것이다. 친구는 버스나 지하철 등 자신이 타고 온 교통수단을 이야기할 것이다.

③ 그림 ①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여자의 직업은 의사이다. 그림 ⑤에서 여자가 신발을 신어 보고 있으므로 남자의 직업은 신발 가게 점원이다.

④ 첫 번째 그림에서 엄마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의도로, 두 번째 그림에서 엄마는 이제 그만 놀고 자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다.

⑤ ⑦은 지역 방언으로 쓰인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①은 남아서 공부한다는 뜻의 줄인 말인 '남아공'을 아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03 (가)는 "어떻게 왔어?", (나)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다)는 "지금 몇 시니?"라는 동일한 말이 사용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그 말이 뜻하는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똑같은 형식의 말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자 의사가 말했을 때에는 팔이 아프지 않은지를 물어 보는 말이 되고, 남자 점원이 말했을 때에는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를 물어 보는 말이 된다.

③, ④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상황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가)~(다)에는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및 공간과 같은 상황 맥락만 드러나고 있다.

⑤ 글을 통한 담화에서는 글쓴이와 읽는 이도 담화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다)는 발화 상황이므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담화 참여자이지, 글쓴이와 읽는 이가 담화 참여자가 아니다.

04 (나)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는 그림 ②에서는 ‘팔이 아프지 않으신가요?’의 의미로, 그림 ③에서는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 것이다.

05 ㉠은 지역의 차이로 인해, ㉡은 세대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보기>는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이다. ㉠, ㉡, <보기>는 모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과 <보기>의 담화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이 다른 상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에서 안 내문 밑에 표준어로 풀이를 해 놓은 것처럼, <보기>의 북한 사람은 ‘꿀꿀하다’의 뜻을 남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 ㉡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통영 지역의 방언으로 쓰인 안내문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기>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다.

③ ㉠에서 딸은 아빠 세대가 잘 모르는 줄인 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줄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본딴말을 사용하거나 줄인 말의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보기>에서도 북한 사람은 자신이 말하려는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⑤ ㉡은 아빠 세대와 딸 세대라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나, <보기>에서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세대가 같음을 추측할 수 있는 나이나 학년 등의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지하철역에서는 ‘차례를 지키세요.’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급할 때 비상문을 열어 탈출하는 것은 위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의할 사항으로, ‘양심’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7 제시된 글은 연설문으로, 여러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담화이다. 그러므로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설문을 작성해야지, 무조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설문은 자신의 주장을 많은 청중들 앞에서 전달하는 것이므로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과 경어체를 사용해야 한다.

08 <보기>의 자료는 ‘아파트헤이트’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아파트헤이트’ 정책을 폈고, 이 때문에 연설자가 민주적인

고 인종 차별이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연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연설자인 ‘넬슨 만델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넬슨 만델라’의 업적

만델라는 1944년에 ‘아프리카 민족 회의 청년 동맹’을 만들고, 195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으로만 이뤄진 법률 회사를 세우는 등 흑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선 사람이다. 만델라는 평화적인 운동을 지지했으나, 샤프빌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시위에서 백인 경찰의 총격에 2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군사 조직인 ‘민족의 창’을 창설하고 무장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다른 나라와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다가 1962년에 체포되었다. 그가 의장을 맡은 ‘아프리카 민족 회의’는 흑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고,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최초로 흑인 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09 이 연설문에서 연설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대부분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종 차별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문화권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우리 문화가 담긴 관용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11 (가)의 담화 참여자는 강연자, 여학생, 남학생이고, (나)의 담화 참여자는 아빠와 아들이다. 이 중에서 (가)의 여학생과 남학생은 서로 반말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로 사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고, (나)의 아빠와 아들 역시 가족 관계이므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강연을 하고 있다.

② (나)의 아빠는 동식물들이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근거로 들어 울타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이며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③ (나)의 아빠는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아들의 말에 호응을 해 주고 있으며, 아들은 자신과 다른 아빠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동의하는 부분에는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

⑤ (가)의 담화 참여자는 강연자와 청중의 관계이며, 여학생과 남학생은 동급생이다. (나)의 담화 참여자는 아빠와 아들로 가족 관계로, 더 친밀하다.

12 (가)의 강연자는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나)의 아빠는 어린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동물과 식물의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 상대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다.

13 아들은 처음에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전쟁 같이라며 울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빠와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거치면서 아들은 울타리가 자기 걸 지키고 이웃

을 갈라놓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며 이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세운다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아빠와 '태너 아저씨'는 서로를 신뢰하는 친구 사이이다.
②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③ 아빠와 아들은 '태너 아저씨'네 소가 자신들의 옥수수밭을 자꾸 망가뜨려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다.
④ 아빠가 아들에게 올새, 여우, 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아들이 그 동물과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게 울타리를 세우는 일의 의미를 쉽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14 '차은'은 자신의 기분이 왜 나쁜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다. 엄마 역시 '차은'의 기분은 살피지 않고 자신이 사 온 '운동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15 '영찬'은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서 친구들이 '차은'을 놀리는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영찬'은 '차은'의 상황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벌린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차은'은 육상부를 할 만큼 달리기에도 소질이 있다.
②, ⑤ '차은'은 친구들이 엄마가 필리핀인이라고 자신을 놀려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고, 엄마도 계속해서 짜증을 부리는 '차은'에게 화를 내고 있다.
③ 육상부의 해산으로 육상부 친구들은 서울로 전학을 가서 육상을 계속하지만, '차은'의 아버지는 '차은'이 서울로 전학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6 아무리 친밀한 가족 간의 대화라도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심한 장난이나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심한 농담을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⑤ '차은'은 엄마가 운동화를 사 온 성의를 무시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다. 엄마는 '차은'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운동화 이야기만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말을 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②, ③ "내 말 못 알아들여!"라고 예의 없는 태도로 필리핀인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므로 '차은'에게 예의를 지키며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속상한 일을 털어놓지 않고 화만 내고 있으므로 속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17 '몇몇 친구'는 필리핀 엄마가 있는 '차은'을 '필리핀'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있다. 이것은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적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담화를 할 때에는 인종, 국적, 지역, 성별 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㉞는 감정이 담긴 말을 하는 '차은'의 반응에 당황한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의 담화를 통해 '엄마'도 '차은'에게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느낌표의 사용과 누나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동만'이 새 운동화를 받고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엄마는 '차은'이 좋아하는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차은'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③ '차은'은 엄마가 필리핀인이라서 놀림을 받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엄마가 사 온 운동화도 달리기할 때 신는 것도 아니었다. '차은'은 복합적인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을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상대에 대해 예의 없는 태도로 화를 내는 부분으로 이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하기이다.

19 (다)에서 아들은 아빠와의 담화를 통해 울타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담화는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의미 공유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며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② (나)의 ㉠에는 지역 방언은 나타나 있으나 전문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전문어를 쓰면 해당 용어를 모르는 사람과는 의사소통하기 어렵다.
③ (나)의 ㉡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이다. 물론 아빠와 딸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기는 하겠지만 스마트폰의 대화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같은 문장이라도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가)이다. (다)에서 아빠와 아들은 동일한 형식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

20 (나)의 ㉢에 제시된 안내문은 지역 방언으로 쓰여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아래에 표준어로 뜻을 풀이해 놓았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지역 방언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아들은 처음에는 아빠가 이야기한, 생물들이 세우는 울타리에 대해 믿지 않았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빠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빠가 내세운 근거가 전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담화 시작 부분에서는 아들은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아빠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견이 서로 달랐다.
② 아들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울타리를 세우는 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③ 아빠는 올새와 여우 등의 동물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아빠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등의 질문을 통해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고 있다.

22 (나)의 '서우'는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라고 '영서'에게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우'에게는 자기감정을 돌려서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오답 풀이** ①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근거 없이 내세우고 있으므로 놀이공원에 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엄마를 설득해야 한다.
②, ③ 엄마는 아들의 의견을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아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듣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아들을 설득해야 한다.
④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서우'가 불쾌해질 수 있는 농담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농담을 건네야 하며, 애초에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농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개성이 드러난 표현



(1) 창의적인 발상



내공 쌓기 ①

7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속으로 나 무라면', '당신이 나무라면'처럼 먼 훗날 자신을 찾아온 '당신'의 행동을 가정하고 있다. 이때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겠다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하는 이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가정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말하는 이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도 않다.

③ 선경 후정이란 먼저 자연이나 경치 및 사물을 묘사한 후에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정서 등을 표현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말하는 이가 가정하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으므로 선경 후정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말하는 이의 시선 이동이나 변화가 나타나려면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는 말하는 이가 가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므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먼 훗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임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시 만나는 그때에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이가 사실은 '당신'을 잊지 못했으며, 언제까지고 '당신'을 그리워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이 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과 같은 전통적인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고(ㄷ), '먼 훗날', '당신이', '잊었노라'와 같은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ㄴ). 또한 1~3연은 '.....면잊었노라'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과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로, '씩씩', '멍멍', '땡땡', '우당탕', '퍼덕퍼덕' 등이 있다. 이 시에서는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04 ㉠은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이나 진심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말하는 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당신'을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

한 태도가 나타나려면 '당신'에게 높임말을 사용한다거나 존경의 뜻이 담긴 시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읽는 이가 말하는 이의 의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④ 반어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반대이므로 말하는 이의 진심을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반어 표현이 읽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언어 표현을 일부러 논리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반어가 아니라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내공 쌓기 ②

73쪽

01 ②

02 볼 길

03 ④

04 ①

01 이 시는 현재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과거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이 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7~9행에서는 자연물인 '강물', '새들', '꽃잎'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봄'은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등 희망차고 밝은 이미지를 주는 계절이다. 이 시는 이와 같은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다', '-라'와 같은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느낌을 주는 어미를 사용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3~6행에 사용된 시구의 일부를 바꾸어 11~14행에서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안정감을 줄 뿐더러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주고 있다.

02 서술형 이 시에서 '봄 길'은 화자의 희망과 긍정적 태도를 알 수 있는 시어로,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3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봄 길이 된 사람이다. 즉,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므로 '희망적 상황'에 어울린다. 한편,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는 자연물인 '새들'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04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삶의 고통을 이겨 내려는 사람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인물형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길이 끝나거나 사랑이 끝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일 뿐, 이를 옹고 그르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이 시는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있을 뿐,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④ '변화무쌍'은 '변하는 정도가 비할 데 없이 심함'이라는 뜻이다. 이 시에서 길이나 사랑이 끝난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과 달리 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말하는 이가 처한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⑤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사랑이 되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사람을 통해 희망을 찾고 있지는 않다.

- 01 ⑤ 02 ③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7 보라 08 ① 09 ③ 10 ③ 11 ② 12 ③
 13 ② 14 ② 15 ① 16 ③ 17 ④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8 잊었노라 **2단계** 19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3단계** 20 친구가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고 계속 자랑을 했다. 나는 이번에 시험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잘났어, 정말!”이라고 말했다. / 언니가 내가 아끼는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가 얼룩을 묻혀 온 적이 있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옷이라 너무 속상해서 “참, 잘했다.”라며 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등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미래에 ‘당신’과 재회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때에 ‘당신’을 잊었다고 할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하고 있으나,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시간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임에 대한 애뜻함과 그리움’이라는 말하는 이의 정서 역시 과거와 현재 모두 변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1연의 ‘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표면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시에서는 ‘찾으시면’, ‘나무라면’과 같이 미래에 ‘당신’과 재회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당신’과 재회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때에 ‘당신’을 잊었다고 할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하고 있다. 이때의 ‘잊었노라’는 과거형의 대답으로 반어 표현이며, 이를 반복함으로써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반대로 표현하여 ‘당신’을 향한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02 이 시는 모든 시행이 동일하게 10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동일한 글자 수가 반복되어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에 표시를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먼 훗날’, ‘당신이’, ‘잊었노라’라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예’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
 ② 음성 상징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를 가리킨다. 이 시에는 둘 다 쓰이지 않았으므로 ‘아니오’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
 ④ 이 시는 ‘당신이 ……면 ……잊었노라’라는 문장 구조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예’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
 ⑤ 이 시는 각 행을 3·3·4 글자씩 끊어 읽을 수 있다. 이처럼 3음보로 끊어 읽으면서 운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예’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

03 이 시의 제목 ‘먼 후일’은 말하는 이가 ‘당신’과 이별한 후 ‘당신’을 그리워하는 현재의 시간과는 대비되는 미래의 시간이다. 또한 떠난 ‘당신’이 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04 ①은 말하는 이가 줄곧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본심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 표현이다. ② 역시 임이 떠난다면 너무 슬퍼 울 것이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에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비유하는 직유법이 쓰였다.
 ③, ④ ‘소리 없는 아우성’과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에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는 역설법이 쓰였다.
 ⑤ 사람이 아닌 ‘풀’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과 ‘놓는다’, ‘바람보다도’ 등의 같은 시구를 반복하는 반복법이 쓰였다.

05 <보기>는 ㉠처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실제 속마음이 달라 한 번 더 생각해야 하지만, <보기>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에 읽는 이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상황은 변함이 없다.
 ②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당신’에 대한 비판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반어적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이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감정에는 변함이 없다.
 ④ 반어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쉽게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할 때 말하는 이의 진심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06 이 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적인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감각적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또한 말하는 이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태도로 극복해 내고자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3~6행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스스로 봄 길이 되어 /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가 11~14행의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 스스로 사랑이 되어 / 한 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로 변용되어 반복됨으로써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② ‘~곳에서도 ~이 있다. 스스로 ~이 되어 ~는 사람이 있다’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말하는 이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고 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보라’에서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스스로 사랑이 되어 절망을 극복하자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7 서술형 이 시는 1~6행, 7~9행, 10~14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10행의 ‘보라’는 바로 앞부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뒷부분의 희망적인 모습으로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0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9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상황을 극복해 내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의 친구는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친구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자고 위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신경 쓰지 말라거나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이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④, ⑤ 이 시에서 '봄 길을 걷어가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사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거나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보일 태도와 거리가 멀다.

10 ㉠은 겉으로는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식인 역설 표현이 쓰인 것이다. ㉢은 반어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길이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말하는 이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알 수 있다.

② 길이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이를 통해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길이 끝났다는 것은 사랑이 끝난 것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길이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1 이 시의 7~9행은 자연물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강물은 멈추고, 날아간 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꽃잎마저 흩어져 버리는 상황을 통해 길이 끝나고 사랑이 끝난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과 ㉤는 절망적인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2 (가)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에서 미래에 '당신'이 찾아올 경유를 가정하고 있다. (나)는 '사랑이 끝난 곳'이라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다)는 떠난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이제 괜찮다며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시련을 극복하려 하고 희망을 찾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와 (다)는 이별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봄'이라는 생동감을 주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와 (다)는 특별한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당신'에게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다)도 '당신'이 그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도 않다.

⑤ (다)에만 일부 존재의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가)와 (나)에 높임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가)에 사용된 '-노라'라는 표현은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13 (가)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당신'에게 말할 내용을 노래하고 있을 뿐, 말하는 이가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다)는 말하는 이가 자신을 '바보 같은 난'이라며 비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다)는 둘 다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는 각 행이 10글자로 되어 있는데, 3·3·4글자씩 3음보로 끊어 읽으면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다)는 일정한 음보로 끊어 읽기 어렵다.

④ (다)는 '미운 당신'이라며 당신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가)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다)에는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라는 후렴구가 1절과 2절에 반복되고 있다.

14 (가)는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매 연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사실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다.

③ 글자 수는 3·3·4로 끊어지므로 7·5조의 음수율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점층적은 의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⑤ 이 시에서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정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내용 기르기

7·5조는 글자 수가 7개와 5개라는 거야. '우리 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랫바닥은'이라는 시행을 보자. '우리 집 뒷산에는'이 7글자, '풀이 푸르고'가 5글자지. '숲 사이의 시냇물'이 7글자, '모랫바닥은'이 5글자고. 이렇게 각 시행을 7글자와 5글자로 맞추는 것을 7·5조라고 해.

15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는 '가난하지만 사랑을 안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을 설의법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재'는 이미 불에 타고 가루가 된 것인데 다시 '기름'이 된다고 한 것에서 역설이 나타난다.

③ 결별은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다. 그런데 이를 축복이라고 하였으므로 역설이 나타난다.

④ '봄'을 찬란하면서도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나타난다.

⑤ '님'은 갖는데 말하는 이가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 표현에서 역설이 나타난다.

16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자연 현상에 빗대어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7 ㉢은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말하는 이는 떠나간 당신이 미우면서도 보고 싶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8 '잊었노라'라는 시어는 반어법이 사용된 것으로, 말하는 이의 본심이 드러난 표현으로 바꾸면 '잊지 못하노라'이다.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단계 19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봄 길을 걷어가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 그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사람이다.

평가 기준	확인
절망이나 시련을 극복하려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희망적인 태도를 썼다.	☐

3단계 20 반어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경험을 쓸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자신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경험을 적어도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반어 표현을 들은 경험을 적는 것도 가능하다.

평가 기준	확인
반어 표현을 사용한 말을 큰따옴표로 제시하였다.	☐
50자 내외로 썼다.	☐

(2) 비판적인 표현

8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중심인물인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순진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워 '박 선생님'의 외모를 희화화하여 묘사함으로써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고, '박 선생님'을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의 시점

개념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서술자의 시각 또는 관점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 '나'의 심리를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고, 독자에게 친근감을 줌.
	1인칭 관찰자 시점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그의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함. 주인공의 심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3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음.
	전지적 작가 시점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함. 사건의 정황과 인물의 심리를 자세히 알 수 있음.

02 '발단 - ③'에서 뽀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는데, 두 선생님이 만난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곤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난을 잘 치는 것은 '박 선생님'이 아니라 '강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다.

03 '국어'라는 말이 일본 말을 지칭하는 것, 모든 학교에서 일본 말만 사용하게 한 것, 보통 사람들은 조선말을 주로 사용하긴 했지만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일본 말로만 말을 해야 했던 것,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말만 사용했던 것을 통해 당시 일제의 탄압 때문에 조선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어'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지금은 '한국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조선말이 아닌 일본 말을 '국어'라고 하였다. ②, ⑤ 관료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일본 말을 사용하였고,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 대부분 조선말을 사용하였다. ③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한 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으므로 수업 시간에도 역시 일본 말만 사용했을 것이다.

04 '나'는 '강 선생님'의 외모를 '박 선생님'과 대조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강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강 선생님'이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며 유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강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83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①

01 이 글에서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과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조선말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수업 시간 외 평상시에는 의도적으로 일본 말 대신 조선말을 사용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 선생님'이 일본 말에 서툴다고 하는 것은 조선말을 쓰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이를 통해 '강 선생님'이 일제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며 민족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해방 이튿날 두 일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이 코가 쭈욱 빠져 있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학교든 학교 밖이든 조선말을 쓸 경우 혹독하게 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조선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다른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했다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⑤ '박 선생님'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고 했던 일본이 전쟁에서 진 것을 '나'가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02 '박 선생님'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는 조선말을 사용한 것 때문에 여러 번 혼이 난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일본 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뒤 문맥으로 보아 '나'가 '박 선생님'한테 혼이 난 까닭은 일본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일본 말을 쓰지 않고 조선말을 썼기 때문이다.

③ '박 선생님'은 친구끼리 싸우는 것보다 조선말을 쓸 때 제일 큰 벌을 주었다고 하였다.

④ '나'가 친구와 싸움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나'가 '강 선생님'을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는 있지만, '강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03 '나'는 사춘 형인 '대석 언니'의 성격을 '똥똥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하 말썽꾼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석 언니'가 부지런하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04 ㉠은 친구들끼리 싸운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을 쓴 것만 나무라는 것으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일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③ 싸우는 것 자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을 사용했다고 혼내고 있다.

④ '박 선생님'이 벌로 '나'와 친구의 따귀를 때리고 변소 청소를 시키는 것 등에서 '박 선생님'이 폭력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와 '상준이'가 서로 '이 자식야'라고 욕을 하며 싸우기는 했지만, '박 선생님'은 욕을 썼다고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욕이 조선말이라서 혼낸 것이다.

내공 쌓기 ③

85쪽 01 ④ 02 ② 03 ③

01 '강 선생님'은 평소에는 의젓하고 점잖은 태도를 보였으나,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강 선생님'이 조선의 해방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대석 언니'는 일본이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박 선생님'을 놀리고 있다.

② '강 선생님'이 '그 지지리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구 하시구 피를 빨아 먹구 하던 일본'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박 선생님'은 직원을 찾아온 '대석 언니'에게 '난다'라는 일본 말로 대꾸하고 있다.

⑤ 평소에 일본 왕을 욕한다면 큰일 날 일인데, '대석 언니'가 일본 왕을 욕해도 교장 선생님과 일본 선생님들이 못 들은 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일본이 전쟁에서 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2 '대석 언니'가 일본의 왕을 욕하는데도 '박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에는 일본 편에 붙어 의기양양하던 '박 선생님'이 일본이 전쟁에서 지자 바로 기가 죽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3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이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못마땅했을 것이다. '강 선생님'은

일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박 선생님'은 지금까지 혈서로 지원병에 지원하고 일본 말만 써 왔으므로 이런 친일적인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박 선생님'을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내공 쌓기 ④

87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⑤

01 '강 선생님'의 회유로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고 그 이후로 서로 사이가 좋아진다. 하지만 '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된 이후로 둘은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강 선생님'은 빨갱이로 몰려 교장 자리에서 파면된 것이다. '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자 '박 선생님'하고 사이가 나빠진 것, '강 선생님'이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된 것, 사람들이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꼬아 댔다고 하는 것 등에서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모함했을 가능성이 크다.

② '박 선생님'은 미국 병정의 통역을 해 주는 대신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과 과자를 얻어먹곤 하였다. '박 선생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다.

③ '박 선생님'은 열심히 미국 말을 공부했지만, '강 선생님'이 미국 말을 공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02 '박 선생님'은 우리 조선의 역사가 사천 년이나 오래되고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며 칭송한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을 비교하지는 않고 있으며, '박 선생님'은 미국 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며 미국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미국보다 조선이 훌륭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03 '강 선생님'은 조선이 해방되어 기쁜 감정이 격해졌고, '박 선생님'이 일제에 동조했던 것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박 선생님'을 큰 소리로 야단친다. 하지만 곧 누그러진 말투로 말이 심했던 것을 사과하며 해방된 조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하자고 '박 선생님'을 회유하고 있다.

04 '박 선생님'은 조선의 독립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에 관심을 보이고 미국 말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미국 병정이 오면 통역을 해 주고 옷도 얻어 입고, 음식도 얻어먹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박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고 미국 말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⑤

89쪽 01 ③ 02 ③ 03 ④ 04 이상한 선생님

01 조선이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고맙게 여기고 미국에 순종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박 선생님'의 생각이다. 이와 같이 해방 후에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박 선생님'의 말은 '박 선생님'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오답 풀이 ① '박 선생님'은 광복 이전에는 일본 말만 쓰는 등 일본을 찬양하다가, 광복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며 미국을 찬양하고 있다.

② '나'는 '박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데, 읽는 이는 '박 선생님'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선생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④ '나'가 기미가요 대신 미국의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이 소설은 광복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을 추종하고,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던 미국을 추종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박 선생님'을 비판하고 있다.

02 광복 이전에는 일본이 조선을 강압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국이 조선을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다양한 물자를 조선에 원조했다는 것에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조선이 일본에게서 해방되었으므로 일본의 수탈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다.

② 수업 시간에 '박 선생님'이 조선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선말을 썼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미국에서 다양한 원조 물자가 조선으로 들어온 것은 이 글에서 알 수 있지만, 조선이 미국으로 수출을 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⑤ 일제 강점기에 기미가요를 불러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직 서술자가 국제 정세나 정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03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로, 상황 판단이 미숙하다. 작가는 그저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만 여기는 어린 학생의 순진한 시선을 통해, '박 선생님'에 대한 비판의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서술형 '박 선생님'은 광복 이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 광복 이후에는 미국을 찬양한다. 어린아이인 '나'는 '박 선생님'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작가는 '박 선생님'의 잘못된 태도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축집게 상상 문제

본문 90~93쪽

- 01 ⑤ 02 ① 03 ⑤ 04 태극기 그리기(태극기 그리는 일)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① 10 ①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1 (가): 두꺼비, (나): '박 선생님' **2단계** 12 두꺼비 - 지방의 탐관오리, 파리 - 힘없는 백성, 백송골 - 중앙의 고위 관료 **3단계**

13 • 표현 방법: 풍자 • 표현 효과: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한다.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한다.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01 이 글에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 전체적으로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라는 두 인물 간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해방 전후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③ 서술자인 '나'가 작품 속 주인공인 '박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④ '박 선생님'의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를 통해 웃음을 주고, '박 선생님'의 웅중하고 사나운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02 (라)에서 '강 선생님'은 학생들이 조선말을 해도 혼을 내지 않고 자신 또한 다른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학생들에게 조선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으면 '국어'가 서툴러서라고 이야기한다. 즉 '강 선생님'이 조선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국어(일본 말)'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꾀계를 대는 것이다.

03 (가)는 유난히 작은 키와 몸집에 맞지 않게 큰 머리 등 '박 선생님'의 이상한 외모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외양을 비꼬아 표현하는 것은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읽는 이에게 웃음을 주는 효과가 있다.

04 서술형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자신들을 죄인이라 칭하며 독립이 된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될 일을 하자고 권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선생님'에게 우선 태극기부터 그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자고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태극기'와 관련된 일임을 썼다.	☐
'태극기'를 그리거나 만들었다고 썼다.	☐

05 이 글에서 '박 선생님'은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다 일본의 패망 후 일본을 적대시하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잘 드러내는 속담은 ④이다. ④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몹시 무식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③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눈 가리고 아웅'과 같은 속담으로 알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또는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06 ㉠은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고 달려온 '대석 언니'가 '박 선생님'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다. '대석 언니'는 바로 뒷부분에서 일본 왕을 욕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본 선생님들과 '박 선생님'이 근심에 싸여 기가 죽어 있는 모습에서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③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었다고 하는 점, 일본 사람을 '왜놈들'이라고 욕하는 점에서 '강 선생님'이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박 선생님'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강 선생님'의 성품 자체가 워낙 너그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박 선생님'은 광복 전에 학생들이 일본 말을 쓰지 않고 조선말을 쓰면 혼냈듯이, 광복 후에 학생들이 혹시라도 미국을 욕하면 크게 벌을 준다. 이는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 붙으려는 '박 선생님'의 속성을 보여 준다.

07 (나)에서 '박 선생님'은 일본을 맹신하고 추종하다가 해방 후 미국을 맹신하고 추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이 시류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08 '박 선생님'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본인도 미국 말을 공부하고, 학생들에게도 중학교에 가면 미국 말을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미국 말을 모른다고 해서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9 '이상한 선생님'이란 표현은 '나'의 입장에서 언행에 일관성이 없는 '박 선생님'에 대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이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담긴 표현이므로 반어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

10 (가)는 조선 시대 후기에 쓰인 사설시조로 당시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㉔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자빠진 '두꺼비'가 자신이 날렵해서 무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하는 '허장성세'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인 '자화자찬'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의미한다.

③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④ '호왈백만(號曰百萬)'은 실상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을 많은 것처럼 과장하여 말함을 의미한다. '호왈백만'도 ㉔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나, '유구무언'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허장성세'는 어울리는 한자 성어나, '희로애락'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사설시조

평시조의 틀에서 초장이나 중장, 종장 중 두 구 이상에서 각각 글자 수가 10자 이상으로 늘어난 시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장·중장이 짧고, 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종장의 첫 구만이 겨우 평시조의 형태를 띤다. 조선 중기 이후 발달하였으며, 서민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1 (가)에서는 '두꺼비'라는 동물을 내세워 인간 사회의 권력 관계를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나)에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박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2단계 12 (가)에서 '두꺼비'는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이지만, '백송골'에게는 찔찔매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보기>에서 '지방의 탐관오리'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면서,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는 뇌물을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가)를 <보기>에 대입해 보면,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두꺼비'가 상징하는 대상을 바르게 썼다.	☐
'파리'가 상징하는 대상을 바르게 썼다.	☐
'백송골'이 상징하는 대상을 바르게 썼다.	☐

3단계 13 (가)에서는 강자에게는 꿈쩍 못하면서 약자만을 괴롭히는 '두꺼비'의 모습을, (나)에서는 시류에 편승하여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박 선생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풍자 표현을 사용하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읽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부정적인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나)에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 방법을 썼다.	☐
표현 방법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바르게 썼다.	☐

(3)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

내용 상기			
97쪽	01 ④	02 (가) - (나) - (라) - (다) - (바)	03 ③
	04 ⑤	05 ①	

01 (바)에서 글쓴이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일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강아지를 키운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강아지를 키운 경험을 '민들레'와 함께 지낸 일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다)에서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라)에서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가)에서 병아리 '민들레'를 떠올리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바)에서 '민들레'를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2 서술형 (다)는 글쓴이가 병아리 '민들레'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의 이야기이고, (라)는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라) 다음에 (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가)~(바)를 재배열하여 썼다.	☐
(마)를 제외하고 썼다.	☐

03 (마)는 정의의 방법으로 ‘병아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병아리의 특성과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이라는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04 [A]는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문장의 길이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05 문장의 맥락상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낱말을 써야 하는데, ‘기억’은 ‘이전의 경험을 도로 생각해 내는 것.’을 뜻하며,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을 뜻한다. 그러므로 ㉠은 ‘생각’이라는 낱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타이르다’는 ‘잘 깨달도록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인 글쓴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 ‘타이르기’는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주 요구하기.’라는 뜻을 가진 ‘조르기’라는 낱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모질다’는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라는 뜻으로, ‘민들레’가 잘 자라길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 ‘모질게’는 ‘힘차고 튼튼하게.’라는 뜻의 ‘굳세게’라는 낱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막막하다’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민들레’를 떠나보낸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 ‘막막했다’는 ‘체한 것같이 가슴이 답답했다.’라는 뜻의 ‘먹먹했다’라는 낱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라는 뜻으로,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라는 뜻의 ‘자초지종’이라는 낱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수능

예상 문제

본문 98~10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ㄱ: 추가, ㄴ: 삭제, ㄷ: 대치, ㄹ: 재구성 **2단계 14**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과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 /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 / 병아리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 **3단계 15** ㉠: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안쓰러운 동물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민들레가 떠오른다. ㉡: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뒤의 중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01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글, 문단, 문장, 낱말’ 수준에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이때 수식어를 많이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점검 대상이 아니며, 좋은 글을 쓰는 요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낱말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할 사항이다.
③ 글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할 사항이다.
④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할 사항이다.

02 역설이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이 글의 제목 ‘민들레’를 역설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쳐 쓴 것으로는 ‘짧았던’과 ‘영원한’과 같이 모순되는 표현이 쓰인 ⑤가 적합하다. ⑤는 글쓴이가 ‘민들레’와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이 글의 주제를 잘 담고 있다.

03 ⑤의 ‘전혀’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부사어인데, ‘보였고’라는 말이 이어져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이 문장은 ‘하지만 민들레는 일어날 낚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으로,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보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사용한 문장으로,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사용한 문장으로, ‘나는 병아리를 키우게 해 달라고 엄마께 조르기 시작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시제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으로,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로 고쳐야 한다.

04 (마)는 병아리의 개념과 특성 및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다. 이 글은 글쓴이가 병아리 ‘민들레’와 함께했던 추억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마)는 전체 주제와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골목길 한구석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를 보며 병아리 ‘민들레’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가)와 (바)의 뒷부분은 현재, 나머지 부분은 과거여서 시간적 배경이 다르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가)이므로 (가)를 삭제하면 글의 통일성을 해치게 된다.
② (나)에서 ‘그런데 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참치이나 병아리를 바라보았다.’는 이음말이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이음말만 고치면 되지, 문단 전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
③ ‘모질다’는 ‘1.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2.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 3. 참고 견디기 힘든 일을 능히 배기어 낼 만큼 억세다.’라는 뜻이므로 ‘모질게’는 어린 병아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글쓴이가 바라는 것은 ‘민들레’가 힘차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므로 ‘굳세게’ 정도가 어울린다.
⑤ (바)에서 ‘다행이’는 ‘다행히’로, ‘틈새’는 ‘틈새’로 맞춤법에 맞게 고치면 되지, 문단 전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

05 ㉠은 비가 오는 날이면 ‘민들레’를 방에 들였다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이처럼 한 문단은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06 (바)는 ‘그 후로’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07 문장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어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ㄱ), 문장에 쓰인 낱말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ㄷ) 등을 살펴봐야 한다.

오답 풀이 ㄴ은 낱말 수준에서, ㄴ은 문단 수준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08 (가)는 글쓴이가 과자를 사러 가게 된 배경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사촌 동생 서정이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서정이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까닭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쓸 경우 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09 ‘고쳐쓰기’는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말한다. 고쳐쓰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다.

10 (다)에서 글쓴이는 ‘민들레’를 마당에서 키우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혼자 있을 ‘민들레’가 걱정스러워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민들레’는 어디가 아픈지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가)에서 골목길 한구석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고 어린 시절 키우던 병아리 ‘민들레’를 떠올리게 된다.
 ③ (다)에서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글쓴이의 가족은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민들레’는 “민들레!” 하고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글쓴이 가족 곁으로 다가왔고, 글쓴이 가족 곁을 맴돌면서 뻘뻘 노래도 불렀다고 하였다.

11 ‘노란 털로 덮여 있는’이라는 표현에서 ‘덮여’는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 따위를 얹어서 씌우다.’란 뜻의 ‘덮다’를 의미하므로, ‘덮다’의 피동사를 나타낼 때는 ‘덮이어(덮여)’라고 표기해야 한다.

12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노란 털로 덮여 있는 병아리가 매력적이어서 (원인) 그 앞에 쪼그려서 병아리를 보게 된 것이므로(결과), 여기에는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 앞에는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걸었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주인 잃은 강아지를 본 부분이므로 내용의 전환을 이끄는 ‘그런데’는 적절하다.
 ③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 앞의 내용은 엄마께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고, 뒤의 내용은 그래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서로 상반되고 있으므로 ‘하지만’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④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마) 앞부분에서는 ‘민들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에서 ‘민들레’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므로 ‘그러나’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⑤ ‘민들레’를 정성껏 보살폈음에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하지만’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고쳐쓰기는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쓰기가 진행되는데, 추가, 삭제, 대체, 재구성하고 같은 원리를 활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원리를 순서에 맞게 썼다.	☐
정확한 용어로 썼다.	☐

2단계 **14** 이 글은 병아리 ‘민들레’를 제재로 하여 글쓴이가 겪었던 일을 진솔하게 써 나간 수필이다. 글쓴이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주인 잃은 강아지를 보고 자신이 초등학교 때 길렀던 병아리 ‘민들레’를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중심 소재인 병아리 ‘민들레’를 썼다.	☐
병아리 ‘민들레’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나 정서가 드러나는 말을 썼다.	☐

3단계 **15**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뒤의 중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평가 기준	확인
(마) 문단을 두 개로 바르게 나누었다.	☐
㉠은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을 온전히 썼다.	☐
㉡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썼다.	☐

본문 102~107쪽

대단원 평가



- | | | | | | | |
|-------------|---|---------------------------------------|--------------------------------|-------------|-------------|-------------|
| 01 ③ | 02 ② | 03 ② | 04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 05 ⑤ | 06 ② | 07 ⑤ |
| 08 ⑤ | 09 ④ | 10 ④ | 11 ② | 12 ⑤ | | |
| 13 ④ | 14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 15 ④ | 16 ③ | 17 ③ | 18 ⑤ | |
| 19 ③ | 20 ④ | 21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은 허락해 주셨다. | | | | |

01 (가)는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사실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처럼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3음보, (라)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② (가)의 말하는 이는 먼 훗날 당신이 돌아올 때를 가정하고 있지만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말하는 이는 ‘당신’과의 이별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전 잊어야 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역설인데, 이러한 역설 표현은 (다)에만 사용되었다. (나)는 '이젠 관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처럼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라)에서는 시적 대상인 '두꺼비'를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시적 대상인 '봄 길을 걷어가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말하는 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02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모두 자신을 떠나 버린 '당신'을 잊지 못한 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애상적인 정서와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관조적'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비취 보는 분위기를 뜻한다.

③ '비판적'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분위기를 뜻한다.

④ '해학적'은 대상을 희화화하여 익살스럽게 바라보는 정서나 분위기를 뜻한다.

⑤ '희망적'은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나는 분위기를 뜻한다.

03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반어 표현을 통해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어 표현을 활용한 학생은 '윤서'로, 동생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고 "참,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원관념인 '달'을 보조 관념인 '숨사탕'에 직접 빗댄 직유법을 사용하여 하얗고 부드럽다는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③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을 가정하고 있다.

④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낸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⑤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진짜로 손가락이 닳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04 서술형 (나)의 말하는 이는 2연에서 '당신'을 '미운 당신'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을 떠난 '당신'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그런 '당신'을 아직도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미운'이 들어간 시행을 바르게 찾아 썼다.	☐
시행의 일부만 쓰지 않고 전부 썼다.	☐

05 (다)의 말하는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6 (다)에서 '길'은 길이 끝난 곳에서도 새로운 길이 나타나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삶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길'은 말하는 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는 이가 걸어가야 할 삶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에서는 비유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다)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의 말하는 이는 현실적 고뇌와 갈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비관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보기>의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다)에서는 '봄 길'이라는 공간만 나타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윤동주의 「서시」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성찰적
제재	별		
주제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		
특징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함.		

07 ㉠은 오래전에 이별한 '당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말하는 이는 '미운 당신'이라고 하며 자신을 떠나간 '당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별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현재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고, 먼 훗날이라도 '당신'이 말하는 이를 찾아온다고 가정하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③ 말하는 이는 '당신'에게 '잊었노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잊었노라'라고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잊지 못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

④ 말하는 이는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사실은 관찮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8 ㉠, ㉡, ㉢, ㉣는 모두 희망과 사랑이 사라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반면에, ㉤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는 사람이 있음을 뜻한다.

09 (나)에서 '박 선생님'은 학생들끼리 싸우는 것 가지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로 싸운다고 혼내고 있다. '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사용할 때 가장 크게 별을 준다는 것에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선생님'은 작은 키와 큰 머리통으로 별명이 많았다.

② '박 선생님'은 지원병이 되려고 혈서까지 썼지만 낙방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③ 해방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조선말을 썼다가는 크게 혼이 났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박 선생님'의 말에서 미국에서 조선으로 양식, 옷감, 기계, 자동차, 석유, 설탕, 구두 등 다양한 물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이 글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는 소설로(ㄷ), 부정적인 인물인 '박 선생님'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ㄴ). 그러나 서술자는 아직 판단이 미숙하여(ㄹ) '박 선생님'을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나'는 '박 선생님'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박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나'는 순진하고 어수룩한 서술자이기 때문에 '박 선생님'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11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데도 일본을 찬양하고 따른다. 그러다 일본이 전쟁에 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미국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 일본이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일본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예감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박 선생님'은 해방 후에 흑시라도학생들이 '미국 놈'이라고 욕하면 엄한 벌을 주었다는 것에서 '박 선생님'이 미국을 욕할 리는 없다.
 ④, ⑤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추종했다면 해방 후에는 미국만을 추종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미국 둘 다를 따르거나 저항하지는 않는다.

12 '코가 빠지다'는 관용구로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라는 뜻이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는 '코가 세다'의 뜻이다.

13 해방이 되었을 때 '박 선생님'을 큰 소리로 나무라는 '강 선생님' 앞에서 '박 선생님'은 꼼작을 못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자신이 추종하던 일본이 패망하자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자 두 사람의 사이가 도로 나빠졌다는 것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② '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자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지고, 또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꼬아 댔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해방 소식을 듣고도 자세히 알아보자는 '박 선생님'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을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다. 이는 '박 선생님'이 조국이 독립했는데도 일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할 만큼 일제에 동조하고 찬양했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⑤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은 사납고 우스꽝스럽게, '강 선생님'은 순하고 부드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서술형 ㉠은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큰 소리로 나무라는 부분이다. '강 선생님'은 조국이 독립되었는데도 일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과 같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해방 전 '박 선생님'이 친일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쓰고, '강 선생님'이 이를 비판하였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5 글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예상 독자 및 글을 쓰는 목적에 적합한지를 따져 보면서,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④는 문장 수준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16 이 글은 현재의 '나'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면서 '민들레'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민들레'와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나), (다), (라)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가) - (나) - (마) - (다) - (라)'와 같이 배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17 (라)에서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즉, 앞 문단과 뒤 문단의 중심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는 것이다.

18 '틈새'는 '벌어져 난 틈의 사이.'라는 뜻이다. '틈새'를 '틈새'로 쓰는 것은 '개'와 '새'를 헛갈려 하기 때문인데, '틈새'는 틀린 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지만, 원칙대로 띄어 쓰는 것이 알맞다.
 ② '뒹다'와 '덥다'는 다른 단어이다. 문맥에 따라 올바른 단어를 써야 한다. 그리고 '뒹다'의 피동사는 '뒹이다'이다. '뒹하다'로 잘못 쓰지 않아야 한다.
 ③ '낌새'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야릇한 분위기.'를 뜻하는 낱말로 바르게 사용되었다.
 ④ '다행히'는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게.'라는 뜻의 낱말이다. '다행이'로 잘못 쓰지 않아야 한다.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내용 기르기

'새'는 '사이'의 준말이야. '새'인지 '세'인지 헛갈릴 때에는 '사이'를 떠올려 봐. 'ㅌ'와 'ㄹ'이 만나서 '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헛갈릴 때는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도록 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

19 '먹먹하다'는 '체한 것같이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민들레'를 떠나보낸 글쓴이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을 지닌 '막막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 앞에서는 날이 무척 더워서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난 반면에 ㉡ 뒤에서는 우연히 강아지를 발견하면서 '민들레'를 떠올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는, '그런데'와 같은 이음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서술형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으로, 글쓴이가 우연히 병아리를 분양하는 할머니를 보게 된 일도, 글쓴이의 '엄마'가 병아리를 분양받는 것을 허락해 주신 일도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을 어법에 알맞게 고쳐 썼다.	☐
㉠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고쳐 썼다.	☐

4. 더 쉽게 더 정확하게

(1) 다양한 설명 방법



내공 쌓기 ①

113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①: 물질의 성질,
①: 유용한 물질, ②: 식중독

01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 마을에서 장수 비결로 꼽은 음식이 발효 식품이며, 발효 식품이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서 요구르트, 하몬, 된장과 같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읽는 이가 글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③ 글의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읽는 이가 흥미를 느끼고 화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④ 가운데 부분에서 글쓴이는 발효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김치'를 꼽고 있다.

⑤ 가운데 부분에서는 김치의 우수성을 나열하여, 김치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임을 설명하고 있다.

02 (바)에서 김치가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고는 하지 않았다.

03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김치가 젖산과 젖산균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발효 식품의 예로 요구르트, 하몬, 된장, 빵, 치즈를 들고 있다.

② (다)의 첫 문장에서 발효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③ (라)에서는 전통 발효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김치'를 예로 들고 있다.

⑤ (마)에서는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젖산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04 서술형 (다)에 따르면 '발효'는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부패'와 비슷하다. 하지만 '발효'는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는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부패한 음식을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리는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공통점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썼다.	☐
차이점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알맞게 썼다.	☐



내공 쌓기 ②

115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⑤

01 간장은 바람에 말린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후 국물만 달여서 만든다. 이렇게 간장을 만들고 나면 메주가 남는데, 여기에 소금을 잘 섞어서 1개월 이상 숙성시킨 것이 된장이다. 따라서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로 된장을 만든다고 해야 맞다.

오답 풀이 ①, ⑤ 간장과 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으로,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1개월 이상 숙성시켜 된장을 만든다.

③ 메주가 발효될 때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이 아미노산이 감칠맛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④ (차)에서 메주가 발효될 때 만들어지는 향암 물질이 들어 있는 된장은 향암 효과가 뛰어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는 '발효 식품의 우수성'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양념인 간장과 된장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발효 식품'을 주제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중심 화제로 발효 식품의 맛과 향이 아니라 발효 식품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므로 부제도 적절하지 않다.

③ 발효 식품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발효 식품 발전과 관련하여 다른 여러 나라의 노력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④ 우리나라의 전통 양념인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발효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익한 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⑤ 장수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는 처음 부분에서 글을 시작할 때 읽는 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03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가리킨다. (차)에 따르면 된장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된장은 음식의 맛을 돋우는 양념이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 밀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삼기는 어렵다.

04 끝 부분에서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은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화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고유의 맛과 향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인 간장과 된장의 우수성을 설명한 글이므로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② 발효 식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을 돌보기 위해 발효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발효 음식인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다.

④ 글에 제시된 발효 식품 외에 다른 발효 식품이 더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지식 확장을 위한 독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01 ① 02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③ 08 예시 09 ⑤ 10 ③ 11 ⑤
12 ④ 13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14 김치, 간장, 된장 2단계 15 발효 식품의 우수성
3단계 16 메주를 건져 내어 잘게 으깨고, 소금을 넣어서 잘 섞는다.

01 이 글은 (가)에서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나)에서 발효의 개념을, (다)~(마)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를 중심으로 그 우수성을 알아보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발효 식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02 서술형 <보기>는 ‘간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의 방법이 사용된 부분은 (나)의 첫 문장이다.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이다.’에서는 발효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03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가)는 설명하는 글의 구성에서 ‘처음(머리말)’ 부분에 해당한다. 처음 부분에서는 글을 쓴 목적과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데, 이 글에서도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나 당부의 말을 전하는 구성 단계는 끝 부분이다.
②, ③ 언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 단계는 가운데 부분이다.

04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이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기는 하지만, 김치도 음식이기 때문에 아예 썩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치를 몇 년씩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장독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의 이야기이지, 실온에서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금방 상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② (마)에서 김치가 변비,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므로, 김치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라)에서 채소를 끓은 소금에 절이면 효소 작용이 일어나면서 발효가 시작되는데, 이때 젖산균도 성장하고 증식한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김치를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05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에서 섭취해야 한다. 된장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쌀밥을 보

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된장에만 들어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다)에서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에 소금을 넣어 섞은 다음 1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된장이 완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나)에서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들어 내는데, 이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6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끝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금까지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고 언급하며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07 간장과 된장을 만들 때 메주를 발효해야 하며, 또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에 넣어 으갠 메주를 장독에 넣고 1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발효 식품의 숙성 기간이 짧다고 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8 서술형 설명 방법은 문장이나 문단뿐 아니라 글 전체 수준에서도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의 예시로 간장, 된장 등을 든 것이다.

09 ㉠의 앞 문장은 된장의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고, 뒤 문장은 그 이유가 발효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세 먼지의 영향(원인)으로 생기는 신체 변화(결과)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0 (다) 문단은 우리 국악기를 연주 방법에 따라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있으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구분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발효 식품의 예로 요구르트, 하몬, 된장, 빵, 치즈와 같은 식품을 들고 있다.

② (나)에서는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하여(원인), 우리가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결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에서는 여러 국악기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라는 종류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에서는 가야금을 몸통, 줄, 안축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1 (다)~(마)는 모두 국악기인 ‘가야금’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다)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고, (라)는 분류의 설명 방법이고, (마)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다)~(마)에서는 우리나라의 악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 서양의 악기와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②, ④ (다)는 구분, (라)는 분류, (마)는 분석처럼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다)~(마)에서는 국악기의 뜻을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개념을 밝히는 정의의 설명 방법은 여러 설명 방법 중에 하나이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설명 방법은 아니다.

12 (다)와 (라)에서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과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발효 식품의 예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② (다)에서 김치 발효의 주역은 젖산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바)에서 젖산균 바실루스가 만들어 낸 아미노산이 간장의 감칠맛을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에서는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한국의 음식 문화와 중국의 음식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해 볼 수 있는 ⑤이다.

- 오답 풀이** ① 품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면 구분의 설명 방법을, 품사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한다면 분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품사의 종류'는 구분과 분류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② 분석은 대상의 구조를 그 성분에 따라 나누어 밝히는 것이다. 즉, 어떤 대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은 대개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감기의 증상은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감기의 원인과 그로 인한 증상을 살펴볼 때에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의 순서대로 서술하게 되므로 과정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4**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김치, 간장, 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단은 글 전체에서 보면 '예시' 문단에 해당한다.

2단계 **15** 이 글의 글쓰이는 발효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러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3단계 **16** 빈칸은 간장을 만들고 난 후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그에 맞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사)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으깨어 소금을 넣고 섞은 다음 숙성시킨 것이 된장이다.

평가 기준	확인
'메주'를 으깨어 만든다는 내용을 썼다.	☐
'메주'에 '소금'을 넣어 섞는다는 내용을 썼다.	☐

(2) 설명하는 글 쓰기



내용 쓰기 ①

123쪽 01 ③ 02 ② 03 ③

01 제시된 만화를 통해 '민재'가 친구들을 대상으로 '줄다리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설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계획하기'에서 사용하는 전략

첫째, 글쓴이,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등을 탐색해야 한다. 이때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의 요구와 자신의 입장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여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해야 한다.

02 '자료 1'에서는 정의의 방법으로 '줄다리기'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자료 2'에서는 인과의 방법으로 줄다리기가 가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3'에서는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의 구조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3 '민재'가 설명하는 글을 쓰려는 목적은 친구들에게 줄다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줄다리기 외에 다른 민속놀이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글의 주제 및 목적과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줄다리기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 줄다리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④, ⑤ 줄다리기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쓰기 ②

125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④

01 '자료 4'의 내용으로 보아, 줄다리기는 주술적 성격이 강한 민속 행사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②의 내용과는 반대로 오락적 기능보다는 촌락의 단합을 강조하는 의례적 측면이 강한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02 '자료 4'는 줄다리기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다. 줄다리기의 뜻을 설명할 때에는 앞에서 찾은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03 글의 개요란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이다. 글쓰기 과정에서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짜임과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개요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계획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내용을 조직하면서 내용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여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개요는 짜임새 있고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쓰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글을 쓰는 도중에 주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 보면서, 독자가 설명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여 독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개요를 문장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으로 쓰는 것은 주로 '표현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여 어색한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에는 줄다리기를 보존하고 계승하자고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줄다리기를 줄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줄다리기를 줄을 연결하는 방법은 개요에서 '가운데 - 2. 줄다리를 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② 줄다리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개요에서 '가운데 - 1. 줄다리의 뜻과 유래'에서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우리나라의 줄다리를 소개하는 글이므로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

⑤ 줄다리기가 행사가 열리는 지역 소개는 개요의 '가운데 - 3. - 나. 줄다리를 전승하려는 노력'과 관련지을 수 있다.

내공 쌓기 ③

127쪽 01 ④ 02 ③ 03 ③ 04 줄다리기의 유래

0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줄다리가 지닌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설명할 때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요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을 쓰려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인 줄다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나라의 줄다리와 대조하는 내용은 글의 구체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의 첫 문장은 줄을 머리, 몸줄, 겹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한 문장은 시계의 구성요소를 초침, 분침, 시침, 태엽과 같은 각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③이다.

오답 풀이 ① 자동차를 배기량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누고 있으므로 구分的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중국에서 발달한 산업과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산업의 차이점을 견주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독도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역사의 개념(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밝히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3 설명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설명하는 글에도 독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길 수는 있지만,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04 서술형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줄다리기가 한강 이남에서 전해졌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농경 행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줄다리가 주술적 성격을 띤 민속놀이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단에서는 '줄다리기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집게 쓰기 예상 문제

본문 128~131쪽

- 01 ③ 02 ㉠-㉡-㉢-㉣-㉤-㉥ 03 ① 04 ④
05 ⑤ 06 (1):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줄다리기' (2):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3): 친구들 07 ③
08 (가): 정의, (나): 인과, (다): 분석 09 ③ 10 ② 11 가
운데 - 3. - 다. 줄다리기를 줄을 연결하는 방법 12 ③ 13 ⑤
14 ④ 15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 1단계 16 가운데 - 1. 귀의 구조 2단계 17 읽는 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단계 18 사람의 귀는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바깥귀에는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 주는 작은 털들과 수많은 분비샘이 있는데, 바로 이 바깥귀에서 귀지가 만들어진다.

01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 주장을 되도록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글쓴이의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다.

내공 기르기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서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이나 경험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설명하는 글이더라도 특정 사건이나 현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독자의 행동이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거든. 하지만 설명하는 글은 무엇보다도 어떤 대상에 대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

02 서술형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조직하고(㉢),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글을 다 쓴 이후에는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고쳐 쓴다(㉤).

03 <보기>에 제시된 물음은 글을 쓰기 전 어떤 내용을 쓸지 다양하게 떠올려 보기 위한 질문들이다. 즉, 글감을 떠올려 보는 단계로, 설명할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04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근거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은 주로 수필이나 기행문과 같은 문학적인 글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읽는 이가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05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쓸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계획하기’ 단계가 아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오답 풀이** ① 만화의 남학생은 줄다리를 재미있게 하고 나서 줄다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줄다리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② 만화의 남학생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줄다리기’이다.
 ③ 만화의 남학생은 ‘친구들’에게 줄다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려고 하고 있다.
 ④ 만화의 남학생은 줄다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본 후 이를 정리하여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

06 서술형 이 만화의 남학생은 줄다리에 흥미를 느끼고는, 줄다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그러고는 자신이 찾은 정보를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의 주제를 알맞게 썼다.	☐
글의 목적을 알맞게 썼다.	☐
예상 독자를 알맞게 썼다.	☐

07 (나)의 신문 기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줄다리기의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줄다리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자료는 줄다리가 어떤 놀이인지 풀이한 국어사전의 내용이다.
 ② (나)의 자료에서는 줄다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줄다리기’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④ (다)의 “이렇게 만든 줄을 연결할 때에는 …… 줄이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암줄과 수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⑤ (다)의 첫 문장에서 줄다리에 사용하는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겹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8 서술형 (가)는 줄다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나)는 줄다리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놀이인 원인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를 밝히고 있다. (다)는 줄다리기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겹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에 활용된 설명 방법을 알맞게 썼다.	☐
(나)에 활용된 설명 방법을 알맞게 썼다.	☐
(다)에 활용된 설명 방법을 알맞게 썼다.	☐

09 (다)에서는 암줄과 수줄의 머리 모양이 올라미 모양이며 수줄의 머리는 좁고 암줄의 머리는 수줄의 머리보다 너비가 넓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암줄과 수줄의 머리 모양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는 (다)의 자료에서 수줄과 암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보기>는 (다)의 첫 문단에서 줄다리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다)의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참고하여, <보기>에서 줄의 모양을 지네 모양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 ‘비녀목’이 부러질 경우 어떤 편이 승리하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 내용은 보다 더 적절한 줄다리기 규칙 부분에 넣어야겠다고 계획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0 글쓰기 과정에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여 글의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각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를 정한다.

오답 풀이 ①은 표현하기, ③은 계획하기, ④와 ⑤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11 서술형 ‘가운데 - 3 - 다. 줄다리기 줄을 연결하는 방법’은 ‘줄다리기의 의의’라는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줄다리를 하는 방법’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지역별로 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에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교나 대조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분류의 설명 방법은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을 때 사용한다.

13 ㉞은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귀지를 파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인과 결과(인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귀지를 파다가 귀가 상한 경험이라면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과 연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동생과 서로 귀지를 파 주었던 경험을 쓰는 것은 (가), (나)의 주제와 맞지 않다.

15 (가)의 개요와 달리 (나)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귀지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ㄷ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또 ‘외이, 중이, 내이’ 같은 전문어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ㄴ).

오답 풀이 ㄱ. (나)의 마지막 문단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귀지 유형을 언급하면서 귀지를 파지 말자고 하는 부분이므로 ㄱ과 같이 고치게 되면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ㄴ.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귀지를 파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귀지를 파면 좋은 점을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면 글의 통일성을 해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6 <보기>의 그림 자료는 귀의 모양을 보여 주는 단면도이므로, 귀의 구조를 설명할 때 보충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시각 자료를 이용하면 읽는 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을 심어 주기 때문에 읽는 이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 준다.

[참고 자료] 다양한 자료의 효과

자료	효과
도표, 그래프	-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음. - 여러 비교 대상 중에서 어떤 것이 많고 적은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그림, 사진, 동영상	- 글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음. -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독자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
만화	-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음. -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지도, 약도, 안내도	-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음. - 특정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

2단계 17 (나)의 첫 문단에서는 '귀지'가 무엇인지 정의한 다음,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보기>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읽는 이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의 내용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읽는 이와 관련된 내용임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단계 18 [A]에는 '외이, 중이, 내이'와 같은 어려운 전문가가 쓰였으므로 이를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와 같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 귀지가 바깥귀에서 만들어진다는 설명은 귀의 구조를 분석한 앞 문장보다는, 바깥귀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뒤 문장에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다.

평가 기준	확인
'외이'를 '바깥귀', '중이'를 '가운데귀', '내이'를 '속귀'로 바꾸어 썼다.	☐
바깥귀에서 귀지가 만들어진다는 문장의 위치를 옮겨 썼다.	☐

대단원 평가



- 01 ③ 02 ④ 03 ② 04 ① 05 ③
 06 ⑤ 07 ③ 08 (가): 분류, (나): 구분, (다): 분석, (라): 비교, (마): 대조 09 ③ 10 ⑤ 11 ⑤
 12 가운데 - 3 - 나. 줄다리를 전승하려는 노력 13 ③
 14 ⑤ 15 분석. 시계의 구조 / 인간의 신체 구조 / 비행기의 구조 등 16 ② 17 귀지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8 ④ 19 ③ 20 ①

01 (라)를 통해 전통 양념인 간장과 된장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미노산이 들어 있는 전통 양념이 음식의 감칠맛을 돋우는 한편 영양소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글쓴이는 발효 식품이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한다고 말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발효 식품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다)에 따르면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효소 작용이 일어나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때부터 발효가 진행된다. 이때 젖산균이 포도당을 분해하여 만들어 내는 젖산은 김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치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오래 두고 먹으며 채소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나)에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알 수 있지만, 발효와 부패가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⑤ (나)에서 발효 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가)에서 다른 세계의 장수 식품과 이러한 사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02 이 글을 통해 김치가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된장 또한 피부병,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효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전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효 식품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발효 식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나서 글의 끝 부분에서 저녁밥으로 발효 식품을 먹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다. 글쓴이가 제시한 된장찌개와 김치 외에 발효 식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식단을 짜 보는 것은 글의 내용과 연관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② 독후 활동으로 글에 제시된 전통 발효 식품 외에 다른 발효 식품이 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전통 발효 식품이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준다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전통 발효 식품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을 연구해 보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더 발전시킬 방법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도 전통 발효 식품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03 (가)는 글의 처음 부분, (나)~(라)는 가운데 부분, (마)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나)에서는 발효의 개념 및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음식에서, 특히 김치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은 (다)에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04 (라)에 따르면 콩을 삶아 찢은 후(㉔) 메주를 만들고(㉕), 이를 발효하여(㉖)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다. 그 국물을 달인 것이 간장이다(㉗). 된장은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으깨어 소금을 섞은 다음(㉘), 1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만든다(㉙). 따라서 (라)에 제시된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 따라 ㉔~㉙를 나열하면, ①의 순서가 된다.

05 ㉑과 ㉒에는 공통적으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 감기에 걸리게 되고(원인), 그 결과로 여러 증상(결과)이 나타나게 된다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미세 먼지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② 한국 문학의 여러 갈래를 종류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④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노랫말에 자주 등장한 단어를 열거하고 있고, 각각의 노랫말에 많이 사용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⑤ 중국 젓가락과 일본 젓가락의 길이와 끝 모양을 대조하고 있다.

06 설명하는 글은 대상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로 다루며,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성이 일반적이다. 또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설명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목적	정보 전달	설득
성격	객관적(사실 중심), 사실적	주관적(의견 중심), 설득적
읽는 방법	•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정보 파악하기 •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며 읽기 • 정보가 객관적인지 판단하기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며 읽기	•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읽기

07 제시된 자료는 가야금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야금의 구조에 대해서 몸통과 열두 개의 줄, 안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다)에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08 서술형 (가)~(마)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에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에서는 국악기에 속하는 악기들을 연주 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고, (나)에서는 국악기라는 큰 항목을 기준에 따라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다)에서는 가야금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있으며, (라)와 (마)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마)의 설명 방법을 각각 바르게 썼다.	☐

09 글쓰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글의 갈래 등을 정한다. 표현 전략은 내용 조직하기나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표현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제시된 만화에서 어떤 표현 전략을 세웠는지 확인할 수 없다.

10 (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인 ‘줄다리기’의 가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의 전통 놀이인 줄다리를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줄다리를 세계에 알리자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② 줄다리가 즐거움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해 주어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줄다리의 가치를 밝힘으로써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든 것이므로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④ 줄다리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 주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줄다리의 가치에 해당하며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므로 부분적인 내용일 뿐이다.

11 (나)는 지역별로 편을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한편, 공통적으로 암줄이 이겨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여겨 여자 편이 이기도록 남자 편이 양보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자료를 통해서 지역별로 줄다리기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까닭은 알 수 없다.

② (나)에서 줄다리에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줄다리를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③ 줄의 암줄 수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나)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④ 줄다리의 편 구성 방식이 지역마다 달랐다는 정보만 제시되어 있을 뿐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12 서술형 <보기>는 줄다리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린 이들에게 줄다리의 가치와 놀이 방법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줄다리를 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가운데-3-나’의 항목을 바르게 썼다.	☐
구성 단계를 포함하여 썼다.	☐

13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오답 풀이 ①, ②, ④는 끝 부분에, ⑤는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설명하는 글은 이처럼 구성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써야 한다.

14 <보기>는 ‘줄다리기’의 뜻을 설명한 자료로,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인 줄다리기가 어떤 놀이인지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⑤
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때 두 가지 뜻 중에서 ①의
뜻을 사용해야 한다.

15 서술형 <보기>는 줄다리에 사용하는 줄을 머리, 몸줄, 결
줄로 나누어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줄다리에 사용하는 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처럼 어떤 대상의 구조를 설명할 때에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
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썼다.	☐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한 가 지 이상 썼다.	☐

16 이 글에서 귀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처럼 어떤 대상의 구조를 나누어 각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분석의 설명 방법이지 분류의 설명 방법이 아니
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귀지란, 귓구멍 속에 낀 때를 말한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

③ (다)에서 젖은 귀지와 마른 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표로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④ (나)에서 “귀지는 귓구멍 속에 있는 4,000개가 넘는 땀샘과 피지샘에서
나온 분비물이 죽은 피부의 겹질이나 귓속에 들어온 먼지와 섞여 끈적끈적
한 황금색의 점액으로 변한 것이다.”라고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⑤ (라)에서 귀지가 밖에서 들어오려는 다양한 이물질들을 막아 주고, 털과 함
께 따뜻한 외투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귀지의 역할을 ‘외투’에 빗대 비유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 기르기

문제의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이 문제도 글의 내용과 선지가 일치하
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지문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간략하게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아. 그
 래야 한 번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시 풀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지.

17 서술형 이 글은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는 글이다. 즉, ‘귀지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이 글
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글의 통일성을 갖추
기 위해 ‘귀지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활용하지 않은 것이
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에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알맞게 찾아 썼다.	☐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주제와 관련지어 썼다.	☐

18 <보기>는 먼지나 벌레 등의 이물질을 막고, 귀를 따뜻하게
하는 귀지의 역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귀지의 역할을 설
명하고 있는 문단은 (라)이다. (라)에 <보기>와 같은 그림 자료
를 제시하면, 읽는 이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귀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므로, 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이라면 적절하다.

② (나)는 귀의 구조와 귀지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귀
의 구조를 보여 주는 그림이 더 적절하다.

③ (다)는 마른 귀지와 젖은 귀지를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보기>와는
거리가 멀다.

⑤ (마)는 귀지를 파면 안 된다는 당부가 담겨 있는 문단이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9 이 글에서는 귀지가 귓속으로 들어오려는 이물질을 막고
귀를 보호하는 외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귀지를 파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귀지를 팔 경우에 걸릴 수 있는 세균
감염이나 외이도염 같은 구체적인 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내용 기르기

이 문제처럼 ‘개요’와 실제 쓴 글을 비교하며 살펴봐야 하는 것은
꽤 어려운 문제 유형이야. 선지와 (가)~(마)를 순서 없이 보다가는 실
수할 확률도 높지. 이런 문제는 우선 개요의 ‘처음’을 보고, 그와 관련
된 선지(여기서는 ①, ②)를 읽자. 그런 후에 글의 ‘처음’ 부분을 훑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개요의 ‘처음’에는 귀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만 써 있지? 그런데 ①, ②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했지? 그 내용이 실
제로 글의 ‘처음’ 부분에 나타나 있니? ①의 귀지의 개념과 ②의 질문
형식이 (가)에 나타나 있지? 이런 순서로 선지를 점검하면, 좀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단다.

20 <보기>는 ㉠의 ‘외이’, ‘중이’, ‘내이’를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며, ‘분비샘’이 무엇인지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신체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이라는 설명을 덧붙
이고 있다. 이와 같이 바꾼 이유는 내용을 더욱 쉽게 표현하여
읽는 이가 대상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②	10 ⑤
11 ③	12 ②	13 ④	14 ⑤	15 ⑤
16 ⑤	17 ④	18 ⑤	19 해당 지역의 특 색과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다.	20 ⑤
21 ②	22 ⑤	23 ⑤	24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주기 위해 세우는 것,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	25 ①

01 이 글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이덕무’의 삶과 읽기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덕무’의 책 읽기 태도나 그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만, ‘이덕무’의 업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읽는 이가 공감할 만한 상황을 예로 들어, 책을 읽기 싫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 볼까?’, ‘어때, 놀랍지 않아?’ 등과 같이 읽는 이에게 질문함으로써 읽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다)는 ‘이덕무’가 쓴 글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책 읽기의 유익함을 이야기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읽는 이에게 ‘친구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 ‘~어.’ 등과 같이 친근하게 말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2 (마)에서 이덕무는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즉, ‘이덕무’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과거 시험에 번번이 탈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이덕무’는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이덕무’는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이덕무’는 책을 읽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되고, 추위도 잊으며, 근심과 번뇌는 사라지고,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서자 출신인 ‘이덕무’가 답답한 상황에서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3 (나)에서 ‘이덕무’는 소문난 책벌레였는데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책 읽기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읽기를 생활화한다고 한 ④이다.

04 <보기>에서 ‘나’는 재능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우울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이러한 불편했던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깨달은 읽기의 가치는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5 (나)에서 관목들은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 나가고, 이 덕분에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이뤄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관목과 미세먼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잣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시로미’는 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물기를 가득 머금은 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싸리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하는 주역이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쑥, 억새, 고사리’와 같은 개척 식물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지반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운택한 토양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06 <보기>의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쓸모없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나’는 이 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는 읽기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07 ㉠, ㉡, ㉢은 글쓴이가 말하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 역할을 묵묵히 해냄으로써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거대한 교목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과는 반대로 더 크고 높이 자라려고 하는 나무들을 말한다.

08 발표할 때에 질문, 인용구, 사례, 시사 문제, 비유, 농담 등을 활용하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발표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라)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을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의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마)에서 발표자는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등과 같이 듣는 이의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③ (라)에서는 사막화 현상의 정의를 밝혀 사막화 현상이 식량과 식수 부족을 불러오는 까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에서 발표한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이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09 (가)의 자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식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보여 주려면 세계 지도에 기아 지역과 인구수를 표시한 지도를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자료는 전 세계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 자료이다.

③ (라)의 자료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드러낸 호수의 사진으로,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사막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있다.

④, ⑤ (마)의 자료는 구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을 보여 주는 영상이다. 이를 통해 듣는 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듣는 이가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0 발표자는 (나)~(라)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다)에서는 부정부패의 문제(ㄷ), (라)에서는 사막화 현상의 문제(ㄴ)를 제시하고 있다.

11 발표자는 (마)에서 '기부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 문제를 겪는 나라에 직접 식품을 보내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보기>의 발표는 '우포 늪'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포 늪'의 경치를 찍은 영상, 우포 늪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동식물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우포 늪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포 늪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은 '우포 늪의 아름다운 경치와 동식물 소개'라는 발표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자료이다.

내용 기르기

발표 내용은 발표의 목적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 <보기>의 학생이 어떤 목적과 주제로 발표하려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자료와 내용 구성 방법은 무엇인지, 발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떠올려 보.

13 발표문을 준비할 때에는 표나 그래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발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넣을 경우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도 어렵고, 발표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발표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14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표현이 동일하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담화의 상황이 달라져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③~④의 담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는 신발 가게 점원과 손님이다. 그러므로 “네, 딱 맞네요.”는 신발이 발에 잘 맞다는 뜻이지, 다친 팔이 금방 낫게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①~②에서는 팔에 깎인 사람이 상대방을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다친 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로 보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의사와 환자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은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라는 뜻이다. ②, ④ ③~④에서는 팔에 깎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발을 신게 하는 행동으로 보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신발 가게 점원과 손님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은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라는 뜻이다.

16 같은 말이나 글도 의사소통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말이라도 공간에 따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말은 ‘차례를 지키세요.’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7 우리나라는 형제나 친척이 아닌데도 ‘이모’나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를 친근하게 부르기 위한 것인데, ‘나’는 사전적 의미만을 생각했기에 모르는 사람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에 어색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민재’와 옆자리 손님이 식당 종업원을 ‘이모’라고 불렀다고 해서 ‘민재’와 옆자리 손님이 식당 주인, 종업원과 친척인 것은 아니다. 옆자리 손님도 ‘민재’와 마찬가지로 식당 종업원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② ‘나’는 ‘이모’와 ‘언니’의 사전적인 뜻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데도 ‘이모’, ‘언니’라는 말을 쓰는 ‘민재’와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다.

③ 옷 가게 주인이 ‘나’를 나이가 많게 생각해서 ‘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게에 들어와서 옷을 구경하고 가라는 의미로 친근하게 부른 것이다.

18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문화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르거나, 표현이 같더라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쓴 외국인처럼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는 담화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탕 요리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19 서술형 제시된 안내문은 ‘통영항’이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경남 지역의 방언으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지역의 특색이나 분위기가 드러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0 듣기·말하기에서 참여자들 간에 의미가 잘 공유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 참여자의 지식수준, 참여자 간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협력적인 듣기·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의미를 잘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21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강연을 듣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2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강연자는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 전담, 옥개석'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강연을 듣기 전에 강연 주제나 내용을 미리 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해진 질문 시간 외에 강연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강연의 특성상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참고 자료】 강연

- (1) 강연의 뜻: 일정한 주제에 대해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
- (2) 강연의 효과적인 방법
 - 청중의 나이, 성별,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 강연 내용을 준비해야 함.
 - 정해진 시간의 분량보다 많은 내용을 준비해 도중에 잊어버리거나 놓친 내용이 있어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청중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청중에게 질문을 하거나, 손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 강연 효과를 높이도록 함.

23 '아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아빠'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부분에는 맞장구를 치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아빠'는 '여우는 매일같이 자기 영토를 돌아다니며 나무나 바위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지, 그게 울타리아.'라고 하며 동물인 여우를 예로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처음에는 '울타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아들'에게 '아빠'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으나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게 된다.
 ㉡ '아빠'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여우가 자기 영토에 소변을 보는 일, 나무가 뿌리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24 서술형 '아들'은 대화 처음에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나,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점점 울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울타리의 필요성을 바르게 썼다.	☐
(가)의 내용과 대구를 이루도록 썼다.	☐

25 '엄마'가 대화를 더 이상 이어 가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차은'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차은'에게 '엄마' 역시 화가 났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 '차은'은 '엄마'가 새로 사다 준 새 운동화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화만 내고 있다. 이처럼 '엄마'와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에 협력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 '엄마'는 '차은'이 계속해서 짜증을 내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엄마' 역시 '차은'에게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차은'은 자기의 기분이 왜 좋지 않은지를 말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짜증만 내고 있고, '엄마'도 '차은'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새 운동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의미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최종 모의고사 | 중간고사 2회

본문 146~151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5 ④
- 06 책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준다. 07 ①
- 08 ③ 09 ④ 10 ④ 11 ⑤ 12 ②
- 13 ② 14 ⑤ 15 ④ 16 (가): 이제 그만
- 자고 어서 일어나. (나):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 17 ⑤
- 18 ③ 19 ③ 20 ⑤ 21 ④ 22 ②
- 23 ② 24 ③ 25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

01 이 글의 글쓴이는 책 읽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덕무'의 글을 인용하여 책 읽기의 유익함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책 읽기에 대해 글쓴이와 다른 생각이 나타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책 읽기를 생활화하자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책 읽기를 항상 가까이 했던 '이덕무'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② (나)에서 '이덕무'가 느낀 책 읽기의 유익함 네 가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마)에서 '그런데 만약, 배고프거나 배부르지도 않고, 춥거나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면 어떻게 하냐고?'와 같이 상황을 가정하여 항상 책을 읽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 볼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와 같이 문답법을 사용하여 읽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02 이 글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이덕무'의 삶과 읽기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우리가 왜 책을 읽는지,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읽기를 생활화할 것을 자연스럽게 권유하고 있다.

03 (다)에서 '이덕무'는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덕무'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지식은 습득할 수 있었지만, 벼슬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이덕무'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진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이덕무'는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픔을 잊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추위를 잊게 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이덕무'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으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이덕무'는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기침 소리가 멎게 된다고 하였다.

04 글쓴이는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편한 때 역시 책 읽기에 더 없이 좋은 때이므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은 전혀 아니 하고 오직 책 읽기에만 골몰하는 경지'라는 뜻의 '독서삼매(讀書三昧)'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주경야독(晝耕夜讀)'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일취월장(日就月將)'은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한다는 뜻이다.

④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이다.

⑤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다)에서 나무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만 충실하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이런 나무들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남과 비교하거나 남보다 앞서기 위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글쓴이는 이러한 나무들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같다.

②, ③ (다)에서 삶의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같다.

⑤ (다)에서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하루 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같다.

06 서술형 <보기>는 이 글을 읽은 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책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준다.'는 읽기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지식이나 정보와 관련된 내용임을 썼다.	☐
주어진 형식으로 썼다.	☐

07 (라)에서 글쓴이는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즉, 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08 글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어울리려면 키가 작거나 못생기거나 하여 하찮게 보인다는 뜻의 낱말이 들어가야 한다.

09 (바)에서 발표자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듣는 이(중학생)의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발표자는 기아 문제를 다룬 책을 읽고, 그동안 세계의 기아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달았으며, 이 문제를 청중과 함께 살펴보고 발표를 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발표자는 기아 인구는 세계 곳곳에 넓게 퍼져 있으며, 심각한 곳은 전체 인구의 35 퍼센트 이상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며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③ (라)~(마)에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들어 기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⑤ (바)~(사)에서 기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세계의 이웃을 생각하여 함께 고민해 달라고 청중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0 (라)는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로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다.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의 사진은 기아 문제로 사막화 현상을 다룰 때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11 (사)에서는 '법정 스님'의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얹혀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기아 문제 해결에 모두 동참하자는 발표자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효과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목적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는 요약 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내용 구성 능력,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즉, 발표는 문제의 핵심을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제한된 시간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거나 청중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12 (라)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일부 기업이나 정부의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보기>를 보면, 이 발표의 목적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발생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신문 기사는 발표 목적과 맞지 않다.

14 같은 언어권에 속하더라도 지역, 세대, 성별, 문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담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담화에 참여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②, ④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담화는 이러한 구성 요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③ 담화의 구성 요소에 따라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5 말이나 글의 뜻은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나 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시간과 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왔어?"라는 표현은 같더라도 친구와 체험 활동 장소에서 만난 상황에서 한 말이라면 그 의미는 '무엇을 타고 왔어?'가 된다.

16 서술형 만화에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과 창문 밖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는 아침인데 학생이 늦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학생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에서 “지금 몇 시니?”는 ‘이제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지금 몇 시니?”는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의 뜻을 파악하여 썼다.	☐
(나)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의 뜻을 파악하여 썼다.	☐

17 (가)에서는 딸이 ‘남아공’과 같은 청소년 세대가 많이 쓰는 줄인 말을 사용하여 어른 세대인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서는 ‘민재’가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외국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18 놀러 가자고 요청하는 친구에게 “나 내일 시험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간접 발화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가)와 같이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를 나타내는 사례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버카충’, ‘술까말’ 등의 줄인 말이나, ‘ㅇㅈ’, ‘ㅋㅋ’과 같은 초성 표현도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부모님 세대는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에 해당한다.

④, ⑤ (나)는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손님에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만의 관습적인 표현이다.

【참고 자료】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직접 발화란 발화된 내용과 발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것이고, 간접 발화란 발화의 내용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19 제시된 ‘넬슨 만델라’의 연설처럼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 역사적 상황과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조사하는 것은 이 연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 연설의 의미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④, ⑤ ‘넬슨 만델라’의 삶이나, 이 연설이 쓰인 당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고 연설문을 읽으면 연설문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0 (가)의 담화 참여자는 ‘엄마’와 ‘아들’이고, (나)의 담화 참여자들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그러므로 (가)의 담화 참여자들의 친밀도가 (나)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들’은 왜 놀이공원에 가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놀이공원에 가자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② (가)에서 ‘엄마’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반대하는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

③ (나)에서 ‘영서’는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옷차림과 관련해 상대가 불편해질 수 있는 농담을 하고 있다.

④ (나)에서 ‘서우’는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라고 ‘영서’의 농담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느낀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1 다른 대화는 상대를 배려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④는 ‘아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이므로 적절한 대화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들’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놀이공원에 가고자 하고 바꾼 대화는 적절하다.

② (가)에서 ‘엄마’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꾼 대화에서는 ‘아들’의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들어 주고 놀이공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아들’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아들’은 ‘엄마’와의 대화를 협력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서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으며,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아빠’와 ‘아들’은 처음에는 ‘울타리’에 대한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그 의견을 귀담아듣는다. 그러므로 담화는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3 ‘아빠’는 ‘아들’이 사람만이 자기 걸 지키려고 울타리를 세운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아.”라며 부정하고 있으므로, ‘아들’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아빠’는 ‘아들’의 수준에 맞게 동물을 예로 들어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④, ⑤ ‘아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부분도 ‘아빠’의 말을 귀담아듣고 적절하게 호응하며,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맞장구를 치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24 이 글은 소설의 일부로,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5 서술형 ‘아들’은 ‘아빠’의 설명을 들으면서 울타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울타리가 사람만이 자기 걸 지키려고 세우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울타리’의 의미를 썼다.	☐
주어진 글에서 찾아 썼다.	☐

01 ③	02 ⑤	03 봄 길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②	09 ⑤	10 ③
11 ⑤	12 ①	13 우리가, 없었다.	14 ②	
15 ③	16 ③	17 ⑤	18 ①	
19 ㉗: 젓산균, ㉘: 메주, ㉙: 항암 효과	20 ⑤	21 ⑤		
22 ③	23 ②	24 ③	25 ③	

01 (가)의 말하는 이는 현재 '당신'과 이별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당신'이 말하는 이를 찾아와 나무랄 것이라 가정하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당신'과 재회하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당신'과 만날 날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의 말하는 이는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의 말하는 이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과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말하는 이 역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④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데,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시련을 초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말하는 이는 흐르다가 멈춘 '강물',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새들', 흩어져 버린 모든 '꽃잎'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지, 이를 통해 상처를 위로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02 (가)의 1~3연의 첫 행은 '당신이 ...면'이 반복되고 있고, 각 연의 두 번째 행은 '잊었노라'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시어나 시구가 비슷한 자리에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임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감정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03 서술형 '봄 길'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구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하고, '길'을 통해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드러낸다. 즉,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긍정적, 희망적 가치를 표현하는 시구라고 볼 수 있다.

04 ㉗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② 결국 이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므로, '당신'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③ '아니 잊고'는 '잊지 않았다.'라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④ '잊었노라'는 잊지 못하고 있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 표현이다.

05 ㉘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은 모순된 표현으로, 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역설 표현이다. 역설은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㉘는 '아우성'이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라는 뜻인데, '소리 없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모순되는 역설 표현에 해당한다. ㉙도 '날과 밤으로 흐르는' 남강이 '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모순되는 역설 표현이다.

오답 풀이 ㉘는 직유법, ㉙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06 '박 선생님'은 일본 정치 때에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조선말로 싸운다고 중한 벌을 주기도 하는 등 친일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자 천하에 못된 미국이라고 부르던 미국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이로 보아, '박 선생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힘 있는 쪽에 잘 보이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07 이 글은 (가)에서 '박 선생님'의 외모를, (나)~(라)에서 '박 선생님'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권력에 아부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인 '박 선생님'을 풍자하여 비판하고 있다. <보기>도 파리를 물고 있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는 급실거리고 힘이 없는 백성은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풍자하여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박 선생님'이나 <보기>의 '두꺼비'는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중시한다.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한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지배 계층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08 (나)에서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한테 듣키는 날이면 경치는 판이었다.'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조선말을 쓰다 들킬 경우 혹독하게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당시는 조선말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과 달리 조선이 일본에서 벗어나 독립한 사실에 뭉뚱이 기뻐하고 있다. '강 선생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자신의 애국심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보상을 바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박 선생님'은 해방 소식에 기뻐하는 '강 선생님'에게 "아니, 자상히 알아보거나 하구서……."라며 쉽게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나, '강 선생님'의 호통에 꼼짝하지 못한다. 이는 일본의 패망 소식이 기가 죽고 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③ (가)에서 '강 선생님'은 해방 소식을 듣고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나)에서 '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10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을 맹목적으로 좇는 태도를 보이다가 일본의 패망 후에는 미국을 칭찬한다.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힘 있는 쪽에 붙어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오추멜로프 경감은 흐류킨을 문 개가 지위가 높은 장군의 개인 지 아닌지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이 글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읽는 이가 ‘박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박 선생님’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므로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말이나 행동을 옮김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간접 제시 방식에 해당한다.

③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해방 전후임을 알 수 있으나, 서술자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이다 보니 시대적 배경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④ 소설에서 배경이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배경 묘사보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2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글의 내용에 따라 부분마다 소제목을 달기는 하지만 문단마다 제목을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글 역시 문단마다 제목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13 서술형 (나)의 ‘우리가 “민들레!” 하고 ~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의 문장은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며 읽기에 어렵다. 고쳐 쓸 때에는 문장 중에서 더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는 문장은 없는지 살펴보고, 문장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이로 고쳐야 한다.

14 ㉠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는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보았다.’로 수정해야 한다.

15 적절한 이음말을 사용해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런데’는 병아리가 매력적이어서(원인) 그 앞에서 병아리를 바라보았다(결과)는 문맥으로 보아, 부적절한 이음말이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서’로 고쳐야 한다.

16 글쓴이는 길 틈새에 핀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민들레가 자신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즉, ‘무심코 바닥을 ~ 있었다.’는 다음 문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므로 두 부분으로 나누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다행히’는 ‘다행히’를 틀리게 쓴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도록 ‘다행히’로 고쳐야 한다.

④ ‘막막하다’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민들레’를 떠나보낸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므로 ‘막막했다’를 ‘먹먹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맥락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자초지종’으로 바꾸어야 한다.

17 (가)에서 외국의 발효 식품인 요구르트, 하몬, 빵, 치즈 등을 예로 들고는 있지만, 이를 우리나라의 발효 식품의 예인 김치, 간장, 된장 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한 글이므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의 처음 부분인 (가)에서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 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라고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나)에서 발효의 개념과 특성을, (다)와 (마)에서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와 된장의 우수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가)의 질문이 이어질 내용을 제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서는 발효 식품의 구체적인 사례인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발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부패와 비교·대조하여 발효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18 이 글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전체 수준에서 볼 때, (다)~(마)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다.

19 서술형 (다)에서 ‘김치 발효의 주역은 젖산균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젖산균’이 들어가야 한다. (라)에서는 ‘메주를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하고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다. 그 국물을 떠내어 달이면 간장이 완성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메주’가 들어가야 한다. (마)에서 ‘된장은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항암 효과’가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말로 ‘젖산균’을 바르게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메주’를 바르게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항암 효과’를 바르게 썼다.	☐

20 ㉠은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구분’이다.

오답 풀이 ① 발효 식품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르트, 하몬, 된장, 빵, 치즈'를 예로 들고 있다.

② '발효'의 개념을 정의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③ '발효'와 '부패'가 모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발효'는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 '부패'는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1 <보기>는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⑤는 '앞'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표피, 책상 조직, 해면 조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보기>와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조류,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와 같은 작은 항목들을 '척추동물'로 묶고 있으므로,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설명문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소설'이라는 큰 항목을 '길이'에 따라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 맞게 '처음 - 가운데 - 끝' 부분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③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3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내용 생성하기'에 해당한다.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필요 없는 내용과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

24 '소설과 만화'를 소개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조'는 '소설과 만화'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설과 만화'의 공통점을 설명할 때에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씩 설명하면 읽는 이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환경 오염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원인)과 그로 인해 어떠한 상태(결과)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다.

④ '비행기의 구조'처럼 하나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⑤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를 나이라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그렇게 구분한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25 <보기>는 육지 지방과 섬 지방에서 줄다리의 편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는 '가운데 - 2. - 가.'를 쓸 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종 모의고사 | 기말고사 2회

본문 158~163쪽

- | | | | | |
|------------------------|-------------------------------|---------------------------------|------|------|
| 01 ④ | 02 ② | 03 ⑤ | 04 ④ | 05 ③ |
| 06 ② | 07 ④ | 08 ② | 09 ③ | |
| 10 ㉠: 조그만 고양이, ㉡: 큰 수캐 | 11 ① | 12 ② | | |
| 13 ③ | 14 ⑤ | 15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16 ⑤ | 17 ③ |
| 18 ④ | | | | |
| 19 ① | 20 ④ | 21 ⑤ | 22 ③ | 23 ① |
| 24 ② | 25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 | |

01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둘 다 떠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말하는 이는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있다. 사랑이 끝났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말하는 이는 이 상황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가)~(다)는 이 별의 상황과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상징은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듯,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와 (나)에 이러한 상징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② (가)는 미래의 어느 날 '당신'과 만날 것을 가정하고 사랑을 전개하고 있지만, (다)에는 이러한 가정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다)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나)는 비가 온다는 날씨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계절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있다', '보라'처럼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만이다. (가)는 '노라'를 사용하여 선언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말투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02 (가)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와 같이 한 행을 세 번씩 끊어 읽는 3음보의 민요조율격이 나타난다. ②는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 끊어 읽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 '심심' '삼천에' '백도라지'와 같이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다.

③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과 같이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다.

④ '봄바람' '하늘하늘' '넙노는' '길에' /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튼다.'와 같이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다.

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과 같이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다.

03 ㉠~㉣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반어 표현이 쓰였고, ㉤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 쓰였다.

04 ㉠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존재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는 사랑이 끝난 상황이지만 스스로 사랑이 됨으로써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05 이 글은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박 선생님’을 희화화하고 비꼬으로써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는 해방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6 (다)에서 ‘박 선생님’은 평소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러뜨려 천황 폐하의 위엄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곤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에게 장난치려는 의도로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나’가 ‘강 선생님’에게 일본 말 대신 조선말을 쓰는 까닭을 묻자, ‘강 선생님’은 일본 말이 서투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 말이 서투른 선생님이 아니었다.’의 진술로 보아, ‘강 선생님’이 조선말을 계속 쓰는 까닭은 애국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을 추종했던 ‘박 선생님’은 교장 선생, 두 일본 선생님과 함께 맥이 풀린 상태로 교무실에 모여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⑤ (마)에서 학생들이 아니라, ‘박 선생님’이 미국 말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은 힘 있는 쪽에 복종하는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강자의 편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반응할 수 있다.

08 이 글은 ‘해방’이라는 말도 잘 모를 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웃음을 줄 뿐만 아니라, ‘박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부각하는 효과를 준다. 이 글의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인물인 ‘박 선생님’의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09 이 글은 ‘박 선생님’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독자로 하여금 ‘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보기>도 강자인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 아래 자빠지는 ‘두꺼비’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강자에게는 꿈쩍 못하면서 약자만을 괴롭히는 ‘두꺼비’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풍자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뿐, 역설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주제를 표면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대상을 풍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는 사회적 권력을 지닌 자에게 아첨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박 선생님’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강 선생님’과의 태도와 견주어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두꺼비’와 다른 대상을 견주고 있지는 않다.

10 서술형 (가)에서 ‘나’는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마주 서서 싸우는 모양이 마치 큰 수캐와 조그만 고양이와 마주 만난 형국과 같다고 표현하여 두 인물을 비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에서 ‘박 선생님’을 비유한 표현을 찾아 썼다.	☐
(가)에서 ‘강 선생님’을 비유한 표현을 찾아 썼다.	☐

11 ㉠의 뒤를 보면, ‘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고 한다. 즉, ‘강 선생님’은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고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

12 ㉡는 글의 제목을 고쳐 쓴 것이고, ㉢는 글의 주제에 맞지 않는 문단을 삭제한 것이므로 이 둘은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쓴 것이다. 반면, ㉣는 글의 흐름에 맞게 문단의 순서를 적절하게 바꾼 것이고, ㉤는 문단을 중심 화제와 적당한 길이에 따라 나누어 쓴 것이므로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쓴 것이다.

13 병아리 ‘민들레’가 앓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함.’이라는 뜻의 ‘전전긍긍’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병세가 더 심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으면서 오래 끄는 모양.’을 뜻하는 ‘시름시름’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타이르다’는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인 글쓴이가 ‘엄마’에게 때를 쓰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요구하다.’의 뜻인 ‘조르기’로 고쳐야 한다.

② ‘모질다’는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라는 뜻으로, ‘민들레’가 잘 자라길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므로, ‘힘차고 튼튼하다.’는 뜻의 ‘굳세게’로 고쳐야 한다.

④ ‘막막하다’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민들레’를 떠나보낸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므로, ‘채한 것같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뜻의 ‘먹먹했다’로 고쳐야 한다.

⑤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라는 뜻으로,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해당 부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뜻하는 ‘자초지종’이 적합하다.

14 ㉠은 문법에 어긋나거나 어색한 문장이 아니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앞뒤의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높임 표현을 잘못 쓴 문장으로, ‘나누어 주시는 걸’로 고쳐야 한다.

② ㉢는 잘못된 이음말을 사용한 표현으로, ‘그런데’를 ‘그래서’로 바꾸어야 한다.

③ ㉣는 시간 표현을 잘못 쓴 문장으로,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로 고쳐야 한다.

④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다. ‘전혀’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부사어이므로 ‘하지만 민들레는 일어날 김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로 고쳐야 한다.

[참고 자료] 이음말의 종류

- 그리고: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 그런데: 1.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2.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룰 때 쓰는 접속 부사.
- 그래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15 서술형 ㉔는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장을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보기>처럼 세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㉔의 길이가 길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썼다.	☐
㉔를 고치는 이유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됨을 썼다.	☐

16 이 글은 과자를 샀다가 실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과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다. 과자를 먹는 서정이의 귀여운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

17 (가)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즉, 부패와 발효 모두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살펴보고 있다.
- ② (라)에서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하였다.
- ④ (나)에서는 '김치'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라)에서는 '된장'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발효 식품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다)에서 간장을 만들 때 콩을 꼭 삶아서 찌는 다음, 덩어리로 만들고, 이를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하고 소금물에 담가 우려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발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보기>는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다)는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라)는 된장의 효능에 대한 내용이므로 <보기>는 (다)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내용 기르기

주어진 내용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부분을 찾는 문제는 글에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해결하면 쉬워. <보기>에서 '이제'라고 표현했으므로 <보기> 앞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지. (다)에 '먼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다)와 <보기>를 연결하면 되는 거야.

19 (가)에는 발효의 개념을 밝히어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 발효와 부패가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설명하는 '비교'의 방법,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발효와 부패가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

20 '간장'과 '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양념으로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돋우는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김치'는 그냥 먹어도 되고 다른 요리를 할 때의 주재료로 활용되지, 양념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21 ㉔는 된장이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취미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원인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 오답 풀이** ① '인간의 신체 구조'는 하나의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전통 약기의 종류'는 큰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이나, 작은 항목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큰 항목으로 묶어 설명하는 '분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예시'의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 ③ '세대별로 자주 사용하는 낱말'은 나이라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분류',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우리나라와 중국의 음식 문화 차이'는 두 대상의 다른 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 (가)~(나)는 글을 쓰기 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에 적절한 설명 방식과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운다.

23 <보기>는 국어사전에서 찾은 자료로, 줄다리가 어떤 놀이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24 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에 대한 내용은 '귀지'에 대해 설명하는 (나)의 주제에 어긋나므로 글쓴이가 수집할 만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가운데-1'에 귀의 구조를 설명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처음-1'에 귀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설명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의 '가운데-3'에 성질에 따른 귀지의 종류를 설명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의 '가운데-4'에 귀지의 역할을 설명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서술형 (나)의 개요에서 '처음' 부분을 보면, 귀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귀지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해당 글에서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는 제시된 개요의 '처음' 부분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시험 보기 전 내공 확인



1 나를 키우는 읽기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본문 164~166쪽

어휘 시험

- | | | | |
|--------|---------|------|-------|
| 1 가치 | 2 통창하다 | 3 상념 | 4 책벌레 |
| 5 마니아 | 6 벼슬 | 7 저장 | 8 끼니 |
| 9 독서삼매 | 10 등화가친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책만 읽는 바보 | 6 책 읽기 | 7 개척 식물 | |
| 8 수필 | 9 ② | 10 ④ | |

확인 문제

- | | | | |
|-----|-----|-----|-----|
| 1 ② | 2 ② | 3 ① | 4 ④ |
|-----|-----|-----|-----|

(2)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본문 167~169쪽

어휘 시험

- | | | | |
|--------|-------|---------|------|
| 1 분포 | 2 기아 | 3 비율 | 4 통계 |
| 5 생각 | 6 원인이 | 7 악용해서는 | 8 많이 |
| 9 보릿고개 | 10 식량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기아 문제 | 6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 |
| 7 법정 스님 | 8 사막화 | 9 ③ | 10 ③ |

확인 문제

- | | | | |
|-----|-----|-----|-----|
| 1 ③ | 2 ② | 3 ④ | 4 ⑤ |
|-----|-----|-----|-----|

2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본문 170~172쪽

어휘 시험

- | | | | |
|-------|-------|------|------|
| 1 유권자 | 2 이모 | 3 맥락 | 4 호소 |
| 5 횡단 | 6 탄압 | 7 체제 | 8 양심 |
| 9 담화 | 10 방언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 | 6 ㄷ | 7 ㄱ | 8 ㄴ |
| 9 ㄹ | 10 ② | | |

확인 문제

- | | | | |
|-----|-----|-----|-----|
| 1 ② | 2 ⑤ | 3 ① | 4 ⑤ |
|-----|-----|-----|-----|

(2) 의미를 나누는 듣기 · 말하기

본문 173~175쪽

어휘 시험

- | | | | |
|---------|--------|-------|-------|
| 1 ㄴ | 2 ㄹ | 3 ㉠ | 4 ㄷ |
| 5 유통 기한 | 6 지식수준 | 7 울타리 | 8 협력적 |
| 9 발끈하다 | 10 다문화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운동화 | 6 필리핀 | 7 울타리 | 8 이웃 |
| 9 ② | 10 ① | | |

확인 문제

- | | | | |
|-----|-----|-----|-----|
| 1 ③ | 2 ③ | 3 ④ | 4 ⑤ |
|-----|-----|-----|-----|

3 개성이 드러난 표현

(1) 창의적인 발상

본문 176~178쪽

어휘 시험

- | | | | |
|--------|--------|--------|----------|
| 1 외면 | 2 표면 | 3 감상적 | 4 오늘, 내일 |
| 5 사무치다 | 6 내포하다 | 7 저버리다 | 8 흠여지다 |
| 9 ④ | 10 ③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3(삼) | 6 잊었노라 | 7 봄 | 8 꽃잎 |
| 9 후렴구 | 10 ① | | |

확인 문제

- | | | | |
|-----|-----|-----|-----|
| 1 ③ | 2 ⑤ | 3 ① | 4 ⑤ |
|-----|-----|-----|-----|

(2) 비판적인 표현

본문 179~181쪽

어휘 시험

- | | | | |
|-------|-----------|------|------|
| 1 ㉠ | 2 ㄷ | 3 ㄴ | 4 ㄹ |
| 5 어혈 | 6 소견 | 7 낙방 | 8 정기 |
| 9 제기다 | 10 코가 빠지다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미국 | 6 일본 말 | 7 태극기 | |
| 8 이상한 선생님 | 9 ③ | 10 ② | |

확인 문제

- | | | | |
|-----|-----|-----|-----|
| 1 ① | 2 ④ | 3 ⑤ | 4 ④ |
|-----|-----|-----|-----|

(3)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

본문 182~184쪽

어휘 시험

- | | | | |
|--------|--------|------|-------|
| 1 알곡 | 2 기점 | 3 추억 | 4 김새 |
| 5 감언이설 | 6 틈새 | 7 부화 | 8 다행히 |
| 9 먹먹하다 | 10 조르다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 | 6 ㉡ | 7 ㉢ | 8 ㉣ |
| 9 ㉤ | 10 ㉥ | | |

확인 문제

- | | | | |
|-----|-----|-----|-----|
| 1 ㉥ | 2 ㉣ | 3 ㉤ | 4 ㉢ |
|-----|-----|-----|-----|

4 더 쉽게 더 정확하게

(1) 다양한 설명 방법

본문 185~187쪽

어휘 시험

- | | | | |
|-------|--------|-------|-------|
| 1 일종 | 2 농도 | 3 주역 | 4 변비 |
| 5 향암 | 6 배설 | 7 감칠맛 | 8 식중독 |
| 9 노폐물 | 10 미생물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인과 | 6 정의 | 7 구분 | 8 비교 |
| 9 분석 | 10 ㉣ | | |

확인 문제

- | | | | |
|-----|-----|-----|-----|
| 1 ㉠ | 2 ㉡ | 3 ㉣ | 4 ㉢ |
|-----|-----|-----|-----|

(2) 설명하는 글 쓰기

본문 188~190쪽

어휘 시험

- | | | | |
|--------|---------|--------|--------|
| 1 간략하다 | 2 결속하다 | 3 확립하다 | 4 간주하다 |
| 5 침범하다 | 6 공동체 | 7 짜임새 | 8 외이도염 |
| 9 정체성 | 10 줄다리기 | | |

꼭지 시험

- | | | | |
|---------|------|------|------|
| 1 × | 2 ○ | 3 ○ | 4 ○ |
| 5 예상 독자 | 6 주제 | 7 매체 | 8 개요 |
| 9 ㉢ | 10 ㉢ | | |

확인 문제

- | | | | |
|-----|-----|-----|-----|
| 1 ㉣ | 2 ㉠ | 3 ㉤ | 4 ㉠ |
|-----|-----|-----|-----|



정답과 해설



중등국어 2-1



정답과 해설



1. 나를 키우는 읽기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본문 2~9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배고픔, 추위, 기침
03 (1) 서자 (2) 위로받았다 04 만병통치약

문제 맞보기

- 01 ③ 02 ⑤ 03 ④

내공 확인 문제

-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책 읽기 06 ③ 07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③ 02 ⑤ 03 ① 04 ⑤
05 ③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마니아
05 저장 06 끼니 07 벼슬 08 통창하다
09 독서삼매 10 ㉡

핵심 체크

01 (1)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는다.

(2) 읽기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읽기 계획 세우기, 학급 문고 및 지역 도서관 활용하기, 독서 토론 및 독서 캠프 참여하기, 독서 감상문 작성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02 '이덕무'는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픔을 잊을 수 있고,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퍼져 추위를 잊을 수 있고,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므로 책 읽기가 유익하다고 하였다.

03 (1) '이덕무'는 양반이기는 하지만 서자 출신이었다. 그는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양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다.

(2) '이덕무'는 지극히 슬픈 일이 닥쳐 온 사방이 막막할 때에도 한 권의 책을 들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었다고

하였다. 즉 그에게 책 읽기란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04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의 글쓴이는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글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 맞보기

01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나 교양을 쌓게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이덕무'는 책 읽기의 유익함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픔을 잊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퍼져 추위를 잊게 되는 것이며(①), 세 번째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고(②, ④), 네 번째로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는 것이다(③). '이덕무'가 책을 읽음으로써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책 읽기를 통해 끼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3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다스리듯이, '이덕무'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내공 확인 문제

01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책 읽기에 열중하였던 '이덕무'의 삶을 바탕으로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글쓴이는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라고 독자에게 질문한 다음, 이어서 그 답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은 문답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친구들'과 같이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글 전체에서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다)에서 글쓴이가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열거법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가까이했던 ‘이덕무’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에서 글쓴이가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 더 힘들고 더 읽기가 싫지?”라고 말한 부분에서 독자가 겪었을 법한 책 읽기와 관련한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참고 자료】 문답법과 열거법

문답법	변화하여 표현하기의 하나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써서 문장의 흐름에 색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㉔ 우리는 왜 습지의 소실을 걱정하는가? 첫째,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이다.
열거법	강조하여 표현하기의 하나로, 비슷하거나 유사한 어구나 단어들을 여러 개 연결하여 늘어놓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방법 ㉔ 우리의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02 ‘이덕무’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양반과 양민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양반 신분이라서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어 답답해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가 되어 준 책 읽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덕무’가 책을 읽은 후에 소감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라)에서 ‘이덕무’가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 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이 멎게 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책 읽기가 몸을 건강하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ㄱ). 또한 ‘이덕무’가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온갖 상념이 사라진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책 읽기가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이덕무’는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오히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지만 벼슬을 할 수 없어 괴로운 마음에 책을 읽기도 하였다.
ㄹ. 책 읽기가 덕망을 높여 줄 수는 있지만, (라)에서 ‘이덕무’가 제시한 책 읽기의 유익함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04 글쓴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책 읽기에 열중했던 ‘이덕무’의 말을 인용하여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책 읽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는 한편, 책 읽기를 생활화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05 서술형 (가)에서 ‘이덕무’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었다고 하였다. 즉 ‘이덕무’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이다.

06 ㉔에서 글쓴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정해 두라고 한 이유는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걱정이나 근심을 잊을 수도 있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07 글쓴이가 (바)에서 책 읽기가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를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④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 기르기

글쓴이는 ‘글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에 비유하여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읽는 이에게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책 읽기를 생활화하기를 당부한 것이라 한다.

내용 심화 문제

01 (다)에서 ‘이덕무’가 서자 출신이라 벼슬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위로받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 하였다. 책 읽기는 그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이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등 우리가 책을 읽는 다양한 까닭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는 ‘이덕무’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④ (라)는 예전에 읽었던 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는 글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에 비유함으로써 책 읽기의 가치를 제시하고 책 읽기를 생활화하자는 글쓴이의 당부를 드러내고 있다.

02 ‘이덕무’는 ‘간서치’라고 불릴 만큼 책 읽기를 생활화한 사람이었다. ⑤는 책의 가치를 평가하여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덕무’의 책 읽기 습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03 ㉔은 오직 책 읽는 것에만 열중한 ‘이덕무’에게 붙여진 별명으로, 지나치게 책을 읽는 데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04 글쓴이는 누군가 자신들의 역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무 세계에서 소임을 다하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보며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으며,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글쓴이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여유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글쓴이는 세상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글쓴이는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한 나무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④ (바)에서 글쓴이는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겠다고 하였다.

05 <보기>의 '민재'는 글을 상상하며 읽으니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세민'은 자신이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민재'는 ㉠의 가치를, '세민'은 ㉡의 가치를 발견하며 글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어휘 문제

01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뜻하는 말로, '상품 가치',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와 같이 쓰인다.

02 '상념'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뜻하는 말로, '그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한동안 상념에 잠겨 있었다.'와 같이 쓰인다.

03 '책벌레'는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형은 언제나 책만 보는 책벌레이다.'와 같이 쓰인다.

04 친구가 인형을 무척 좋아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마니아'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우리 집에서는 어떤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건들을 옥상 창고에 가져다 둔다는 맥락이므로,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함.'을 뜻하는 '저장'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그가 무엇을 거르면서까지 연구 과제를 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맥락이므로,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을 뜻하는 '끼니'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이덕무'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록 학식이 높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맥락이므로,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벼슬'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통창하다'는 '시원스럽게 넓고 환하다.'를 뜻하는 낱말이고, '우련하다'는 '형태가 약간 나타나 보일 정도로 희미하다.'를 뜻하는 낱말이다.

09 '독서삼매'는 '다른 생각은 전혀 아니 하고 오직 책 읽기에만 골몰하는 경지.'를 뜻하는 낱말이고, '만병통치약'은 '온갖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약이나 처방.',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낱말이다.

10 '등화가친(燈火可親)'은 '등불을 가까이할 만하다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밤에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르는 말이다. ①은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의미이며, ③은 '위편삼절(韋編三絶)'의 의미이다.

(2)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본문 10~17쪽

핵심 체크

01 부정부패, 기부
03 (1) ○ (2) ×

02 문제와 해결 방법
04 (1) 특성 (2) 핵심 정보

문제 맞보기

01 ⑤ **02** ③ **03** ⑤

내공 확인 문제

01 ① **02** ⑤ **03** ④ **04** ①
05 ④ **06** ①

내공 심화 문제

01 ② **02** ④ **03** 듣는 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를 소개해 줌으로써,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4 ⑤ **05** ④ **06** ④ **07** 박물관을 견학한 시간의 순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어휘 문제

01 생각 **02** 원인이 **03** 가격을 **04** 약용해서
는 **05** 분포 **06** 기아 **07** 비율
08 통계 **09** ③ **10** ③

핵심 체크

01 이 발표문에서는 기아 문제의 원인을 크게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의 문제로 분석하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를 제시하여 청중의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02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발표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목적 및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민이네 모듬'에서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였다.

03 (1) '세계 기아 실태 지도'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에서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여, 청중이 이어질 내용에 집중하도록 한다.

04 (1)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목적 및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상을 소개하는 발표를 할 때에는 대상의 구조나 쓰임, 외형 등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을 보고하는 발표를 할 때에는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표, 그래프, 사진이나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자료의 핵심 정보를 이끌어 내어 발표에 활용해야 한다.

문제 맞보기

01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은 기아 문제를 다룬 ‘장 지글러’의 책을 읽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준비한 발표이다. 즉 청중에게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내용 기르기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야. 이 글은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및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발표문이야.

02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서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 세계 식품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오답 풀이 ① 이 자료에 따르면 식량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 이를 통해 식량 부족이 기아 문제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이 자료는 식품 생산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식품 생산을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자료를 통해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은 알 수 없다. 이는 이 발표에서 제시하는 ‘세계 기아 실태 지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이 자료에서는 식품 공급 운송 체계와 기아 문제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

03 발표를 할 때에는 청중에게 무조건 많은 정보를 알려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신뢰성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내용 확인 문제

01 발표문을 점검할 때에는 ‘발표 내용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가?’,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는가?’,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등을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발표문의 주제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㉔은 앞으로 설명할 ‘기아 문제의 원인’이 발표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장 지글러’의 책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 ‘장 지글러’의 책을 읽고 발표자가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발표의 동기를 밝힌 것이다.

② ㉔: 청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보릿고개’라는 말의 뜻을 물어봄으로써 청중에게 자연스럽게 기아 문제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③ 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인 ‘세계 기아 실태 지도’를 바탕으로 기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④ ㉔: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기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발표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3 ㉔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공급량이 충분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발표자는 기아 문제의 원인이 식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줌으로써, 이어질 내용인 기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㉔는 ‘세계 기아 실태’를 보여 주는 지도이고, ㉔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을 보여 주는 그래프로, 모두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② ㉔와 ㉔ 모두 출처가 분명하고,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이므로 발표 내용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③ ㉔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드러낸 것으로,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여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㉔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그런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04 (가)~(다)에서 발표자는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사막화 현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㉔은 ‘부정부패’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㉔은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05 (바)에서 발표자는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와 같이 청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일부 지배 계층이 다양한 구호 물품을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부를 할 때에는 구호 단체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기부해야 한다. 또한 될 수 있는 한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 좋다.

06 (다)의 사진 자료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닷을 드러낸 호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청중이 사막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도와준다.

【참고 자료】 자료의 종류 및 활용 방법

시각 자료	• 도표, 그림, 사진 등 •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 과정을 제시할 경우
청각 자료	• 소리, 음악 등 • 구체적인 소리나 음악을 예로 들어 설명할 경우
복합 자료	•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을 제시할 경우

01 (바)에서 발표자는 기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와 같이 청소년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인 청중이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현재 식량이 부족한 나라 중에는 전쟁을 겪는 나라도 많아, 날이 갈수록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일부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거나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④ (바)에서는 '만 원의 기적 캠페인'이라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만 원이면 무려 기아 문제를 겪는 5인 가족에게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현재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자기 나라의 땅에서 식량을 일구기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다른 나라의 식량조차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02 이 발표문은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즉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 조직 방법으로 구성하기에 적절한 발표 주제는 '우리나라 미세 먼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 소개'는 대상의 구조나 외형 등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우포 늪을 여행한 후에 느낀 소감'은 시간적,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또는 우포 늪에서 볼 수 있는 경치나 여러 동식물을 종류별로 소개한 다음, 그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③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보고'는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를 조사한 동기를 먼저 제시한 다음, 조사 방법과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시 위험도 실험'은 실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 자료] 내용 조직 방법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하려면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알맞게 조직해야 함.

대상을 소개할 때	대상의 구조나 쓰임, 외형 등에 따라 구성함.
사건을 소개할 때	시간의 순서나 공간의 이동,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을 보고할 때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03 서술형 (바)에서 제시한 영상은 한 구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한 달에 만 원만 기부해도 5인 가족에게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표자는 듣는 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 단체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얻은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듣는 이의 행동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

04 ㉠의 앞부분은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4년~2016년에는 약 125 퍼센트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05 ㉠은 '법정 스님'이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기아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생각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발표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지, 발표 내용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청중이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다.

⑤ ㉠은 발표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지, 발표자와 다른 생각을 전하는 말이 아니다.

06 이 발표의 목적은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는 발표의 목적에 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부분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② '가운데' 부분의 '플라스틱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플라스틱이 잘 분해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가운데' 부분의 '플라스틱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플라스틱이 해양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가운데' 부분의 '플라스틱의 정의와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하는 바다 오염 실태 제시'에서 폐기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짐으로써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내공 기르기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정한 다음,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발표할 내용을 마련해야 해. 이렇게 마련한 내용은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하지. 또한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제시하려는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해. 아무리 좋은 자료이더라도 발표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이 없다면, 발표자가 말하려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야.

07 서술형 박물관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박물관을 견학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시간의 순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가 기준	확인
내용 조직 방법 중, 시간의 순서나 공간적 이동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썼다.	☐

어휘 문제

01 '감각'은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뜻하는 말이고,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문장에는 '생각'이 적절하다.

02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말이고,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문장에는 '원인이'가 적절하다.

03 '가격'은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을 뜻하는 말이고,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문장에는 '가격을'이 적절하다.

04 '선용하다'는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쓰다.'라는 뜻이고, '악용하다'는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문장에는 '악용해서는'이 적절하다.

05 '분포'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음.'을 뜻하는 말로, '인구 분포', '버스, 지하철 노선의 분포'와 같이 쓰인다.

06 '기아'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는 것.'을 뜻하는 말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기아와 궁핍에 떨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07 '비율'은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比).'를 뜻하는 말로, '국산화 비율이 증가하였다.'와 같이 쓰인다.

08 '통계'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통계 자료', '지역별 통계'와 같이 쓰인다.

09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은' '보릿고개'이다. '거식증'은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 증상.'을 뜻하는 말이고, '영양실조'는 '영양소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이상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10 제시된 예문에서 사용된 표현인 '식량(食糧)'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거리.'를 뜻하는 말이다. '음식을 탐냄.'은 '식탐'의 뜻이고, '음식을 먹는 분량.'은 '식량(食量)'의 뜻이다. '음식을 먹을 기회를 잘 만나게 되는, 타고난 복.'은 '식복'의 뜻이다.

2.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본문 18~25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뜻, 표현 **03** (1) 상황 맥락 (2) 공동체, 사회·문화적 **04** 세대



문제 맞보기

- 01** ③ **02** ④ **03**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③ **02** ①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⑤



내공 심화 문제

-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을 할 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06** ⑤ **07** ② **08** ③
09 ④



어휘 문제

- 01** 유권자 **02** 맥락 **03** 호소 **04** 횡단
05 양심 **06** 탄압 **07** 문구 **08** ②
09 방언

핵심 체크

01 (1) 담화란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문장)나 발화(문장)의 연속체를 말한다.

(2) 담화는 담화 참여자(말하는 이와 듣는 이 또는 글쓴이와 읽는 이)와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02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는 담화 참여자로서, 담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담화 참여자는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03 (1) 상황 맥락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킨다.

(2)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담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및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을 가리킨다. 지역·세대·문화·역사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04 <보기>에서 '딸'은 '남아서 공부하다.'를 줄인 말인 '남아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아버지'는 이 표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해하였다. 즉, '딸'은 어른 세대인 '아버지'가 젊은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줄인 말을 잘 모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아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문제 맞보기

01 ‘담화’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성된다.

02 배를 옮겨주고 양호실에 온 학생에게 양호 선생님이 건넨 말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왔니?”라는 말은 학생에게 양호실에 온 용건이나 어디가 아픈지 묻는 말임을 알 수 있다.

03 이 일기를 쓴 외국인은 ‘이모’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임을 몰라 한국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내공 확인 문제

01 담화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발화나 문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담화 참여자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주고받는 모든 발화나 문장 또는 그 연속체를 가리킨다.

02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왔어?”라고 한 ‘세민’의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체험 활동 장소에 왔는지 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 대답해 주어야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

03 ㉠은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다친 팔이 괜찮은지 묻는 말인 반면에, ㉡은 점원의 입장에서 손님에게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를 묻는 말이다. 즉, 두 사람의 관계가 ‘의사-환자’의 관계에서 ‘손님-점원’의 관계로 변하였기 때문에 ㉠과 ㉡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것이다.

04 (가)에서 엄마의 말은 늦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질책하는 말로, 어서 일어나라는 뜻이다. 반면에 (나)에서 엄마의 말은 계임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아들을 질책하는 말로, 계임을 그만하고 어서 자라는 뜻이다. 이처럼 같은 말인데도 그 뜻이 달리 해석되는 것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05 안전선 밖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안전 문제와 관계된 것일 뿐, 개인의 양심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해수욕장에 쓰인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뜻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지하철역에 쓰인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차를 지키거나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뜻, 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뜻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시험장에 쓰인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건널목에 쓰인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는 뜻, 쓰레기를 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뜻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도서관에 쓰인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는 책을 훔치지 말라는 뜻, 책을 함부로 찢지 말라는 뜻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리킨다. 지역이나 세대, 성별과 같은 요소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가 있다.

[참고 자료] 상황 맥락

시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간

담화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담화의 뜻, 표현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잘 봐라.”라는 말은 시험장 앞에서는 “시험을 잘 쳐라.”라는 뜻으로, 집에서는 “집을 잘 지켜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07 지역 방언은 그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안내문에 지역 방언과 함께 표준어로 풀이해 놓음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내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내공 기르기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나 분위기 등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지역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면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방언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지역 방언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표준어나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해.

08 (가)에서 ‘딸’은 어른 세대인 ‘아빠’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서 흔히 쓰는 ‘남아공(남아서 공부하다)’과 같은 줄임 말을 사용하였다. 즉, 두 사람은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나)에서 손님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정구지’와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였다. 즉, 두 사람은 지역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09 이 연설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 차별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설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설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설을 할 당시의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청중의 수, 나이, 지식수준은, 이 연설자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또는 청중이 이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이 연설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연설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이 연설문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이 연설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 어떤 나라들이 참가하였는지 조사하는 것은 이 연설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아파트헤이트'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② 이 연설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이 연설자가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당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이 연설자가 연설을 하게 된 동기 및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④ 당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이 연설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가)~(다)의 담화에 쓰인 “어떻게 왔어?”라는 말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처지,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말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공 기르기

(가)~(다)의 발화에서 동일한 발화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하면 말이나 글의 뜻이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02 (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왔어?”라는 ‘윤하’의 질문은 미처 알려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시회에 왔는지를 묻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전시회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고 대답한 ⑤가 적절하다.

03 (가)는 학생이 양호실에 찾아가는 상황이므로, ④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친구에게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묻는 상황이므로, ⑥는 ‘무엇을 타고 왔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04 ①~④는 모두 ‘신발 가게’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담화이다. 따라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의 뜻이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신발이 진열되어 있는 장면과 남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신발 가게임을 알 수 있다.
- ②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②에서 여자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은 의사의 입장에서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묻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③ 남자의 직업이 신발 가게 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③에서 남자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은 점원의 입장에서 신발이 고객의 발에 잘 맞는지 묻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④ ①은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묻는 말이며, ①은 신발이 고객의 발에 잘 맞는지 묻는 말이다.

05 서술형 (가)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나도록 자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나)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게임을 그만하

고 어서 자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처럼 같은 말일지라도 말하는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말의 의미가 달리 이해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썼다.	☐
‘시간’이 담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 썼다.	☐

06 <보기>의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모’나 ‘언니’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종종 쓰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말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⑤이다.

- 오답 풀이** ① 같은 대상을 나타내지만, 지역에 따라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례이다.
- ②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③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④ 같은 표현이더라도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참고 자료]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말이 달라짐. 예 ‘부추’를 경상, 전북, 충청에서는 ‘정구지’라고 표현함.
세대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짐. 예 젊은 세대는 ‘버카츄, 문상, 열공’과 같은 줄인 말이나 온라인상의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문화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함. 예 뜨거운 탕 요리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역사적 상황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 역사적 상황과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사회·문화적 맥락은 특정한 공동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고려했더라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07 제시된 안내문에는 지역 방언으로 된 안내와 표준어로 풀이한 안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방언으로 해당 지역의 특색이나 정서, 분위기를 드러내는 한편, 표준어 풀이를 제시하여 해당 지역의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08 이 대화가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민재’와 ‘지우’가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담화는 ‘사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담화의 사교 기능이란 친근감이나 미안함 등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담화의 기능

제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 ㉠ 뉴스, 보고서 등
호소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 광고문, 연설문 등
약속	일정한 행위를 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기능 ㉢ 서약서, 계약서 등
사교	친근감이나 미안함 등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 ㉣ 인사말, 문안 편지, 조문 등
선언	세상에 어떤 새로운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 ㉤ 임명장, 판결문 등

어휘 문제

- 01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은 '유권자'이다.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뜻한다.
- 02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뜻하는 말은 '맥락'이다. '문맥'은 '글월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을 뜻한다.
- 03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킴.'을 뜻하는 말은 '호소'이다. '제보'는 '정보를 제공함.'을 뜻하는 말이다.
- 04 제시된 문장은 함부로 도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므로, '도로나 강 따위를 가로지름.'을 뜻하는 '횡단'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5 제시된 문장은 얼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냈다가 죄책감을 느꼈다는 뜻이므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뜻하는 '양심'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제시된 문장은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뜻이므로,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꺾지 못하게 함.'을 뜻하는 '탄압'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제시된 문장은 광고의 재치 있는 표현이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이므로, '글의 구절.'을 뜻하는 '문구'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8 '담화'는 1.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 2.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3.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뜻한다. '설화'는 '있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실처럼 재미있게 말함. 또는 그런 이야기.'를,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을, '승화'는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을 뜻한다.
- 09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뜻한다.

(2) 의미를 나누는 듣기·말하기

본문 26~33쪽



핵심 체크

- 01 창조, 공유 02 ㉠ 03 (1) ○ (2) ○ (3) × 04 (1) 운동화 (2) 처지 (3) 포기



문제 맞보기

- 01 ㉡ 02 ㉡ 03 ㉡



내공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평화로운 전쟁



내공 심화 문제

- 01 ㉣ 02 ㉣ 03 ㉡ 04 ㉣
05 ㉣ 06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07 ㉡ 08 ㉡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
05 유통 기한 06 지식수준
07 울타리 08 협력적 09 ㉡ 10 ㉢

핵심 체크

- 01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의 상황, 지식수준, 참여자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는 듣기·말하기 활동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협력적으로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02 이 강연자는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지만, 청중인 남학생은 설명 내용 중 '전탑'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이 강연자는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 03 (1)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에서 '아들'이 울타리의 의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자, '아빠'는 울타리를 만드는 다양한 동식물을 예로 들어 울타리가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울타리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2)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에서 '아빠'는 '아들'이 울타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울새, 나무, 여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3)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에서 '아빠'는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들'이 울타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를 들어 주고 있다. 또한 '아들'은 '아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대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

여하고 있다.

04 (1) ‘엄마’는 ‘차은’에게 운동화를 선물해 주었지만, ‘차은’은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엄마’는 기분이 상해 있는 ‘차은’의 처지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 온 운동화 이야기만 계속 이어갔다.

(3) ‘엄마’는 ‘차은’이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고 계속 짜증만 내자 결국 대화를 더 이어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같이 화를 내었다.

문제 맞보기

01 대화를 나눌 때 화제를 자주 바꾸면, 대화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분위기가 산만해져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02 처음에 ‘아들’은 울타리의 의미를 ‘아빠’와 다르게 생각하였지만, 대화를 진행하면서 울타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세우는 것이라는 ‘아빠’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아들’은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② ‘아빠’와 ‘아들’은 협력적인 태도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 갔으며, 그 덕분에 울타리의 의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다.
③ ‘아들’이 울타리의 의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자, ‘아빠’는 울타리를 만드는 다양한 동식물을 예로 들면서 ‘아들’이 울타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
④ ‘아빠’는 울새, 나무, 여우 등을 예로 들어 ‘아들’이 울타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03 ‘차은’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화를 낸다. 이처럼 ‘차은’이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내공 확인 문제

01 (가)와 (나)는 처음에 같은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여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듣기·말하기 활동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내공 기르기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화제로 대화를 하지. 하지만 그 대화들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아. 같은 화제로 이야기하더라도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화 상대의 관심이나 흥미,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등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 또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즉, 듣기·말하기 활동은 쌍방향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에는 대화 상대와 협력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네.

02 ‘여학생’의 말을 고려할 때, (나)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④와 같이 천일엽의 뜻을 알려 주거나, 함께 그 뜻을 찾아보자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이 강연자는 듣는 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 전답’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내공 기르기

영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친구에게 옛날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느끼지 못해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어렵겠지? 또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도 못한 동생에게 중학교에서 배운 수학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처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상대의 지식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단다.

04 이 만화에서 엄마가 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화제로 이야기를 하여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엄마가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는 아들의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05 ‘아들’은 ‘아빠’의 설명을 들으며 울타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아들’은 처음에 울타리를 마치 전쟁을 하듯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세우는 것,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오답 풀이 ① ‘아빠’는 노래를 부르는 울새, 주변에 소변을 보는 여우 등을 예로 들어, 동물들도 자기 나뭇의 울타리를 세우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중심 화제로 하여, 울타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④ ‘아들’은 처음에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아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울타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⑤ ‘아빠’가 “내가 알기로는 벤저민 플랭클린 테너는 …… 속삭해할 사람이고 말이야.”라고 한 것에서 ‘테너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6 ‘아들’은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며, ‘아빠’는 ‘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빠’는 ‘아들’이 울타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울타리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③ ‘아빠’와 ‘아들’이 모두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였기에, 두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⑤ ‘아빠’는 ‘아들’의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되묻거나, “평화로운 전쟁이야.”라고 ‘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아들’은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동의하는 부분에는 맞장구를 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07 ‘아빠’는 울새, 여우, 나무 등을 예로 들어 울타리가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줌으로써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임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08 서술형 ‘아빠’는 ‘평화로운 전쟁’이라는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울타리가 다른 사람의 땅과 자신의 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

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줌으로써 오히려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공 심화 문제

01 여학생은 남학생의 농담에 재미있어 하면서도,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가)의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나)의 '아들'은 주말에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다)의 '영서'는 처음 만난 '서우'와 빨리 친해지려는 목적으로 농담을 건네고 있다.

03 (다)의 '영서'는 '서우'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 이 때문에 '서우'의 기분이 상하면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강연자는 청중이 학생들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 '전탑', '옥개석'과 같은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연자가 전하려는 바를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 수 없었다는 점에서, 청중과 의미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남학생은 강연과 관련된 정보(강연의 주제)가 부족하여 강연자와 의미를 주고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③, ④ (나)에서 '아들'은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려 하였지만, '엄마'가 거절하자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엄마'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엄마'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모두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 (다)의 '서우'는 '영서'의 농담을 듣고는 기분이 상하여,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라고 말하면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친구의 발화 목적을 먼저 고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돌려 표현하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05 (나)에서 '차은'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사 온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면서,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 이처럼 '차은'이 '엄마'와의 대화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차은'과 '엄마'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달리는 차은」의 전체 줄거리

서울로 전학을 가서 계속 육상을 하고 싶어 하는 '차은'은 이를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다. 우연히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 출신임을 알게 된 '차은'의 친구 '영찬'은 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때문에 '차은'이 놀림을 받게 된다. '아버지'의 반대와 친구들의 놀림으로 기죽을 결심한 '차은'이 '영찬'을 찾아가 돈을 빌리고, '영찬'이 '차은'에게 사과하면서 둘은 화해한다. 가출한 '차은'을 찾아낸 '엄마'는 '차은'을 데리고 서울로 향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차은'은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06 서술형 (가)에서 '아들'은 처음에 '울타리'가 전쟁을 하듯이 자기 걸 지키려고 세우는 것,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은 울타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 줌으로써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울타리의 양면적 의미를 밝혀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7 '차은'은 '엄마'에게 자신의 처지나 심정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채 짜증만 내고 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만 애애틀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하여야 한다는 말인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말은 보태고 댄다'는 속담은 말은 퍼질수록 더 보태어 지고, 음식은 이 손 저 손으로 돌아가는 동안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③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질은 할수록 준다'는 속담은 말은 퍼질수록 보태어 지고, 물건은 옮겨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이다.

④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속담은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속담은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8 ㉠은 '평화롭다'라는 말과 '전쟁'이 모순되는 역설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이 사용된 것은 '소리 없는'과 '아우성'이 모순되는 ㉡이다.

오답 풀이 ① 직유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의인법을 활용하여 '봄바람'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앞 구절의 끝을 다음 구절의 앞에 이어서 표현하는 기법인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다.

⑤ 은유법을 활용하여 책을 마음의 양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역설법

개념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효과	• 읽는 이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함으로써 내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으며, 참신한 느낌을 줌. • 읽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음.
예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 찬란한 슬픔의 봄

어휘 문제

01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뜻하는 낱말은 '영토'로, '영토 분쟁', '영토 확장', '영토 수호'와 같이 쓰인다.

02 '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에 지붕처럼 덮는 돌.'을 뜻하는

날말은 ‘옥개석’으로, ‘이 탑에는 옥개석이 놓여 있다.’와 같이 쓰인다.

03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을 뜻하는 날말은 ‘용어’로, ‘문학 용어’, ‘음악 용어’와 같이 쓰인다.

04 ‘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또는 그런 특성을 가진 대상.’을 뜻하는 날말은 ‘전형’으로, ‘탐관오리의 전형’, ‘전형적 인물’과 같이 쓰인다.

05 제시된 문장은 음식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버리라는 뜻이므로, 빈칸에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 기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제시된 문장은 할아버지의 학력이 비록 낮지만 어떤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알고 있는 내용의 정도, 또는 공부해서 배운 정도.’를 뜻하는 ‘지식수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제시된 문장은 그 집이 담 대신에 다른 무엇을 세웠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풀이나 나무 따위를 엮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을 뜻하는 ‘울타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어떠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이므로, 빈칸에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협력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왈각 성을 내다.’라는 뜻을 지닌 날말은 ‘발끈하다’이다. ‘꺼리다’는 ‘사물이나 일 따위가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피하거나 싫어하다.’라는 뜻이다. ‘정색하다’는 ‘얼굴에 엄정한 빛을 나타내다.’라는 뜻이며, ‘나무라다’는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다.’라는 뜻이다.

10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 날말은 ‘다문화’이다. ‘다양성’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뜻하며, ‘다반사’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자문화’는 ‘어떠한 사람이 속한 나라나 민족의 문화를, 다른 나라나 민족의 문화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3. 개성이 드러난 표현

(1) 창의적인 발상

본문 34~41쪽

핵심 체크 01 (1) ○ (2) × 02 ㉠: 3, ㉡: 시어
03 (1) 잊었노라 (2) 봄 길 04 모순, 진리

문제 맞보기 01 ② 02 ③ 03 ④

내공 확인 문제 01 ①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⑤ 07 봄 길 08 ③
09 ①

내공 심화 문제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08 ⑤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내면
05 역설 06 ③ 07 ④ 08 ②

핵심 체크

01 (1) 「면 후일」에서 말하는 이는 “면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면 훗날에 ‘당신’이 말하는 이를 찾아온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이별한 ‘당신’을 그리워하는 애뜻하고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봄 길」은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면 후일」은 ‘면 훗날’과 ‘당신이’와 ‘찾으시면’과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한다. 또 ‘……면 ……잊었노라’와 같은 구조의 문장과,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1) 「면 후일」의 각 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잊었노라’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당신’을 향한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2) 「봄 길」에서 ‘길이 끝나는 곳’은 절망적인 공간을 나타낸다. 반면 ‘봄 길’은 희망의 공간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04 ‘역설’은 겉으로는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식을 말한다. 역설을 통해 읽는 이가 스스로 의미를 찾게 하여 내면의 의미를 강조하고 참신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읽는 이의 인식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상식을 초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한다.

문제 맛보기

01 「먼 후일」의 1연에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볼 때, 말하는 이는 지금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신’은 ‘말하는 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입과 이별한 상태로, 떠나려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떠나려는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먼 후일」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돌아온 먼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면서, ‘당신’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일을 체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먼 후일」에는 떠난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을 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먼 후일」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돌아온 먼 미래의 상황만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을 뿐,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02 「먼 후일」은 전통적인 3음보의 민요적 가락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ㄱ). 그리고 1연부터 3연까지 ‘……면 …… 잇었노라’의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 변형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ㄴ). 또한 ‘먼 훗날’, ‘당신이’, ‘잇었노라’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ㄷ. 「먼 후일」에 명령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ㄴ. 음성 상징어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낸 의태어, 의성어를 가리킨다. 음성 상징어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먼 후일」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운율의 개념과 효과

운율의 개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운율의 형성 방법	같거나 비슷한 낱말이나 구절,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형성됨.
운율의 효과	• 시에서 호흡을 부드럽게 해 줌. •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드러내 줌.

03 「봄 길」에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 시구는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내공 확인 문제

01 이 시는 반어 표현과 가정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잇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여 ‘당신’을 향한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ㄱ). 이 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과 같이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당신’을 그리워하는 말하는 이의 심정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1연에서부터 마지막 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즉, 말하는 이의 감정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ㄴ. 수미상관의 구조란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먼 후일」에는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02 [A]의 ‘잇었노라’는 미래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기>는 이를 ‘잊지 못하리라’라고 바꾸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A]에 비해 말하는 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강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말하는 이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보기>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④ 말하는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 시에도, <보기>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⑤ [A]를 <보기>와 같이 고치면 시구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서로 같아진다.

03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먼 훗날 찾아올 ‘당신’을 향해 ‘잇었노라’라고 원망하듯 말하고 있지만, 이는 ‘당신’을 진정으로 원망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당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를 바란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먼 훗날 돌아왔을 때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당신’이 말하는 이를 질책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즉, ‘당신’이 자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를 직접적으로 꾸짖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먼 미래에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는 이가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말하는 이는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먼 후일에 돌아온 ‘당신’에게 ‘당신’을 잊었노라 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진심으로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라고 말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④ <보기>의 말하는 이가 “다신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는데 / 언제까지 내 맘은 아플까.”라고 말한 데에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 자신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길이 있다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봄 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와 같이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내용 전개상 ‘1행~6행’, ‘7행~9행’, ‘10행~14행’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이 시는 '있다, 보라' 등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라'는 시상을 전환하는 한편, 명령형으로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도이 있다'와 같은 구조의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길이 끝나고 사랑이 끝난 곳에도 길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공포 전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는 학생에게 ⑤와 같이 말해 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7 서술형 '길이 끝나는 곳'은 절망적인 공간을, '봄 길'은 희망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이 둘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봄 길'은 희망의 공간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길'은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긍정적, 희망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봄 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말하는 이의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08 ㉠은 자연물인 '강물', '새들', '꽃잎'을 통해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길이 끝나는 곳'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즉, 사랑이 끝나 버린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말하는 이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고, 스스로 '봄 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즉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라'는 말하는 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진실을 바라볼 것을 명령적 어조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부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뒷부분의 희망적인 상황으로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삶의 고통을 이겨 내려는 사람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09 ㉠은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①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퍼하고 있는 반어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③ '찬란한 슬픔의 봄'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④ '고와서 서러워라.'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⑤ '소리 없는 아우성'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내공 심화 문제

01 (가)의 말하는 이는 '나'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반면에, (나)의 말하는 이는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말하는 이는 '있었노라'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도,이 있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다)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그림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며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
- ⑤ (가)의 말하는 이가 먼 미래에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의 말하는 이가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이라고 말한 데에서 '당신'과 이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가)는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 '그때에 ∨ 내 말이 ∨ 있었노라 ∨'와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반복하고, 같은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먼 훗날'	'봄 길'
• 3음보의 율격 • 유사한 문장의 반복과 변형 • 시어의 반복	유사한 문장의 반복

03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이 자신을 찾아올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노라'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이 적절하다.

04 (가)의 말하는 이는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먼 훗날 '당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말하는 이는 임과 이별해야 하는 슬픈 상황에서도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말하는 이가 먼 미래에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말하는 이가 사랑하는 임이 떠날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주겠다고 한 것에서, 말하는 이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가)의 말하는 이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말하면서, 먼 미래에 '당신'이 다시 돌아온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보기>의 말하는 이는 "나 보기가 여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고 말하면서, 임이 떠나는 순간을 가정하고 있다.
- ③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임이 떠나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가)의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보기>의 말하는 이는 임이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5 (나)의 말하는 이는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듣는 이가 어떠한 행동을 같이하자고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흐르다가 멈춘 강물,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새들, 흩어져 버린 모든 꽃잎들과 같이, 자연물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나)의 말하는 이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④ (나)의 말하는 이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의 말하는 이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길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6 (가)의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겠다고 한 것은 '당신'을 정말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잊지 못하고 '먼 훗날' '당신'을 만난 순간까지도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7 서술형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뜻한다.

평가 기준	확인
시에 드러난 상황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정확히 썼다.	☐
'.....하지 않고하는 사람이다.'의 문장 형식으로 썼다.	☐

08 <보기>의 밑줄 친 표현은 동생의 잘못을 반어적으로 꾸짖는 말이다. 이러한 반어 표현을 활용한 것은 ㉠~㉣이다. ㉤은 '당신'을 잊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진솔하게 드러낸 표현일 뿐,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어휘 문제

01 '개성'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뜻하는 말로, '개성 있는 옷차림.', '개성이 강하다.'와 같이 쓰인다.

02 '발상'은 '어떤 생각을 해 냄. 또는 그 생각.'이라는 뜻으로, '발상의 전환.', '시대착오적 발상.'과 같이 쓰인다.

03 '모순'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모순을 드러내다.',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다.'와 같이 쓰인다.

04 소설을 쓰는 일이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무엇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뜻하는 '내면'이 들어가야 한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그의 행동으로 보아 어떤 변화와 동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한편 '외면'은 '말이나 하는 것이 겉에 드러나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사람은 외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쓰인다.

05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은 무엇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

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하는 '역설'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반어'는 '원래의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06 '나무라다'는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다.'라는 뜻이다. '꾸짖다, 꾸중하다, 질책하다'는 '나무라다'와 바꾸어 쓸 수 있으나, '사무치다'는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꾸짖다'는 '주로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게 나무라다.'라는 뜻이다. '꾸중하다'는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다.'라는 뜻이다. '질책하다'는 '꾸짖어 나무라다.'라는 뜻이다.

07 '저버리다'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저버리다'의 뜻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리를 잊거나 어기다.'이다. '약속을 저버리다.'와 같이 쓰인다. ①의 '등지거나 배반하다.'의 뜻으로 '저버리다'가 쓰인 예에는 '우리의 경우는 가정을 저버려야 애국자요, 충신이였다.'가 있다. ②의 '남이 바라는 바를 거절하다.'의 뜻으로 '저버리다'가 쓰인 예에는 '더 있다 가라는 그의 호의를 저버리기 어려웠다.'가 있다. ③의 '(완곡한 표현으로) 목숨을 끊다.'의 뜻으로 '저버리다'가 쓰인 예에는 '그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 마침내 목숨마저 저버리고 말았다.'가 있다.

08 '훗날'은 '시간이 지나 뒤에 올 날.'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한편 ①의 '앞으로 닥쳐올 날.'은 '앞날'의 뜻이고, ③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 바로 앞 날.'은 '전날'의 뜻이며, ④의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를 막연히 이르는 말.'은 '옛날'의 뜻이다.

(2) 비판적인 표현

본문 42~49쪽

핵심 체크

- 01** (1) × (2) ○ (3) ○ **02** 일본, 미국, 기회주의적
03 (1) 어린이 (2) 이상한, 부정적
04 (1) ④ (2) ④

문제 맛보기

- 01** ③ **02** ③ **03** ① **04** ⑤

내공 확인 문제

-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뽀박 박 선생님은,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06 ⑤

내공 심화 문제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 지방의 탐관오리, ㉡: 힘없는 백성, ㉢: 중앙의 고위 관료 **07** ⑤

어휘 문제

- 01** ㉠ **02** ㉡ **03** ㉢ **04** ㉣
05 어혈 **06** 소견 **07** 낙방 **08** 정기
09 ③ **10** ②

핵심 체크

- 01** (1) 이 글의 서술자는 ‘박 선생님’이 키가 작고 웅크리고 화를 잘 내는 인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키가 크고 순하게 생긴 사람은 ‘강 선생님’이다.
- (2) ‘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면서 싸우는 학생들에게도 일본 말로 싸우지 않았다고 나무랄 정도로, 학생들에게 일본 말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 (3) ‘강 선생님’은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평소와 다르게 들이 날뛰면서 조국의 독립을 기뻐하였다.

02 ‘박 선생님’은 광복 전에는 일본군 지원병에 혈서로 지원을 하고, 일본 말만을 사용하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친일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는 그토록 찬양했던 일본을 비난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칭송하는 한편, 미국에 협력하며 미국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박 선생님’의 태도가 변한 까닭은, 시류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이 기회주의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3 (1) 이 글의 서술자는 초등학교생인 ‘나’이다. ‘나’는 해방이라는 말의 뜻도 모를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이다.

(2) ‘박 선생님’은 광복 이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 광복 이후에는 미국을 찬양한다. 서술자는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박 선생님’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선생님’이라고만 여긴다. 작가는 그저 ‘박 선생님’을 ‘이상한 선생님’이라고만 여기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시선을 통해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04 (1) 풍자란 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2) 「이상한 선생님」의 작가는 ‘박 선생님’의 말과 행동, 외모 등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박 선생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끔 유도하고 있다.

문제 맛보기

01 「이상한 선생님」은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박 선생님’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이상한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이상한 선생님」의 서술자는 ‘나’로, 어수룩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이다.
- ④ 「이상한 선생님」의 서술자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양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두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상한 선생님」의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인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의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과 내면 의식까지 직접 이야기함.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그에 대해 이야기함.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이야기함.
	작가 관찰자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이야기함.

02 ‘박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03 「이상한 선생님」에서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은 웅크리고 화를 잘 내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강 선생님’은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며 온순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04 풍자는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할 수 있고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풍자의 개념 및 효과

개념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것
효과	읽는 이와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부정적인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내용 확인 문제

01 (마)를 통해 ‘강 선생님’은 일본 선생님들이나 ‘박 선생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학생들에게 되도록 조선말만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나’는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나’는 ‘박 선생님’이 키가 매우 작아서 ‘뽀뽀’ 또는 ‘뽀뽀’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고, (나)에서 몸집에 비해 머리가 매우 커 ‘대갈장군’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가)에서 ‘나’는 ‘박 선생님’이 일본 정치 때에 지원병에 지원하였지만 키가 작아서 낙방하고 말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④ (라)에서 ‘박 선생님’이 조선말로 싸움을 하는 학생들에게 일본 말로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고 서술한 것에서, ‘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본 말 사용을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성격, 일본 말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을 대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03 ㉠에서 ‘박 선생님’은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조전말을 쓴 것만 나무라고 있다. 이는 ‘박 선생님’이 일본 말 사용을 강요하는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말만을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

직접 제시	• 말하기: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해 줌. ㉡ 뒷부분에서 ‘나’가 ‘대석 언니’의 성격을 말해 주는 부분: “대석 언니는 뚱뚱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들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맡고, 반에서 성격은 제일 꼴찌인 천하 말썽꾼이었다.”
간접 제시	• 보여 주기: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이나 심리를 보여 줌. ㉢ 발단에서 ‘박 선생님’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박 선생님’의 웅장하고 사나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04 이 글의 서술자는 힘이 센 쪽에 붙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의 작가는 ‘박 선생님’처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5 서술형 ‘박 선생님’은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강 선생님’의 회유에 못 이기는 척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한다. 이처럼 ‘박 선생님’이 태극기를 그린 것은 조국이 해방되고 일본이 패망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썼다.	☐
처음과 끝의 세 어절씩 각각 썼다.	☐

06 ‘박 선생님’이 미국 병정을 도우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에서, ‘박 선생님’이 미국 말을 공부한 이유가 힘이 센 쪽에 붙어 이익을 얻으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심화 문제

01 (가)~(마)에서는 ‘박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바)에서는 ‘두꺼비’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바)에 등장하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 각각 지방의 탐관오리, 힘없는 백성, 중앙의 고위 관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마)에는 상징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마)에서 ‘박 선생님’이 미국의 대통령을 가리켜 ‘돌멩이’라고 한 것은 언어유희적인 표현일 뿐, 비유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바)에는 비유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마)와 (바)에는 두 대상을 대조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바)는 대상을 동물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가)~(마)에는 대상을 동물에 빗댄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마)의 ‘나’는 이 글의 서술자로, 해방이라는 말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이다. (가)~(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순진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중심인물인 ‘박 선생’과 ‘강 선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내용 기르기

‘나’는 ‘박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는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개인의 이익을 좇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린아이인 ‘나’는 그저 이상하게만 보일 뿐이야. 그러한 어수룩한 모습에 우리는 미소를 짓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진실되지 못한 ‘박 선생님’의 모습에 분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의 작가는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

03 (라)에서 ‘박 선생님’이 “독립을 시켜 주구 …… 골고루 가져다주지 않아?”라고 한 것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일본이 패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라)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일본이 패망한 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은 아니다.

② (다)에서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당시에 이념적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다)를 통해 이념적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만 나타나 있을 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04 ㉢에서 ‘박 선생님’은 미국을 찬양한 것일 뿐, 미국을 일본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다. (마)에서 ‘박 선생님’이 일본 왕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을 일본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05 (가)~(마)의 ‘박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일본에 붙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국에 붙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힘이 센 쪽에 붙어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속담을 활용하여 ‘박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학생들이 ‘박 선생님’에게 미국에도 일본 왕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박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지 않고 답해 주었다.

② (가)~(마)에는 ‘박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급급해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마)에서 ‘박 선생님’이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라)에서 ‘박 선생님’이 학생들이 미국을 욕하면 엄한 벌을 주었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는 자신이 칭송하는 미국을 욕한 것에 대한 꾸짖음일 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나무란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속담 풀이

-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리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손바닥으로 넓은 하늘을 가린다는 뜻으로,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함을 이르는 말.
-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6 서술형 ‘두꺼비’는 자신보다 힘이 센 ‘백송골’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파리’는 괴롭히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료’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 상징하는 의미를 썼다.	☐
㉡가 상징하는 의미를 썼다.	☐
㉢가 상징하는 의미를 썼다.	☐

07 ㉠은 ‘백송골’에 놀라 도망치다가 두엄 아래 빠져 버린 ‘두꺼비’가 자신이 날뛴어 어혈이 지지 않았다고 자랑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구절이다. 이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린.’을 뜻하는 ‘허장성세’로 나타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감탄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자포자기’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③ ‘초지일관’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을 뜻하는 말이다.
 - ④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어휘 문제

- 01** ‘드러나 보이는 활발한 기운.’을 뜻하는 낱말은 ‘풀기’로, ‘풀기가 죽다.’와 같이 쓰인다.
- 02** ‘다른 것은 없이 온통 한가지로.’를 뜻하는 낱말은 ‘만판’으로, ‘만판 공부만 하니’, ‘만판 여행만 다니니’와 같이 쓰인다.
- 03**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을 뜻하는 낱말은 ‘두엄’으로, ‘외양간 옆의 두엄 더미에서는 늘 귀위한 냄새가 난다.’와 같이 쓰인다.
- 04**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을 뜻하는 낱말은 ‘파면’으로, ‘파면을 요구하다.’, ‘파면을 철회하다.’와 같이 쓰인다.

05 제시된 문장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벅지에 상처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힘, 또는 그 피.’를 뜻하는 ‘어혈’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제시된 문장은 학급 토의 시간에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이 떨린다는 뜻이므로,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을 뜻하는 ‘소견’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제시된 문장은 친구가 학생회장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 위로를 해 주었다는 뜻이므로, ‘시험, 모집, 선거 따위에 응하였다가 떨어짐.’을 뜻하는 ‘낙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의 두 눈에 무엇이 담겨 있어 거짓을 말하기 힘들다는 뜻이므로, ‘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을 뜻하는 ‘정기’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팔꿈치나 발꿈치 따위로 지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은 ‘제기다’이다. ‘경치다’는 ‘혹독하게 벌을 받다.’라는 뜻으로, ‘설레다’는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라는 뜻으로, ‘꺾이다’는 ‘실이나 끈 따위가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져 다른 쪽으로 나오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0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은 ‘코가 빠지다’이다. ‘코가 세다’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으로, ‘코를 빠뜨리다’는 ‘못 쓰게 만들거나 일을 망치다.’라는 뜻으로, ‘코가 납작해지다’는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푹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3)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

본문 50~57쪽



핵심 체크

- 01** (1) × (2) ○ **02** 삭제, 대치, 재구성
03 ㉠: 글, ㉡: 문단 **04** (1) 데리고 왔다. (2) 모른 채하고, 틈새



문제 맞보기

- 01** ② **02** ② **03** ④



내공 확인 문제

- 01** ② **02** ④ **03** ③
04 (마), 글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05 그 후로 **06** ① **07** ⑤
08 하지만 만들레는 일어날 김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09** ⑤
10 ⑤

내공 심화 문제

- 01 ④ 02 (나) - (가) - (라) - (다) - (마),
문단의 순서를 재구성하였다. 03 ⑤
04 ③ 05 ② 06 ②
07 그런데 → 그래서 08 ②

어휘 문제

- 01 곡 02 점 03 역
04 새 05 감언이설 06 틈새
07 부화 08 다행히 09 먹먹하다
10 조르다 11 ③

핵심 체크

01 (1)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고쳐쓰기'는 글쓰기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고쳐쓰기는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즉 글, 문단, 문장, 낱말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2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중 추가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고, 삭제는 특정한 내용을 빼는 활동이다. 그리고 대치는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활동이고, 재구성은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늘이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활동이다.

03 고쳐 쓸 때에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의 순서대로 점검하며 고쳐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지,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04 (1)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데리고 올 것이다'와 같이 미래의 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시간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다. 따라서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왔다.'로 고쳐야 한다.

(2) '모른체하고'에서 의존 명사 '체'에 '-하다'가 결합된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른 체하고'로 써야 한다. '틈새'는 맞춤법에 맞게 '틈새'로 고쳐야 한다.

문제 맛보기

01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횟수에 상관없이 글쓴이가 자신의 글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쳐 쓸수록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고쳐쓰기는 글쓰기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⑤ 고쳐쓰기란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로, 자신이 쓴 글을 글의 주제나 글을 쓴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고쳐쓰기는 크게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고쳐쓰기 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02 줄을 아래로 내려서 바꿀 때는 교정 기호 「」를, 글자를 띄어 쓸 때에는 「」를, 줄을 이을 때에는 「」를, 글자를 뺄 때에는 「」를, 글자를 왼쪽으로 옮길 때에는 「」를 사용한다.

03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어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 문장에 쓰인 낱말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접속어, 지시어가 적절한지,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할 때 점검할 항목에 해당한다.

내공 확인 문제

01 이 글은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과 '민들레'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학생의 글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병아리 '민들레'가 글쓴이의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민들레와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은 허락해 주셨다.'에서 글쓴이는 엄마의 허락을 받고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바)의 '길 틈새에 핀 민들레가 흔들어 주는 것 같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하늘나라에 있는 민들레를 떠올린 것이지, 집에 있는 병아리를 떠올린 것이 아니다.

④ (바)의 '그리고 다음 날 다행히 강아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에서 글쓴이가 집을 잃은 강아지의 주인을 다음 날 찾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의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튼튼하게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길 바라면서 말이다.'에서 글쓴이는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들레'라고 이름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02 <보기>에서는 이 글의 제목인 「민들레」를 읽는 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역설 표현을 사용해서 고치기로 했다. 그러므로 「민들레」와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제목으로 「짧았던, 하지만 영원한 만남」이 적절하다. 나머지 제목에는 역설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03 (라)는 글쓴이가 병아리 '민들레'를 집에 데려온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는 글쓴이가 '민들레'와 함께 지내던 중 '민들레'를 집 안에서 기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라)가 (다)의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다)와 (라)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4 서술형 (마)를 제외한 다른 문단은 모두 병아리 ‘민들레’와의 추억에 관한 내용인데, (마)는 병아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주제와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삭제해야 할 문단을 알맞게 찾아 썼다.	☐
그 문단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다.	☐

05 서술형 (바)에서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즉 (바)는 문단의 중심 내용이 두 가지이므로, 문단을 둘로 나누어야 한다.

06 ㉠에서 글쓰이는 ‘할머니’를 높여 ‘께서’라는 조사를 붙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나누어 주는’이라고 표현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나누어 주시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7 ㉠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를 짧게 고쳐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을 세 문장으로 나누어,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민들레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우리 곁을 맴돌면서 뽀얗뽀얗 노래를 불렀다. 그런 민들레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로 고칠 수 있다.

08 서술형 ㉠에서 ‘전혀’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부사어인데, ‘보였고’라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하지만 민들레는 일어날 김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로 고쳐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도록 고쳐 썼다.	☐

09 ㉡의 ‘다행히’는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다행이’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는 문장의 맥락상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낱말을 써야 하는데, ‘기억’은 이전의 경험을 도로 생각해 내는 것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생각’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의 ‘덮여’는 맞춤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덮여’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의 ‘타이르다’는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주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인 글쓰이가 ‘엄마’에게 때를 쓰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조르기’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의 ‘모질다’는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라는 뜻으로, ‘민들레’가 잘 자라길 바라는 글쓰이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세게, 튼튼하게’로 고쳐 써야 한다.

10 고쳐쓰기를 할 때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의 순서대로 점검을 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문단 수준’이다.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지,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해야 할 내용이다.

【참고 자료】 고쳐쓰기를 할 때 고려할 사항

점검 수준	고려할 사항
글	•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가? • 글의 제목이 적절한가? •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가?
문단	•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가? •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가?
문장	•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가? • 문장에 쓰인 낱말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가? •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낱말	• 문맥에 적절한 낱말을 사용하였는가? • 맞춤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나 고 심화 문제

01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인상 깊게 전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글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은 고쳐쓰기의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 수준에서 고쳐 쓸 때, 글의 주제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쓸 때, 문단의 중심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쓸 때, 문장에 쓰인 낱말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해야 한다.

⑤ 글 수준에서 고쳐 쓸 때,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02 서술형 이 글의 맥락에 맞게 (가)~(마)를 배열하면 ‘(나) - (가) - (라) - (다) - (마)’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고쳐쓰기 일반 원리 중 재구성 활동에 속한다.

평가 기준	확인
문단의 순서를 알맞게 재구성하여 썼다.	☐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중 ‘재구성’을 적용하여 썼다.	☐

03 <보기>의 교정 부호는 줄을 아래로 내려서 쓸 때 사용하므로 이 교정 부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단이 두 개의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마)는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발견한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04 맥락상 ㉠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문장이다. 따라서 ㉢과 같이 '데리고 왔다'를 '데리고 올 것이다'로 고치게 되면 시제가 맞지 않는 문장이 되어, 문장이 어색해진다.

05 <보기>의 설명과 같이 ㉠은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민들레'를 떠나보낸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먹먹하다'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만만하다'는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 '멀쭙하다'는 '지저분함이 없이 흰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 '밀밀하다'는 '아주 뻑뻑하다.'라는 뜻이다.

㉤ '밋밋하다'는 '생긴 모양 따위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라는 뜻이다.

06 ㉠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꺾는 말.'이라는 뜻으로 맥락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라는 뜻의 '자초지종'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서술형**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문맥상 '과자의 내용물이 적다.'는 원인이나 근거에 해당하고, '과자 회사의 누리집에 이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글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이음말(접속어)의 의미

그리고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런데	1.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2.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래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08 낱말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낱말을 맞춤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ㄴ), 낱말의 뜻이 문맥상 적절한지(ㄷ) 등을 살펴 봐야 한다.

오답 풀이 ㄴ.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다.

ㄷ.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다.

ㄹ.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다.

어휘 문제

01 '남알로 된 곡식.'은 '알곡'의 뜻이므로 빈칸에는 <보기>에서 제시한 것 중, '곡'이 들어가야 한다.

02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은 '기점'의 뜻이므로 빈칸에는 <보기>에서 제시한 것 중, '점'이 들어가야 한다.

03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은 '추억'의 뜻이므로 빈칸에는 <보기>에서 제시한 것 중, '억'이 들어가야 한다.

04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아릿한 분위기.'는 '감새'의 뜻이므로 빈칸에는 <보기>에서 제시한 것 중, '새'가 들어가야 한다.

05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꺾는 말.'을 뜻하는 말로, '우리 형은 온갖 감언이설로 나를 꺾어서 심부름을 시킨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06 '틈새'는 '벌어져 난 틈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오백 원짜리 동전이 굴러가다가 옷장과 벽 틈새에 쑥 들어가 버렸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07 '부화'는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옴.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뜻하는 말이며, '메추라기 알 새끼가 부화해서 어쩔 수 없이 메추라기를 길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08 '다행히'는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게.'를 뜻하는 말로, '버스 카드를 집에 두고 왔는데 다행히 친구를 정류장에서 만나 버스비를 빌렸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09 '체한 것같이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먹먹하다'이다. '막막하다'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이다.

10 '다른 사람에게 차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조르다'이다.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이다.

11 우리말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지만,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의 '만큼'은 체언 뒤에 붙을 때에는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궁궐'에 붙여 써야 한다.

4. 더 쉽게 더 정확하게

(1) 다양한 설명 방법

본문 58~65쪽

핵심 체크

- 01 (1) 관심, 질문 (2) 우수성 (3) 제안
02 (1) 예시 (2) 인과 (3) 비교 03 인과
04 (1) ○ (2) ○ (3) ×

문제 맛보기

- 01 ② 02 ③

내공 확인 문제

- 01 ③ 02 ③ 03 ㉔: 유용한 물질, ㉕:
식중독 04 ⑤ 05 ② 06 ⑤
07 ③

내공 심화 문제

-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영양소를 공급함, 필수 아미노산 06 ⑤

어휘 문제

- 01 ㉓ 02 ㉔ 03 ㉕ 04 ㉖
05 향암 06 배설 07 감칠맛 08 부패
09 ② 10 ④

핵심 체크

- 01 (1)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발효 식품을 예로 들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질문을 하여 앞으로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2) 이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발효의 개념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의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3) 이 글의 끝 부분에서 글쓴이는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 02 (1)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이다.
(2)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이다.
(3)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이다.

- 03 앞 문장은 된장의 향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고, 뒤 문장은 그 이유가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향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 04 (1)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김치의 젖산균과 젖산은 우리 몸 안에서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돕는다.

- (3)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항암 효과가 뛰어난 발효 식품은 '간장'이 아니라 '된장'이다.

문제 맛보기

- 01 <보기>에서는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두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정의'는 대상의 본질, 개념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⑤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아 설명하는 방법이다.

- 02 마지막 문장인 '앞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말이다.'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내공 확인 문제

- 01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먼저 발효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내공 기르기

(가)는 설명하는 글의 구성에서 '처음' 부분에 해당해, 처음 부분에서는 글을 쓴 목적과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데, 이 글에서도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 앞으로 '발효의 개념과 발효 식품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지.

- 02 김치의 발효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다)를 통해 채소를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묽은 농도의 소금에 절여야 발효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즉 자연 상태가 아닌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발효가 잘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김치의 저장성이 좋은 이유는 젖산 때문이다.
② 발효는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 영양소를 공급한다. 또 대표적인 발효 식품인 김치가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효 식품은 건강 유지에 높은 효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김치 발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산균도 함께 성장하고 증식한다고 하였으므로 김치가 발효되면 젖산을 만드는 젖산균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⑤ 효모나 젖산균은 발효에 작용하는 미생물이므로 발효 식품인 간장, 된장, 빵, 치즈, 김치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볼 수 있다.

03 발효와 부패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 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서 만약 먹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말은 ‘유용한 물질’이고, ㉡에 들어갈 말은 ‘식중독’이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04 (다)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발효 과정에서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등 김치가 우리 몸에 좋은 까닭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하게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라)에서 글쓴이는 콩을 꼭 삶아서 찜은 다음 이를 콩 덩어리로 만드는데, 이 덩어리가 바로 메주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전통 양념인 간장과 된장도 발효 식품이라고 하였다.

③ (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조상들은 장 담그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간장을 만들 때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들어 내는데, 이 아미노산이 소금물에 녹아 들어 감칠맛을 더하게 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간장을 만들 때 생성되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06 ㉠은 젖산의 역할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해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 된장, 빵, 치즈 등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친숙한 발효 식품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② ㉢: 발효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③ ㉣: 발효와 부패가 어떤 점에서 같은지를 알려 주고 있으므로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④ ㉤: 발효와 부패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07 ㉠은 ‘국악기’라는 큰 항목을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작은 항목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에는 큰 것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은 ‘국악기’에 속하는 작은 항목들을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즉, ㉡에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는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은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에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구조를 살피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다양한 설명 방법

-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 인과: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 정의: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
-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
-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
-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아 설명하는 방법
- 부연·상술: 중심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을 보충하여 덧붙이거나 상세하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방법
-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방법
- 비유: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

내공 심화 문제

01 이 글에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확인할 수 없다. (다)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아니라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된장을 만드는 방법은 (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으개어 소금을 넣고 섞은 다음 숙성시킨 것이 된장이다.

③ 간장이 감칠맛을 내는 이유는 (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에서 바실루스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만든 아미노산이 간장에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④ 김치의 보관성이 좋은 이유는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이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고 했다.

⑤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효와 부패 둘 다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이라는 점은 같지만, 발효는 사람에게 이로운 반면 부패는 사람에게 해롭다는 차이점이 있다.

02 이 글은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한 글이다. (가)는 처음 부분, (나)~(아)는 가운데 부분, (자)는 끝 부분에 각각 해당한다. (마)와 (바)는 발효 식품인 간장을 만드는 방법과 간장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문단으로 적절하다. ㉡에는 (나), ㉢에는 (다)와 (라), ㉣에는 (사)와 (아), ㉤에는 (자) 문단이 들어가야 한다.

내공 기르기

(가)는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 중 ‘처음’ 부분에 해당해, 설명하는 글에서 ‘처음’ 부분은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 따라서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을 읽을 때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으면 중간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글의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자)는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 중 ‘끝’ 부분에 해당해,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글쓴이는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의 ‘끝’ 부분에 주목하면 글의 주제나 글쓴이의 집필 목적, 의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

03 설명 방법은 문장이나 문단뿐 아니라 글 전체 수준에서도 사용된다. (다)~(아)는 ‘김치’, ‘간장’, ‘된장’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아)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⑤의 ‘예컨대’는 ‘예를 들자면’이라는 뜻으로 이를 통해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하나의 대상이나 관념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에 해당한다.
 ②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정의’에 해당한다.
 ③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분류’에 해당한다.
 ④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인용’에 해당한다.

04 간장을 만드는 과정은 (마)에, 된장을 만드는 과정은 (사)에 설명되어 있다. 간장은 메주를 담근 소금물을 달인 것이므로 ④에서 완성되고, 된장은 소금을 섞은 메주를 1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하므로 ①에서 완성된다. (마), (사)에서 메주를 발효하여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국물을 떼내어 달이면 간장이 되고,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로 된장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③과 ⑥는 날 콩이 아니라, 삶은 콩을 찧어 메주를 만드는 과정에 해당한다.
 ② 메주는 서늘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한다.
 ③ 바실루스가 아미노산을 만들어 내는 것은 메주가 소금물 속에 발효될 때이므로 ③가 아니라 ④이다.
 ⑤ ③~⑥는 간장을 완성하는 과정을, ②와 ①은 된장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05 서술형 글쓴이는 (바)에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인 ‘간장’은 감칠맛을 더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에서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간 기능을 높인다는 점과 피부병, 성인병 등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간장’의 우수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썼다.	☐
‘된장’의 우수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썼다.	☐

06 ㉠은 ‘인과’의 방법으로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유가 젖산이 유해균을 억제해 주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과’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⑤이다. ‘미세 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세 먼지의 영향(원인)으로 생기는 신체 변화(결과)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미세 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즉,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답 풀이** ① ‘비행기의 구조’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② ‘한국과 중국의 음식’은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③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는 ‘구분’이나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를 나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면 ‘구분’이고,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시’가 된다.

어휘 문제

01 ‘농도’는 ‘용액 따위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농도 짙은 액체’, ‘물감의 농도’와 같이 쓰인다.

02 ‘주역’은 ‘주된 역할. 또는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건 해결의 주역들’, ‘김 박사는 새로운 컴퓨터 운영 체제를 개발해 낸 주역이다.’와 같이 쓰인다.

03 ‘촉진’은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이라는 뜻으로, ‘수출 산업화의 촉진’, ‘양국은 경제 협력 강화와 공업화 촉진을 목표로 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와 같이 쓰인다.

04 ‘미생물’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라는 뜻으로, ‘미생물을 잘 이용하면 쓰레기를 공해 없이 처리할 수 있다.’와 같이 쓰인다.

05 빈칸에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죽임.’을 뜻하는 ‘항암’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발암’은 ‘암이 생김. 또는 암이 생기게 함.’이라는 뜻이다.

06 빈칸에는 ‘동물이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자신의 몸 안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은 후 생긴 노폐물을 콩팥이나 땀샘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뜻하는 ‘배설’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분해’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눌.’이라는 뜻이다.

07 빈칸에는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을 뜻하는 ‘감칠맛’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뽕은맛’은 ‘설익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라는 뜻이다.

08 빈칸에는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부패’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발효’는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 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이라는 뜻이다.

09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걸리는 병이므로 빈칸에는 ‘식중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식중독’은 음식물 가운데 함유된 유독 물질의 섭취로 생기는 급성 소화 기관 병이다. 설사·복통·구토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하는데, 원인은 음식물의 부패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익지 않은

과일을 먹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①의 ‘변비’는 대변이 대장 속에 오래 맺혀 있고, 잘 누어지지 아니하는 병이다. ③의 ‘성인병’은 중년 이후에 문제가 되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동맥 경화증, 고혈압, 악성 종양, 당뇨병, 백내장, 심근 경색, 폐 공기증, 뼈의 퇴행성 변화 따위가 있다.
 ④의 ‘영양실조’는 영양소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이상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빈혈, 부종(浮腫), 느린맥박, 설사, 피로감 따위의 증상이 나타난다.

10 ‘증식하다’는 ‘생물이나 조직 세포 따위가 세포 분열을 하여 그 수가 늘어나다. 또는 그 수를 늘려 가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한편 ①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한다.’는 ‘공급하다’의 뜻이고, ②의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는 ‘생성하다’의 뜻이며, ③의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하다.’는 ‘억제하다’의 뜻이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본문 66~73쪽

- 핵심 체크** 01 (1) 이해 (2) 예상 독자 (3) 설명 방법
 02 내용 생성하기 03 (1) ○ (2) × (3) ×
 04 ㉠, ㉡, ㉢
- 문제 맛보기** 01 ㉢ 02 ㉢
- 내공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 06 ㉡ 07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 내공 심화 문제** 01 ㉤ 02 ㉣ 03 ㉡ 04 ㉢
 05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 지역 간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06 ㉠
- 어휘 문제** 01 ㉣ 02 ㉠ 03 ㉢ 04 ㉠
 05 계승 06 보존되어 07 정체성 08 유래를
 09 ㉣ 10 ㉡

핵심 체크

01 (1) 설명하는 글이란 독자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을 말한다.

- (2)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글을 쓰기 전에 예상 독자의 요구, 지식수준, 흥미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적절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02 설명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과정에 따라 쓴다.

- 03** (1)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2) 개요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구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개요를 작성하는 이유는 쓸 내용을 풍부하게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3) 내용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정하고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고쳐쓰기 단계가 아니라 표현하기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 설명하는 글은 독자의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은 설명하는 글을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할 때,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은 설명하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또한, 설명하는 글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므로 ㉢은 설명하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논증’이란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 주장이나 의견이 옳음을 증명하는 서술 방법이므로 ㉣은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성을 취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므로 ㉤은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설명하는 글은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성을 취한다.

문제 맛보기

01 제시된 글은 설명하는 글로,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하는 글을 쓰는 목적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독자가 어떤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풀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은 ‘수필’, ②는 ‘기사문’, ④는 ‘주장하는 글’, ⑤는 ‘시’를 쓰는 방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참고 자료] 설명하는 글의 특성

- 객관성: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 사실성: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 평이성: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어휘와 간결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한다.
- 체계성: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조에 따라 대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02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처음 – 가운데 – 끝’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에 적절한 설명 방식과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내공 확인 문제

01 남학생은 줄다리기에 흥미를 느끼고,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찾아 친구들에게 알려 주려고 한다. 이를 통해 남학생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글을 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남학생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것이다.
 ② 남학생은 자신이 찾은 정보를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글의 예상 독자는 친구들로 볼 수 있다.
 ③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처음 – 가운데 – 끝’이다. 남학생은 설명하는 글을 쓸 것이므로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짜임새 있게 내용을 조직할 것이다.
 ⑤ 남학생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은 독자가 줄다리기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것이다.

[참고 자료]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활용하기
-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기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면담하기
-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기

02 설명하는 글은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줄다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나)는 줄다리기의 가치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는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겹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인쇄 매체인 표준 국어 대사전(책)에서 수집한 자료이고, (나)는 인쇄 매체인 신문 기사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다)는 창닫기 버튼이나 스크롤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수집한 자료이다.
 ③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④ 수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있는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자료인지, 더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무엇보다 주제를 잘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점검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글에 활용할 경우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03 (가)는 줄다리기의 정확한 뜻, (나)는 줄다리기의 가치, (다)는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이다. 따라서 (가)를 활용하여 줄다리기의 뜻을 설명할 수 있고, (나)를 활용하여 줄다리기의 가치와 줄다리기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를 활용하여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겹줄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04 ㉔에서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줄다리기의 규칙을 설명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적절한 설명 방식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의 비슷한 점을 들어 설명하는 ‘비교’이다.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 오답 풀이** ① 줄다리기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때는 대상의 본질, 개념과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식인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줄다리기가 생겨난 까닭을 설명할 때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방식인 ‘인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줄다리기의 가치나 중요성을 설명할 때는 대상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줄다리기를 전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설명할 때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인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표현하기’는 개요를 바탕으로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는 단계이다. 이때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다. ②는 ‘내용 조직하기’, ③은 ‘계획하기’, ④와 ⑤는 ‘내용 생성하기’에 해당한다.

06 (나)에 ‘귀지는 외이에서 만들어진다.’와 같이 귀지가 생기는 곳은 나타나 있지만, 귀지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귀지란 귤구멍 속에 낀 때를 말한다.”와 같이 귀지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또 귀지를 파게 되면 세균이 쉽게 침범하고, 만성 외이도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와 같이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외이도에 있는 작은 털들과 함께 귀지는 귤속으로 들어오려는 이물질들을 막아 준다.”와 같이 귀지가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⑤ (나)에서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뉘는데, 귀지는 외이에서 만들어진 다.”와 같이 귀지가 만들어지는 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07 서술형 <보기>는 ‘외이, 중이, 내이’라는 한자어를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또한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를 <보기>와 같이 고친 이유는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였음을 정확히 썼다.	☐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음을 정확히 썼다.	☐

내공 심화 문제

01 ‘고쳐쓰기’는 ‘글 수준 → 문단 수준 → 문장 수준 → 단어 수준’의 순으로 고쳐 쓰거나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올바른지 단어 수준에서 우선 검토해 고쳐 썼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이 해당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게

나, 문장의 길이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그 문장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쳐쓰기'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의 순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주제를 설정하며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분석하여 글쓰기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 ② '내용 생성하기'는 매체 조사, 면담, 견학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 ③ '내용 조직하기'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글의 구조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에 적절한 설명 방법과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 ④ '표현하기'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초고를 작성하는 단계로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02 (나)는 줄다리기가 어떤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줄다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기사 자료이다. 따라서 설명하는 글의 가운데 부분이나 끝부분에서 줄다리기의 가치나 의의를 설명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오답 풀이** ① (가), (나)는 인쇄 매체에서, (다)는 인터넷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 ② 일반적으로 설명 대상을 제시하는 부분은 글의 처음 부분이다. 따라서 (가)-①은 글의 처음 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의 첫머리에서 설명 대상의 정확한 개념을 밝힐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 ③ (가)-②는 줄다리기의 비유적 의미에 해당하므로 글의 처음 부분에서 설명 대상의 개념을 정확히 밝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
- ⑤ (다)는 줄다리기의 용구 중 하나인 줄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가), (나), (다)는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모두 '줄다리기'와 관련이 있는 자료이므로 글쓴이가 어떤 정보를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글쓴이가 선별하여 활용할 것이다.

03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주제와의 관련성 여부,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오답 풀이** ⑥: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 ⑦: 예상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04 '줄을 만드는 방법'은 상위 항목인 '2. 줄다리를 하는 방법'과 관련성이 떨어져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ㄷ에 추가할 내용으로 부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은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설명 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설명 대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인용해 독자의 흥미를 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② 줄다리가 생겨난 까닭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문헌 자료는 '줄다리기의 유래'를 설명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④ '줄다리기의 위험성'은 상위 항목인 '2. 줄다리를 하는 방법'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해 '줄다리기의 규칙'과 같은 하위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끝부분의 개요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줄다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 위한 의도로 글을 쓰려 한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3. 줄다리기의 의의'의 하위 항목으로 '줄다리를 전승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05 서술형 <보기>는 '.....에 반하여 그 반대이다.'와 '.....점에서는 같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줄다리기의 편을 가를 때'의 핵심 어구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 간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해 지역 간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 두 가지를 정확히 썼다.	☐
<보기>에서 전달하는 중심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

06 제시된 글의 첫 번째 문장인 "줄다리기의 기원은 정확히 점차 북쪽으로 전해졌다."는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호흡이 긴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나누어 준다는 검토 내용은 제시된 글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어휘 문제

01 '확립하다'는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서게 하다.'라는 뜻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다.', '사업의 기틀을 확립하다.'와 같이 쓰인다.

02 '결속하다'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단결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결속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와 같이 쓰인다.

03 '전승하다'는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하다.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잇게 하다.'라는 뜻으로, '가문 대대로 조상의 업적과 가훈을 전승하다.'와 같이 쓰인다.

04 '간략하다'는 '간단하고 짧막하다.'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내력을 간략하게 들려주었다.'와 같이 쓰인다.

05 제시된 문장은 역사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이어 나간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을 뜻하는 '계승'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결속'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단결함.'이라는 뜻이다.

06 제시된 문장은 '직지심체요절'이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잘 보호되고 간수되어 남겨 지다.'를 뜻하는 '보존되다'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통제되다'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거나 제약되다.'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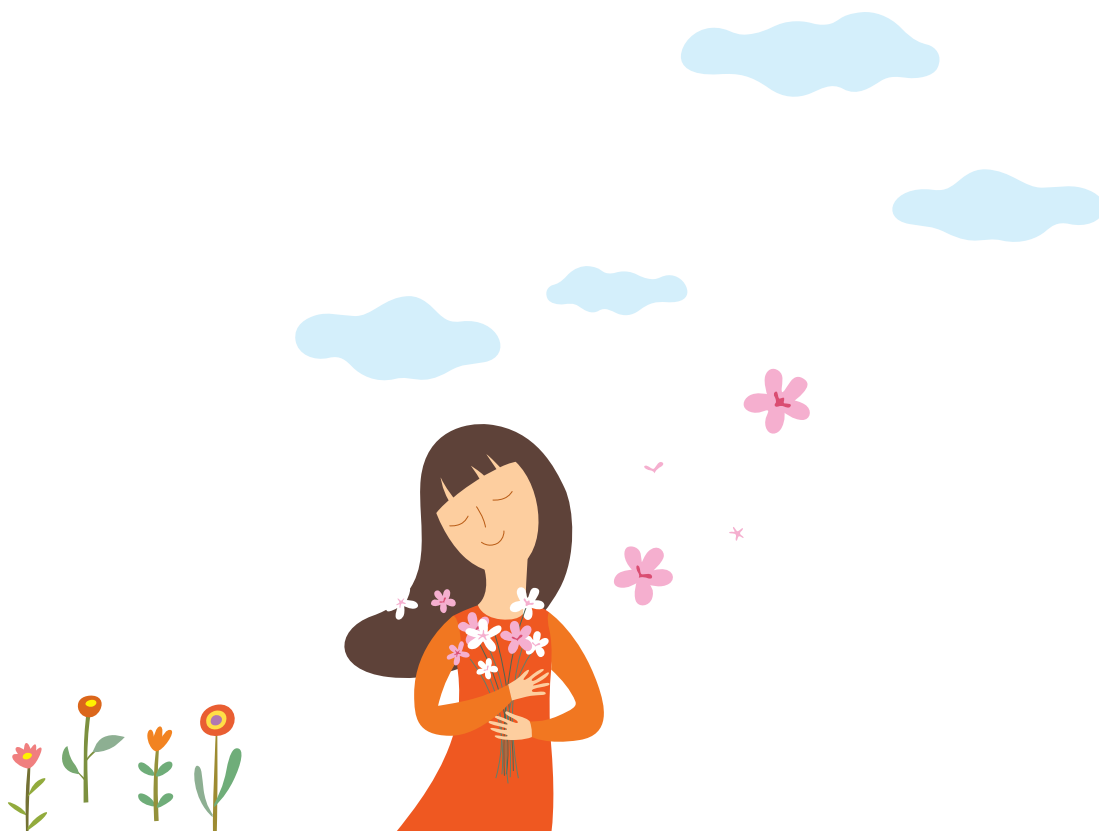
07 제시된 문장은 민족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뜻하는 ‘정체성’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주체성’은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라는 뜻이다.

08 제시된 문장은 줄다리기가 생겨난 바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를 뜻하는 ‘유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유전’은 ‘물려받아 내려옴, 또는 그렇게 전해짐.’이라는 뜻이다.

09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을 뜻하는 낱말은 ‘공동체’이다. ①의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②의 ‘단합’은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이라는 뜻이다. ③의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라는 뜻이다.

10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용납하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므로 ‘간주하다’와 바꾸어 사용하기 어렵다. 한편 ①의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③의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이다. ④의 ‘생각하다’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간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